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①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대법원 · 사법발전재단

책을 펴내며

어린이 여러분들은 혹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투어 본 적이 있나요? 또는 집에서 형제들과 싸워본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차근차근히 들어 주고,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해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서로 사이좋게 화해하라고 결정해 주신 분은 누구였나요? 만약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 한쪽 편만 들고 공정하게 다툼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친구들, 형제들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커지겠지요?

법원이 하는 일은 이와 비슷합니다.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다툼이 생겼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은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인 법에 따라 중립적으로 판단하여 다툼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양쪽의 주장을 듣고 그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절차가 바로 재판이구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헌법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중요한 권리인 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어린이 여러분에게 법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재판이란 무엇인지, 재판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재미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재판이야기도 생생하게 들려줄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인 똘이, 나리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 신나는 여행을 하다보면 법원과 재판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쌓이게 될 거예요. 귀엽고 깜찍한 '바로미'가 친구가 되어 여러분을 재미있고 신나는 법원과 재판이야기 속으로 안내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로미'가 누구인지 궁금한가요? 자, 그럼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출발!!!

2024년 10월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장인물 소개



바로미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똘이와 나리에게 법과 재판에 대해 가르쳐주고 초능력을 사용하여 특별한 경험을 겪게 해준다.



신나리

똑똑하고 어여쁜 12살 소녀. 얌전한 성격이지만 불의를 보면 놀라울 정도로 크게 폭발한다. 매사에 하는 일이 똑 부러지는 성격



한똘

정의감만으로 좌충우돌하는 12살 소년. 운동실력이 뛰어나고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다.



똘이 아빠와 똘이 엄마

똘이를 매우 사랑하시는 똘이의 부모님



성규, 민호, 호철

비행청소년이라고 자칭하는
중학생 형들



김속임

똘이에게 게임 아이템을
사기친 청년



정의로 검사

똘이의 게임 아이템
사기사건을
담당하신 검사님



이공정 판사

똘이의
게임 아이템 사기사건을
담당하신 판사님



차례



제1화

법, 법, 법이 필요해! ····· 8

제2화

형들도 재판을 받다니! ····· 54

제3화

법원과 재판, 그것이 알고 싶다 ····· 102

제4화

똘이,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고? ····· 122

제 1화

법, 법, 법이 필요해!


점심 돈까스 맛있었지?
그래 같이 나온 단무지도 맛있더라
형아 여기 짜장면 1000그릇!
!
대법초등학교
OK! 이따 가게로 와~
신속 배달
호반점


재민이 못 봤냐?
몰라!
뻥
KOREA
이재민, 너 핸드폰 신상품이네.
잠깐만 빌려쓰자 한 1년쯤…
크크크
MIT
안돼! 엄마한테 혼나…
엄마한테 혼나는 건 무섭고
우리한테 혼나는 건 안 무섭냐?
AM
너희들… 협박하면
똘이한테 이를거야


컥! 3반의 미친 야수 한똘이? 미성년자만 아니었으면
K1을 휩쓸었을 거라는 그 한똘?!
그래. 난 똘이랑 친구거든.
똘...!
헙!
끄악!!
이자식이 누굴 잡으려고!
응?
누가 날 불렀나?
드르륵
헉! 진짜 똘이다.
우.우린 널 부른 적 없는데?
잘못 들었겠지...


근데 너희들 뭐해?
아, 얘가 핸드폰을 새로 샀다구해서 구경하고 있었어.
야~ 잘봤다.
핸드폰 멋지네. 부럽다야.
부러우면 너희도 엄마에게 사달라고 해.
타
그래?
드르르
이 얄미운 자식!!
아 참!!
으악?
너희들 나리 못 봤니?
모.못 봤는데...
교실에도 안보이구
숙제 빌려준다고 해 놓고선 어디갔지?


신나리
화장실 갔다 오는거야?
!
응가 봤구나.
시원하겠다.
비켜줘. 교실에 돌아 가야 해.
교실에 가서 뭐하게?
또, 똘이랑 놀려구?
넌 왜 맨날 똘이랑 놀아?
우리는 사람으로도 안보여? 앙?
어쩜... 쟤들 또 나리 괴롭히네.


나리가 예쁘면서 성격도 참 착하잖아.
저렇게라도 나리에게서 관심 받을려구 발악하는 거지.
킥!


깍!
에잇!


변태박멸!!
빡
컥!


똘아!


또... 똘아...


너희들 감히 나리를 괴롭혀?
정의의 주먹으로 응징해주마!
나아쁜...!!
허걱!!!
또 너냐...
한 똘이 …
5-3
하아~


시 간 표
흑흑... 선생님 폭력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선생님. 재들이 먼저 나리를 괴롭혔단 말예요.
너희들 한번만 더 나리 괴롭히면 다음엔 두배로 더 때릴거야!
한 똘! 조용히 못해?
읍...
너희도 나리를 괴롭힌 건 잘못이야. 각자 잘못한 것 반성해.
네...
선생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쌤통이다.
사 사 삭





학급규칙

제1조. 수업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 - 만약 수업시간에 장난을 하여 2번 경고를 받으면 1시간의 학급봉사활동을 한다.

제2조. 과제를 성실히 한다. - 만약 과제를 2번 연속 안해오면 책 1권을 읽고 요약한 후 친구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제3조. 복도에서는 뛰지 않는다. - 만약 복도에서 뛰면 교실에 있는 화초를 1일간 잘 보살펴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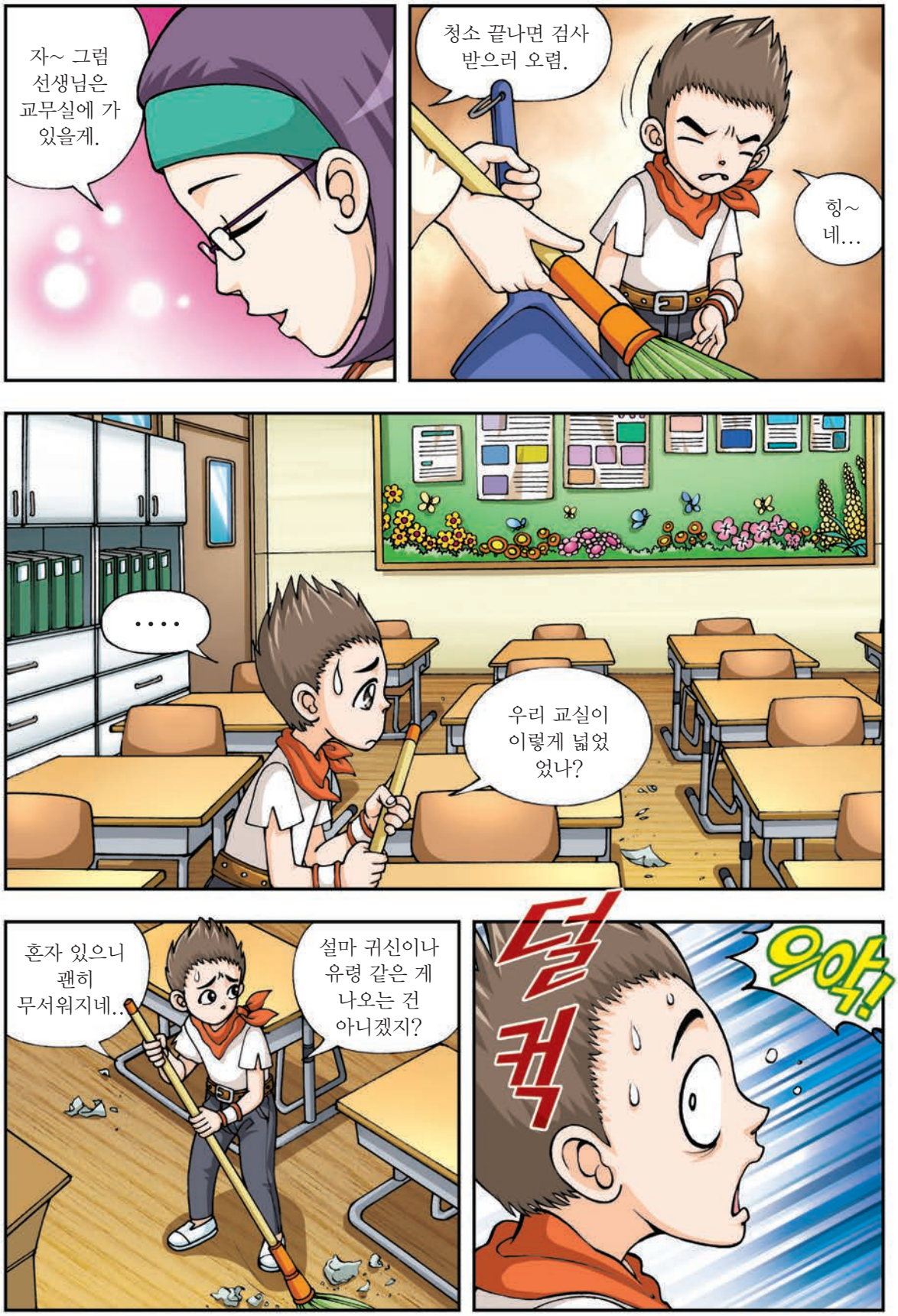

학급규칙 4조가 뭐지?
친구를 괴롭히거나 다투지 않는다.
학급규칙은 반친구들이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고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있는거란다.
똘이 네가 아니라 다른아이가 잘못했더라도
똑같이 학급 규칙을 적용할 거야.
규칙은 공정한 것이니깐!
그리고 교실에 학급 규칙이 있듯 사회에는 법이 있단다.
법은 인간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꼭! 꼭 필요한 장치지.
법이 정의를 지킨다구요?


사람들은 법을 통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구별하거든. 덕분에 사회는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지.
훌륭한 시민 표창


저도 정의를 위해 주먹을 쓴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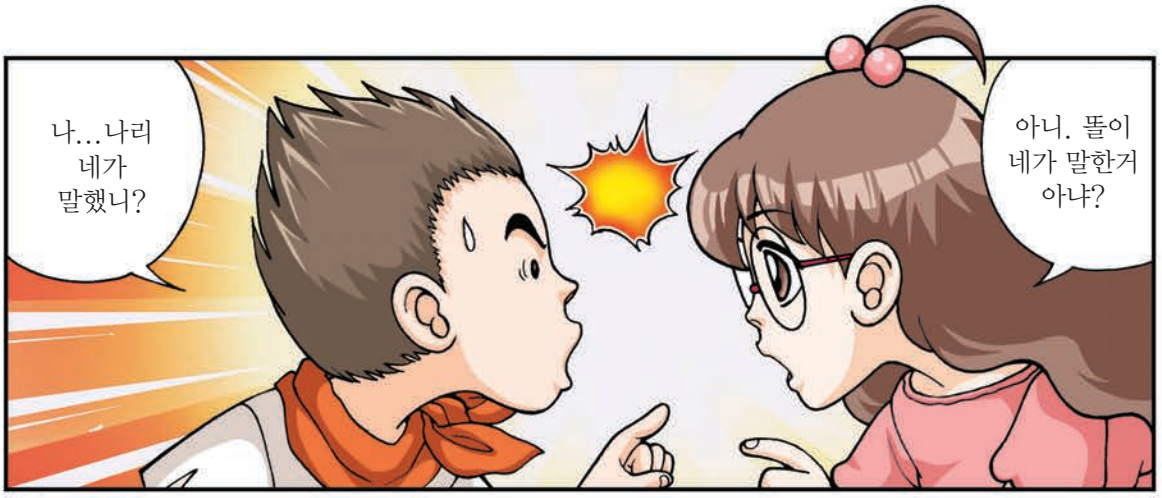

정의란 쉽게 말해 올바르고 공정한 도리를 말하는 거야.
정의를 위해서라면 방법도 정당해야지.


시간표
이 고집쟁이 녀석
치! 그런게 어딨어!!
납득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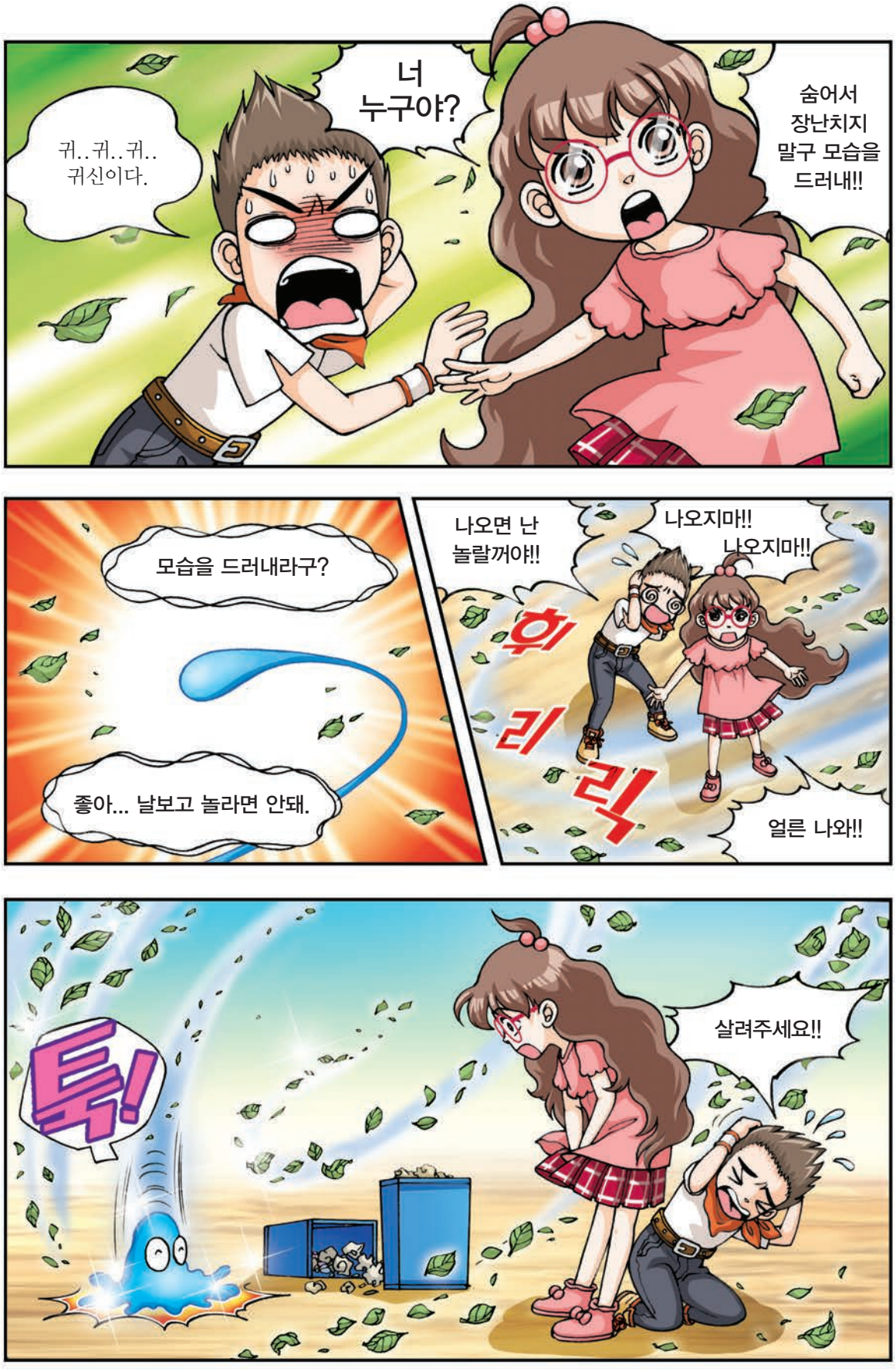

자~ 그럼 선생님은 교무실에 가 있을게.
청소 끝나면 검사 받으러 오렴.
힝~ 네…
….
우리 교실이 이렇게 넓었었나?
혼자 있으니 괜히 무서워지네..
설마 귀신이나 유령 같은 게 나오는 건 아니겠지?
덜컥
으악!


똘아 뭐해?
아... 아 나리구나!
나... 난 새로 나온 태권도 동작 좀 연습하고 있었어.
그런데 나리 넌 웬일이야?
청소 도와 주러 왔어.
혼자서 넓은 교실 청소 하려면 힘들잖아.
나리는 무서움을 많이 타는가 보구나 흠~ 걱정마. 내가 있잖아.
호호 그래?
으샤으샤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으스스해...


난 이제 태권도 도장도 그만두려고해.
죄송하지만 사범님께 더이상 배울것이 없는 것 같아.
대단해.
삭
앞으로 계속 나리 넌 내가 꼭 지켜줄게..
학교의 못된 애들 모두 날 무서워하는거 알지?
선생님은 학급규칙이니 법이니 너무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것들이 있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런가...?
내 발차기 한방이면 나쁜 놈, 못된 놈, 악한 놈 몽땅 깨끗하게 아웃이라구!
어머!
하!
헤~
?
크크크... 과연 그럴까?


나...나리 네가 말했니?
아니. 똘이 네가 말한거 아냐?


나쁜 놈, 악한 놈, 못된 놈의 기준이 뭐야?
너보다 더 힘센 사람 앞에서도 정의를 지킬 수 있을까?
정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발차기를 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 소리는??


귀..귀..귀..
귀신이다.
너
누구야?
숨어서
장난치지
말구 모습을
드러내!!
모습을 드러내라구?
좋아... 날보고 놀라면 안돼.
나오면 난
놀랄꺼야!!
나오지마!!
나오지마!!
휘
리
릭
얼른 나와!!
툭!
살려주세요!!





어린이 여러분! **법원 사이버캐릭터 <바로미>**를 **소개**할게요.
이 이름은 모든 문제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잡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사법부가 되자는 뜻도 있으며 순한글 이름으로서 바르게, 곧게, 정확히, 틀림없이 등을 의미하는 '바로'와 '도우미'의 '미'를 합성한 것이지요. 또 기준이나 표준을 의미하는 barometer(바로미터)를 연상하게 하여 법원의 역할을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바로미>**와 함께 법원과 재판이야기로 신나게 여행을 떠나볼까요?


크아아!! 부끄러워! 내가 이 눈꼽만한 걸 보고 쫄았단 말야?
네 눈꼽은 수박만한가 보구나. 얼른 안과에 가봐.
너 뭐야?
왜 사람을 놀래키고 그래?
말했잖아. 정의를 수호하는 바로미라고!
선생님처럼 또 법 타령이야? 법은 별로 흥미 없거든!
우와~ 공중으로 나네.
똘이가 법이 왜 필요한지 아직 모르는것 같아 알려주러 왔지.
두둥
똘아. 왜 까칠하게 굴고 그래? 바로미가 널 위해 왔다고 하잖아.
빙그르르
칫-
좋아. 퍼랭이 너 요정이라고 했지? 그럼 초능력 같은 것도 부릴 수 있는 거야?


에헴! 당연히 초능력은 있지~
우와 정말?
어머?
그럼 지금 당장 해봐!
벼락을 내리거나,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똘아. 넌 사회에 무슨 불만있냐?
뭘 자꾸 부수래?
엥?
요정세계에도
엄한 법이 정해져 있단다.
인간세상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초능력은
요정세계 안에서만 써야 된다는 거야.
에이~ 뭐 그렇게 시시한 법이 다 있냐?


인간세상의 질서를 위해 꼭 지켜야 하는 법이야.
부르르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큰 벌을 받게 돼.
요정도 벌을 받는 거야?
치사해.


인간과 똑같아.
벌을 내리지 않으면 법을 가볍게 보고 마구 어기는 요정이 생길 테니까.


에이-. 요정에게나 인간에게나
법이란 참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거구나.


똘아.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무조건 싫어하면 안돼.
법은 알면 알수록 더 편리하고 친숙해 진단다.
몰라!
몰라!


바로미야.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줄래?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
사람이 모여 사회를 이루어 살기 위해서 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말이란다.
그래. 그래서 심지어는 요정세계에도 법이 있지.
법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공동생활의 기준이거든.
이건 해야 될 일
저건 하면 안되는 일이구나.
법
그래서 오래전 인간이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할 때 부터 법은 존재 해왔지.
아아~


법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 왔구나.
그렇지!
난 법은 뭔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생각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내장이 뒤틀리는 느낌이야. 괴로워
저.저런 그래서 법을 싫어하는구나.
옛날의 법은 매우 단순했고 법 조항도 그리 많지 않았단다.
첫째!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고조선
하지만...
헉!


으악! 씨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버렸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판결을 내리지?
법은 점차 복잡해지고 내용도 많아져갔지.
사회가 발전하며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법을 고치고, 더하다 보니
법전


그렇게 많은 법들이 대체 어떤 일들을 하는 거야?
여러가지가 있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지면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고
빨간색 불이 켜지면 절대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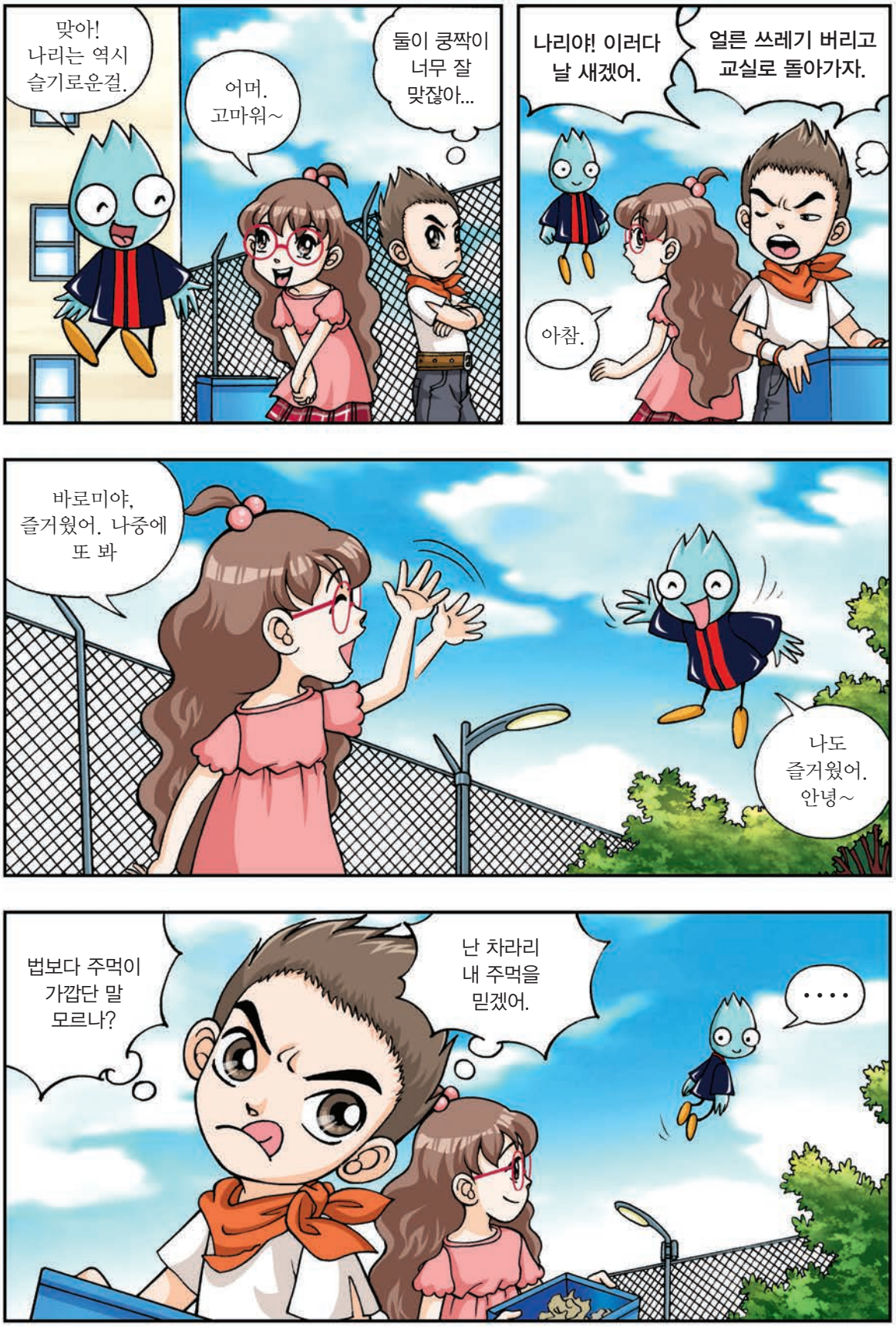
Tip

헌법과 인권

헌법은 나라의 정체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구조를 정한 모든 나라의 최고의 법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조직되며 함께 제정되었고 현재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되어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며 국가조차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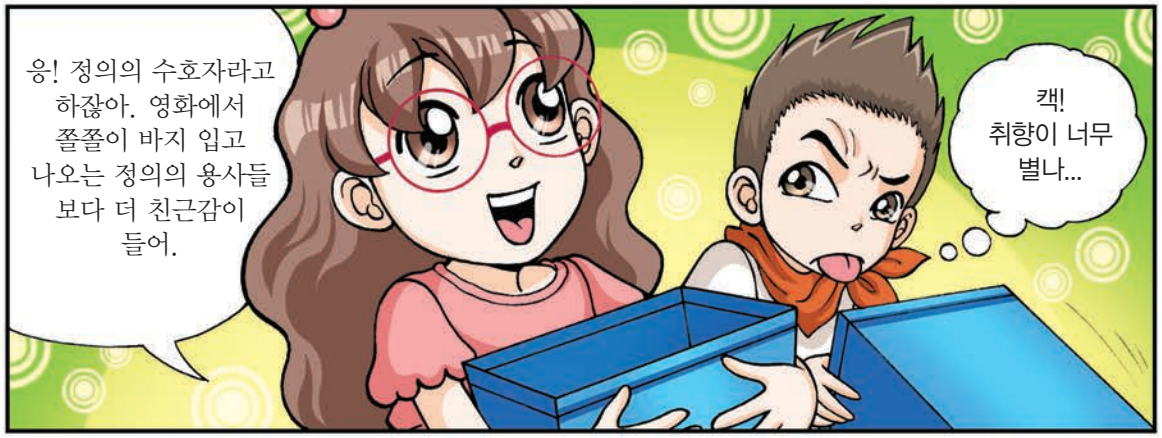
*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맞아! 나리는 역시 슬기로운걸.
어머. 고마워~
둘이 쿵짝이 너무 잘 맞잖아...
나리야! 이러다 날 새겠어.
얼른 쓰레기 버리고 교실로 돌아가자.
아참.
바로미야, 즐거웠어. 나중에 또 봐
나도 즐거웠어. 안녕~
법보다 주먹이 가깝단 말 모르나?
난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


똘이야
바로미 말야.


깜찍하면서도
너무 멋지지
않니?
그 펴랭이가
머.멋있다고
?


응! 정의의 수호자라고
하잖아. 영화에서
쫄쫄이 바지 입고
나오는 정의의 용사들
보다 더 친근감이
들어.
캑!
취향이 너무
별나...


바로미 덕분에
법에 대해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


만약에 말이야.
세상에서 갑자기
법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린 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어머…
나리 너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난 계속 널 지켜줄테니깐.
크아! 풋풋한데~
저런게 바로 사랑이지 암!
'난 계속 널 지켜줄테니깐'
아잉~ 눈물 난다.
형들은 누구세요?
중학생 같은데 초등학교에서 뭐하시는 거예요?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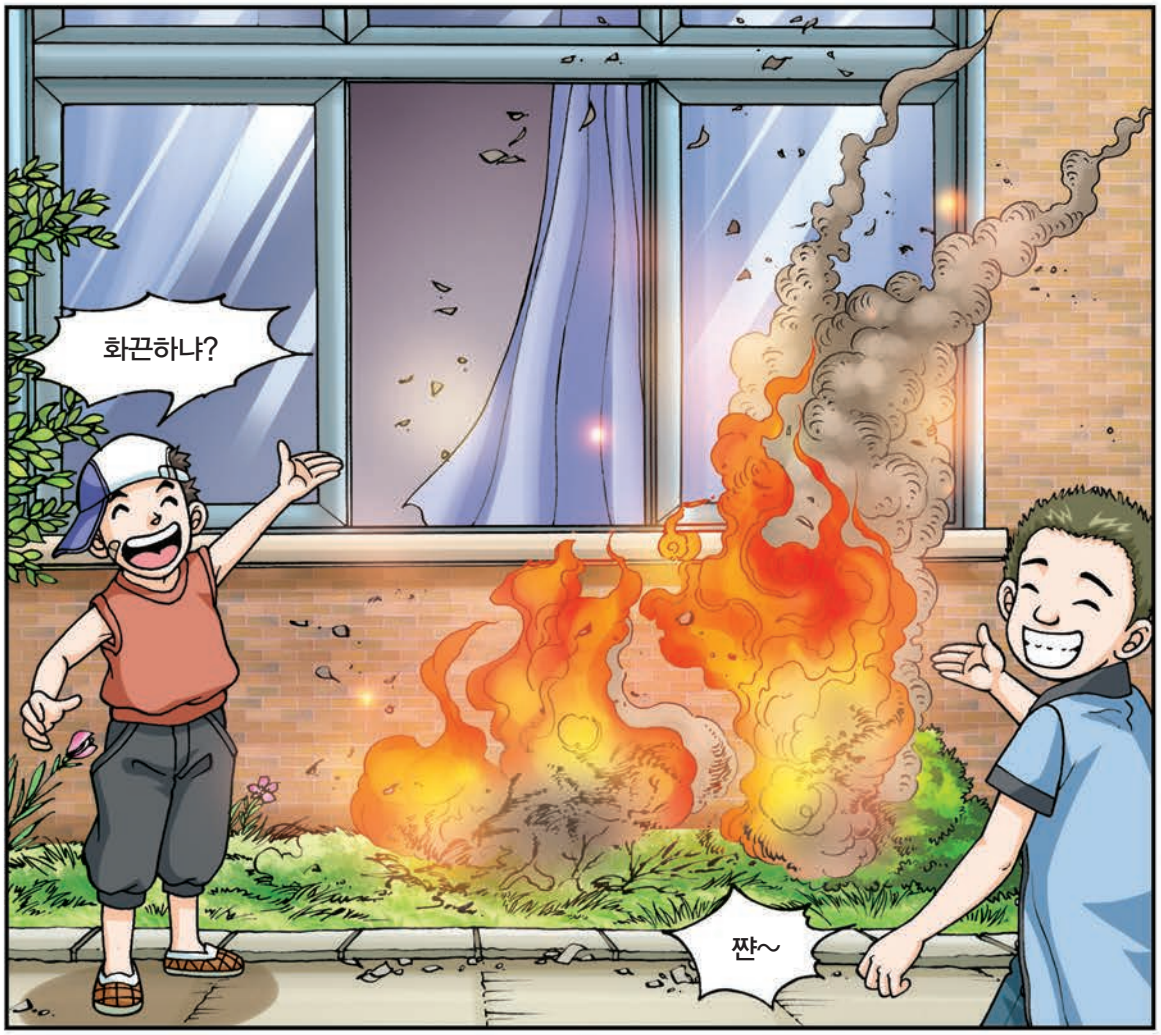

이성규
우리는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다.
장민호
찍
김호철
전문용어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지.
캬캬캬~ 그거 몇년 대 개그냐? 진짜 구려~
복고풍 모르냐 민호. 개그는 유행처럼 돌고 도는거야.
툭!
오빠들! 꽃을 밟고 있잖아요.
얼른 화단에서 나오세요!!
킥킥...
야!
오우~ 예쁘게 생겼네. 너 이 오빠들 동생해라.
느끼해!


형들! 나리에게 치근덕대지 말아요!!
똘아..
하! 요놈 여자애 앞이라고 허세 부리네~
얼른 눈 풀고 목에 힘 안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날 초등학생 이라고
만만하게 보는데 아니거든!
이얍!!
퍽!


컥!
다리길이가 모자르다니!!!
만만하게 보면 뭐?
뚤아!!
뭐가 어쨌다는거냐?!
퍽..
퍽..
퍽..퍽.
안돼요! 그러지마요
흥! 까불고 있어.
아우~ 시시해! 뭐 신나는거 없냐?
뚤아! 정신차려!!
뚤아?
기절한 거야?
야. 우리 화끈한 장난 한번 쳐볼래?
화끈? 좋지.


꼬악! 너무 창피해서 못 일어나겠어!!!
이제껏 내가 제일 강하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했었는데...
하필 나리 앞에서 이런 대망신을 당하다니...
안되겠어.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안돼!
어머!! 저 오빠들 뭐하는거야?
엥?
에이~ 불이 금새 꺼지네.
야. 화끈한 장난 이란게 이거냐?
야. 쫌만 기다려봐 나한테 휴지가 있거든 히힛~


좋았어! 성규 나도 좀 줘.
휴지로 불을 좀 키워서 다시 종이를 태우면 진짜 화끈해지겠지.
형들! 웬 불장난이예요? 얼른 꺼요!!
으악!
깜짝 놀랐잖아!
너 아직 덜 맞았구나!
탄다. 탄다~
후~
부..불.. 불이!!
짜증나! 좀 떨어져. 왜이리 끈질겨? 에잇!
또.똘아!
으아
뭐야? 안보여!!
허우적
허우적
호철아, 이것봐! 성공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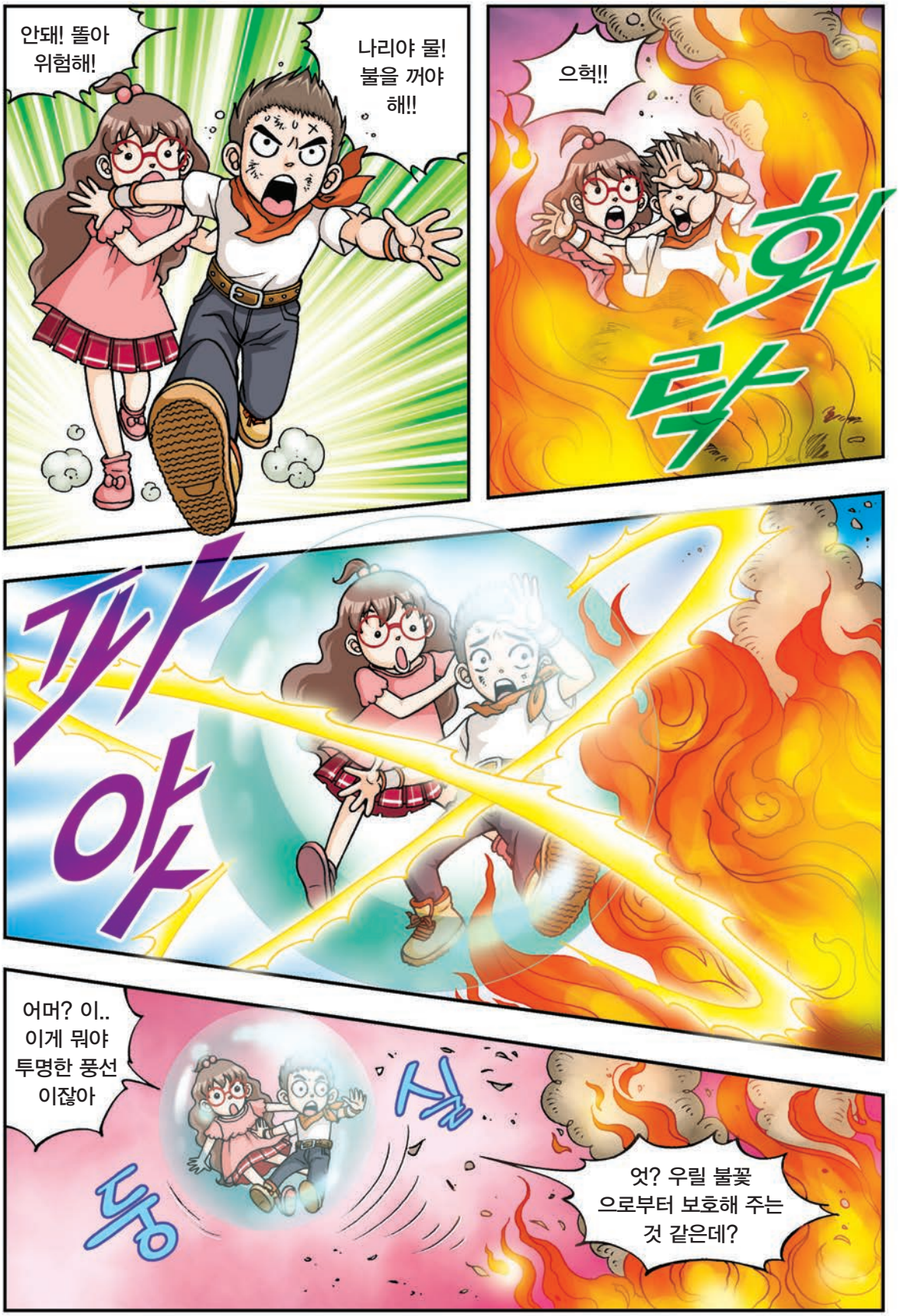

화끈하냐?
짠~


어? 야. 근데 불이 너무 크지 않냐?


우리가 스케일이 좀 크잖냐 헤헤헤~
이정도는 금방 꺼져 걱정마.


아이쿠! 나리야. 나 좀 꺼내줘 몸이 안 움직여!!
똘아, 큰일 났어. 부.불이.!!
타닥
타닥
나무를 타고
번지고 있어!!
헉! 너무 커졌다. 꺼! 꺼!!
학교 다 타는거 아냐?
끙!
크.큰일났어!!
당겨! 당겨!
어떡해?
엇? 선생님께 알려! 아니다, 119! 119에 신고.


헉! 교실 커튼에 불이 붙었다!!
119. 119
엇! 큰일났다.
안되겠다 도망가자!
안꺼져
튀어!!!
우다다다
우이씨


안돼! 돌아 위험해!
나리야 물! 불을 꺼야 해!!
으헉!!
화락
꺄앗
어머? 이.. 이게 뭐야 투명한 풍선 이잖아
뉭
엇? 우릴 불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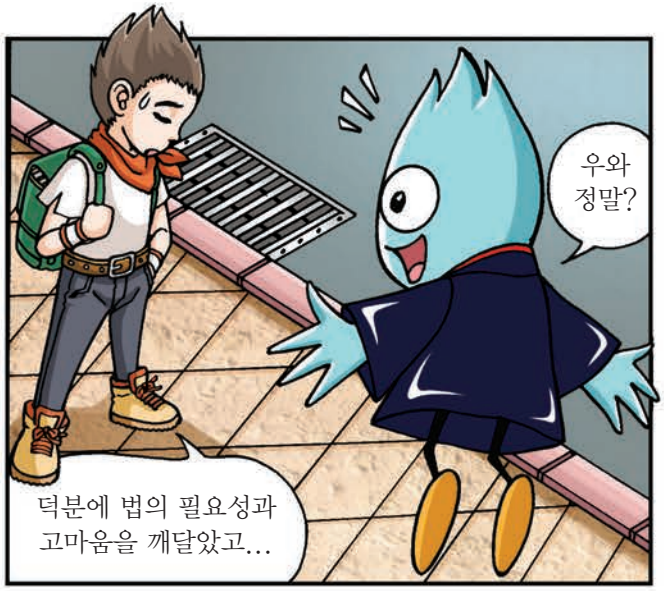

꿈꾸는것 아닐까? 너무 신기해
저..저것봐. 교실이 타고 있어. 나리야.
싸..싸이렌
엇? 사라졌다.
뽓!
에에엥
삐뽀삐뽀
소방차?!
누가 신고 했나봐!
얘들아! 위험하니까 비켜 나거라!
경찰 아저씨!
빨리! 빨리!
에에엥
삐뽀삐뽀


너희들 밖에 없니?
형들은 도망갔어요!
번지는 불부터 막아라!
혹시 너희들이 불장난 한거냐?
아니예요! 우린 아니예요.
나리야, 똘아.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
세상에... 학교에서 불이 나다니...!
너희들이 안보여서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선생님! 중학생 형들이 불을 질렀어요!!
정말이니? 자세히 말해 줄래.
세 사람인데요. 그 중 한 오빠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오빠 이름도 알아요. 다른 오빠들이 민호라고 불렀어요.
그래! 그리고...
모자달린 옷 입은 오빠를 뭐라고 불렀더라?
그래. 호철이었어. 그리고 또 한 오빠는 성규 맞지? 똘아.
민호, 호철, 성규라 했단 말이지.
그..그런것 같아.
와~ 이름까지 외고 있다니
나리는 역시 똑똑하다니까 . . .
그리고 셋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어요.
음! 너희 말이 구체적이라 큰 도움이 될 것 같구나.
엇! 나리야. 불이 꺼지고 있어.
오..정말 그나마 다행이구나.


똘아. 앞으로 그러지마.
엉?
불을 끄겠다고 뛰어 들었을 때 너무 놀랐단 말야.
아! 그게 나도 모르게 그만..그보다 나리야 아까 그 투명한 풍선같은 건 뭘까?
글쎄? 분명한 건 불길로부터 우릴 구했어.
그렇지.
평소 내가 정의로운 일을 많이해서 하늘이 도운게 아닐까?
땡!
...!
어머! 바로미야.
그건 내가 부린
초능력이 었어.
딩
동


거짓말! 넌
요정계의 법 때문에
초능력을 부리면
안된다고
했잖아!
거짓말
아냐..
난 이제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었어.
팍!
넌 그 초능력으로
우릴 구해줬잖아.
너무 고마웠다구.
좋은 일을 해도
벌 받는거야?
맞어! 그건
나도 고맙게
생각해...
으..! 정의를
수호하는 내가
법을 어기다니..
난 곧 요정계에
불려가 재판을 받게
될꺼야.
...!
그렇구나.
하지만.


우와 정말?
덕분에 법의 필요성과 고마움을 깨달았고...


법이 없다면 좀전에 내가 형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 질꺼잖아.


그래. 또 행위기준이 서로 달라서 다투는 일이 많아지기도 하지.
우리가 이제껏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것도 법 때문이었구나.


마치 산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법이 만들어 놓은 질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거지.


와! 똘이가 많이 발전 했는걸 너무 기뻐
하지만 우리 때문에 네가 재판을 받게 되었잖아...


괜찮아! 이런 경우엔 정상참작을 해 줄지도 몰라.
정상참작?


그건 재판관이 사정을 들어보고 벌을 다소 덜어주는 것을 말해.
법이라고 해서 언제나 엄격하고 딱딱한건 아니구나.
정상참작
일의 사정을 들어보고 재판관이 벌을 다소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근데 바로미야. 불을 낸 오빠들은 어떻게 될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지!
법의 심판!?
지잉
앗! 얘들아 난 가야해 요정계에서 날 부르고 있어.
안녕!
팟!
어머?
재.재판 받으러 가는 거구나?
바로미는 어떻게 될까? 진짜 벌을 받게 될까?
글쎄...? 법을 어겼다니까 ....??
나 때문에
그럼 그 오빠들도 재판을 받게될까?
그 형들은 나쁜 짓을 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나마 불이 화단과 교실 한 개만 태웠으니 정말 다행이잖아
그래도 불을 지르는 건 큰 죄잖아! 아마 감옥갈 걸!? 그보다 나리야... 미안해.


뭐가?
널 지켜주겠다고 큰소리만 치고 우스운 꼴을 보였으니...
무슨 소리야. 넌 날 지켜줬어! 미안한건 오히려 나지
똘아, 내가 널 좋아하는 건 힘이 세어서가 아니야. 너의 정의로운 모습이 멋있어서라구!
헉!
내가 널 좋아하는건...
내가 널 좋아하는건...
내가 널 좋아..
나리가 나를!!
나를!!
나리야. 사실 나..나도.. 널..
엥?
뭐해 똘아! 나 늦었어. 얼른 가야해 빨리와!!
나.. 나리야..
우리 내일은 그 오빠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지!!



제1화 심화학습

홍길동은 과연 유죄일까? 무죄일까?

많은 사람들은 홍길동을 의적, 즉 의로운 도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들에게서 부당하게 물건을 빼앗아 재산을 늘린 못된 양반이나 탐관오리에게서 물건을 도로 빼앗아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렵게 사는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건을 빼앗은 홍길동은 과연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들은 홍길동을 무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은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양반과 탐관오리를 혼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홍길동이 정의로운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홍길동이 이런 일로 잡혔다면 유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홍길동의 이러한 행동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도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도 합니다. 법은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지만 도덕은 선을 추구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면 벌을 줌으로써 강제적으로 법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위반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사회적인 비난이 따릅니다.

제 2화

형들도 재판을 받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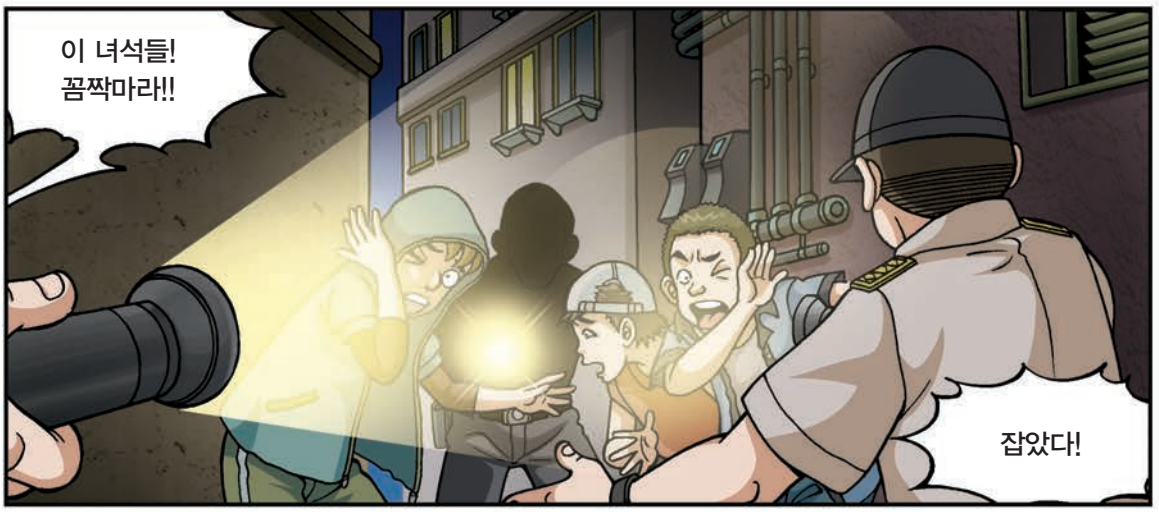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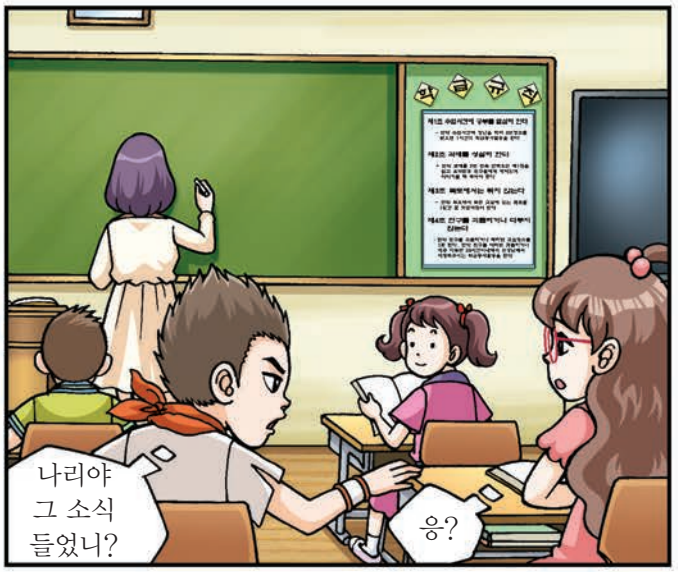

야! 따라오고 있어!
거기 안 설래!
퍼마켓
싫어요!!
아저씨들이나 거기에 좀 서 있어요!!
쌩~
다다다 다다
우와... 짜증나!
불장난 좀 했다고 경찰까지 뜨냐?
소방차 오는 소리 못들었어? 불이 크게 번진 것 같아..!?
그렇다고 계속 도망다닐 수 없잖아
앞으로 우린 어쩌지?


원양어선을 타고 태평양으로 떠나자 아무도 우릴 못 찾을 거야.
안돼... 난 배멀미가 심하잖아.
하악.... 따돌린거 맞지?
차라리 특기를 살려서 주먹세계에 몸 담는건 어떨까?
안돼. 체질상 난 나보다 약한 사람하고만 싸울수 있어
정말? 신기하네. 짜식! 그래서 우리가 친구인가봐.
야. 우연이다. 나랑 체질이 어쩜 그리 똑같냐?
하아... 앞날이 캄캄하네.
야. 근데 우린 미성년자 잖아.
경찰에 잡혀도 처벌받지 않는거 아냐?
야.야.소년교도소도 있잖아?
재수없어! 불장난 좀 한 거 가지고 무슨 형무소씩이나 짜샤!


퍼엉
헉!


이 녀석들!
꼼짝마라!!
잡았다!




나리야
그 소식
들었니?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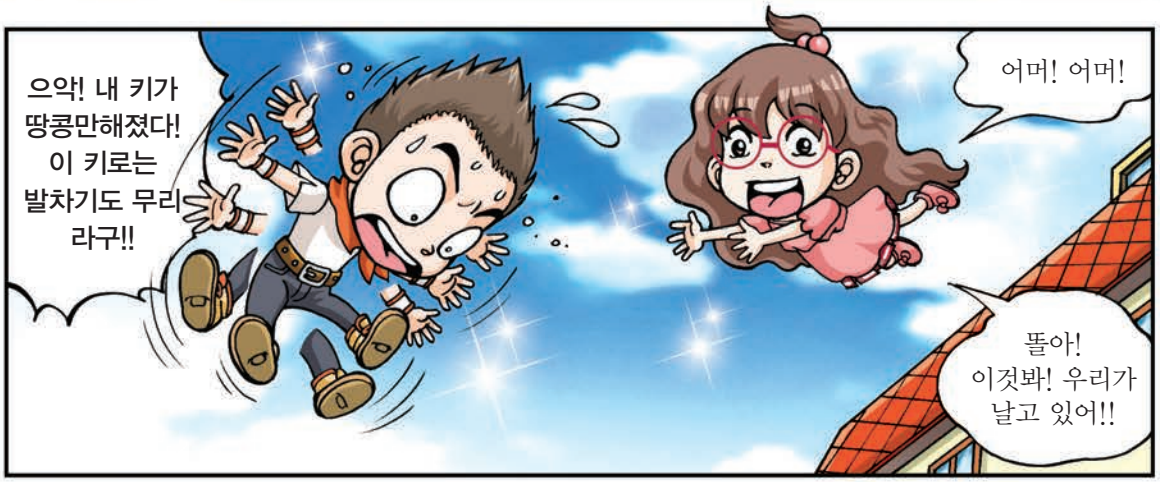

우리학교에 불지른 그 형들 다 경찰에 잡혔대.
응. 나도 들었어.
킥키키..이제 그 형들 모두 감옥에 가겠지?
쌤통이다.~
?
미성년자잖아. 경찰서에서 주의만 듣고 나왔을지도 모르지.
학교에 불을 지른 방화범들을 놓아준다고?
?
똘아....
법이 뭐 그리 허술해?!!


어머. 우리 똘이가 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 기쁘구나.
그런 의미에서 똘아. 일어나서 학급규칙 1조를 한번만 큰 소리로 읽어줄래?
아..!
그.그게....
학급규칙 제1조 수업시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
만약 수업시간에 장난을 하여 2번 경고를 받으면 1시간의 학급봉사활동을 한다.
1차 경고!
한번만 더 걸리면
오후 내내 학급봉사를 시켜줄테니
그리 알도록!!


감옥에 가둘 것도 아니면서 경찰들은 그 형들을 왜 잡아 갔을까?
그냥 겁만 주고 풀어줄 바엔 말이야…
글쎄…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법을 믿는게 아니었어.
내 손으로 그 형들을 혼내줄 걸…
아그 아그
똘아!
엑!
아구! 놀랬잖아!
와~ 바로미다.
으이구! 저번에 좀 철들었나 했더니.
따앗
여전하구나 한 똘!


요정재판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무사히 다시 나타난 걸 보면 무죄판결을 받았구나?!
무죄판결은 아니지만 특별한 벌을 받았지.
특별한 벌? 뭔데?
사실은 너희들 옆에 머물며 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어. 그게 벌이야.
그리고 또 한가지. 경우에 따라선 초능력을 쓰는 것도 허가됐어!
초.초능력까지! 그거 잘됐다.
참 현명한 판결이구나!
바로미야. 그럼 불냈던 그 형들이 경찰서에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지 궁금한데 보여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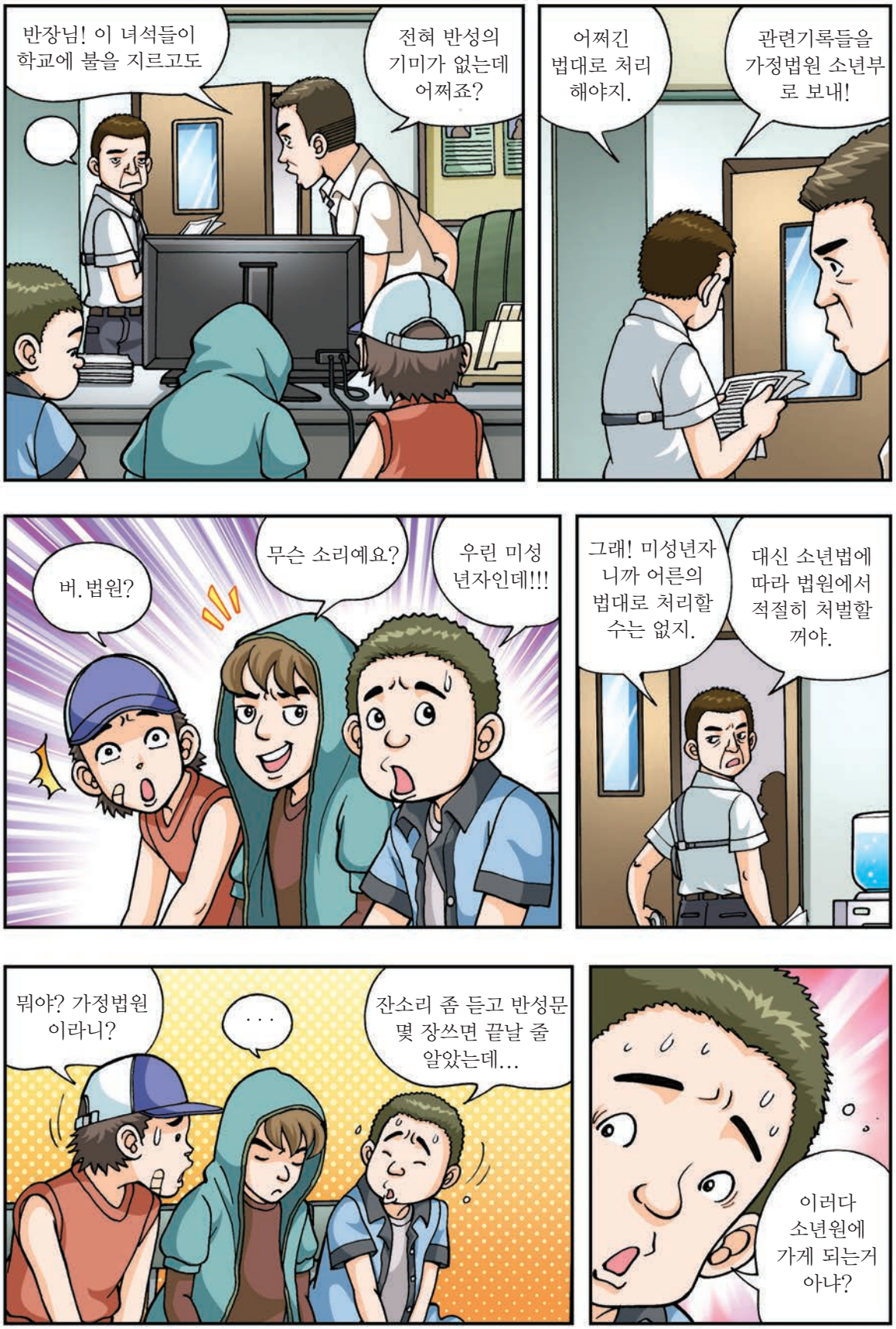

당연하지!
어어?
어맛?!


으악! 내 키가 땅콩만해졌다! 이 키로는 발차기도 무리라구!!
어머! 어머!
똘아! 이것봐! 우리가 날고 있어!!


우와~
에..엥? 정말이네!
저 밑에 집들 좀봐.


나중에 원래 키로 되돌려줄테니 오두방정 떨지 말고 날 따라와.
경찰서로 데려다 줄게.


우힛! 신난다. 가는 길에 집에 들러서 엄마를 놀라게 해 드려야지.
참고로 너희들은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인단다.
엥? 정말!
경찰서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네.
쫄지마! 우린 미성년이잖아. 아는 형이 그러는데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고 교실 조금 탄 정도니까 100% 훈방될 거랬어.
조용히 못해!
나리야! 저기 저 형들 맞지?
이 녀석들이 대법 초등학교에 불지른 애들인가?
응! 그런데 정말 아무도 우리가 안 보이나봐!
네! 그런데


반장님! 이 녀석들이 학교에 불을 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어쩌죠?
어쩌긴 법대로 처리해야지.
관련기록들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내!
버. 법원?
무슨 소리예요?
우린 미성년자인데!!!
그래! 미성년자니까 어른의 법대로 처리할 수는 없지.
대신 소년법에 따라 법원에서 적절히 처벌할 꺼야.
뭐야? 가정법원이라니?
...
잔소리 좀 듣고 반성문 몇 장쓰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러다 소년원에 가게 되는거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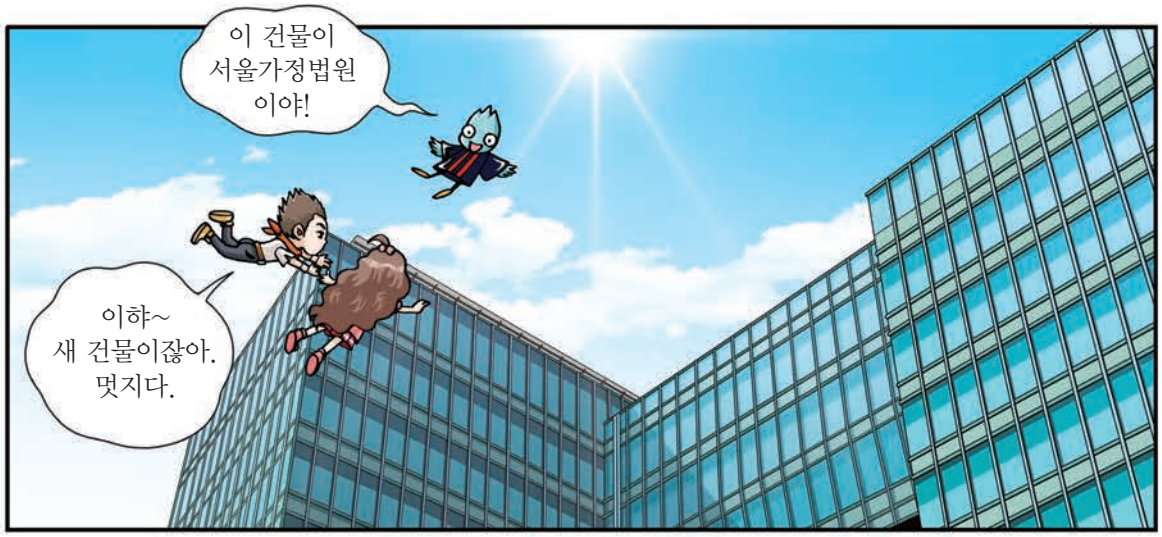

조용히 해! 방화는 심각한 범죄다! 너희는 14세 이상이니까. 감옥갈 수도 있어 이 녀석들아!!
싫어요!!


우헤헷! 싫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
뭐야?


바로미야. 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앞으로 어떻게 돼?


판사님이 사건 관련 서류를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실 거야.


그럼 판사님 한테도 가보자!
아주 신났구나 똘이! 좋아.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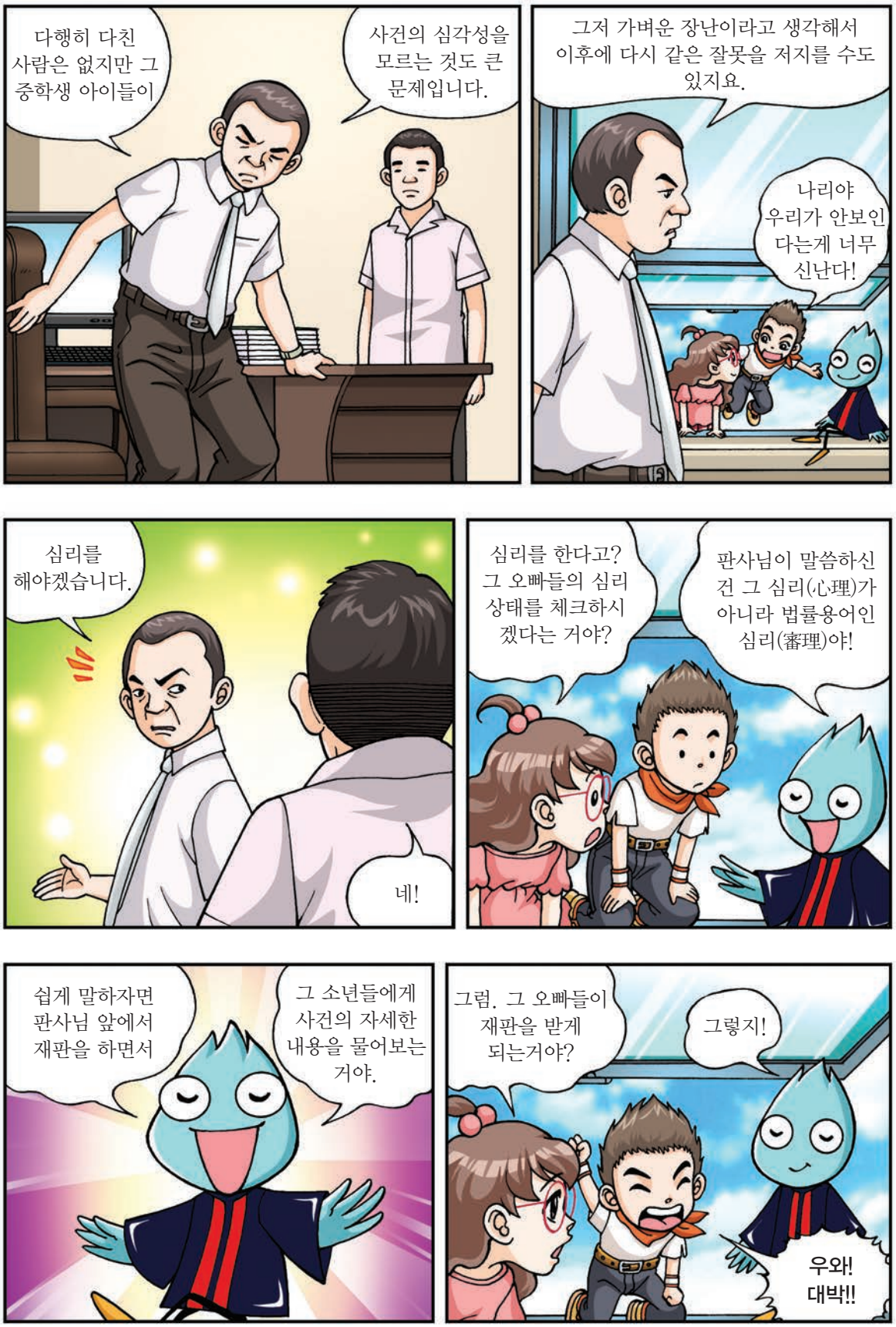

이 건물이 서울가정법원이야!
이햐~ 새 건물이잖아. 멋지다.


여기가 소년부 김정의 판사의 집무실이지.
?
창이 열려 있어!


판사님. 대법초등학교 방화건은 어떻게...?
흠! 심각하군요.


방화는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소중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아닙니까.


게다가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불을 지르다니.. 너무 위험했어요.
와~
저 분이 판사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그 중학생 아이들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저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이후에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지요.
나리야 우리가 안보인다는게 너무 신난다!
심리를 해야겠습니다.
네!
심리를 한다고? 그 오빠들의 심리 상태를 체크하시겠다는 거야?
판사님이 말씀하신 건 그 심리(心理)가 아니라 법률용어인 심리(審理)야!
쉽게 말하자면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그 소년들에게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오빠들이 재판을 받게 되는거야?
그렇지!
우와! 대박!!


재판이라니. 좀 긴장된다.
법원소년부에서는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두고 있지.
조사관은 판사의 명령을 받아
소년범들과 그 보호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심문하지.
심문?!
그런 심문이 아니야. 법원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걸 말해.
나리는 의외로 넘겨짚고 엉뚱한 생각을 잘 하는구나.
아하하. 그런가?
엉뚱한게 바로 나리의 매력이거든.
가끔 엉뚱한 소릴 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아우~
그치~? 나리야.
에–엉뚱한게 귀엽다고?


아..아니. 내 말은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오히려 재미없다 이말이지.
그래! 하기야 너의 매력은 단세포인 점이기도 하지.
난 칭찬한건데 내가 말을 잘못 했나...?
내 매력이 단세포인 점이라니..무슨 말이지..?
앉거라.
쥬스다. 마시렴
...!?
아저씬 누구세요?
난 소년 조사관 이란다.


가정법원 김정의 판사님 의뢰로
민호 널 심문하게 된 아저씨야.
조.조사관!!
긴장할 것 없다. 난 그냥 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뿐이니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만 해주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민호
에잉~ 저 조사관아저씨 너무 친절한 거 아냐?
전..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큰일인줄 몰랐어요!
이 일에 대해 부모님과는 의논해 봤니?
컥! 부모님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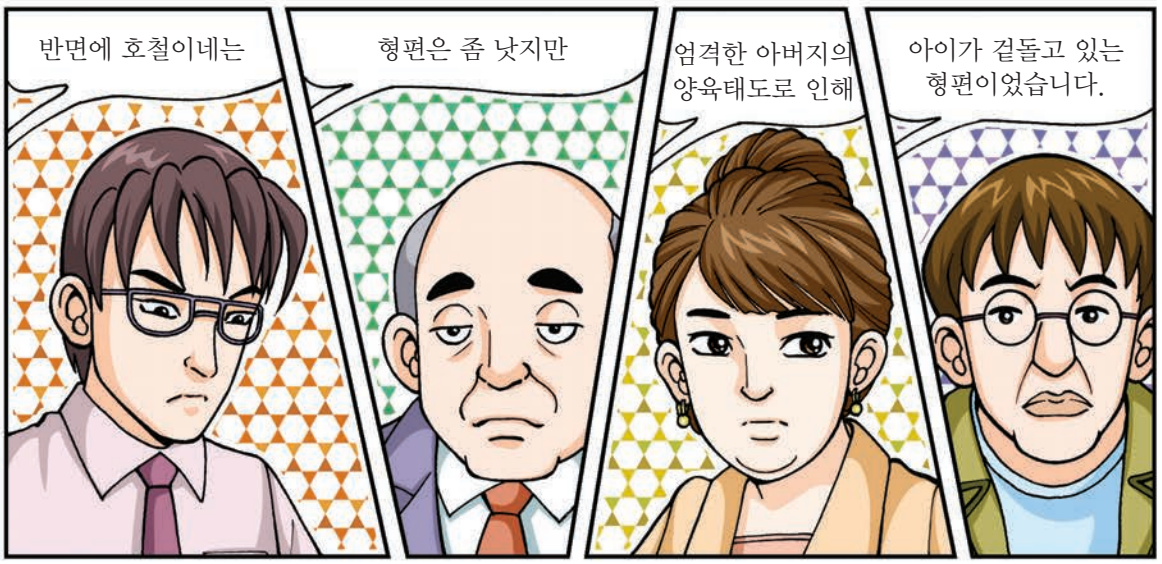

우리 아빠는 몇 년 전에 돈 벌러 나가셔서 소식이 끊긴지 오래예요.
엄마는 일하느라 밤낮으로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요.
...!
내가 어떻게 되든 아무도 상관안해요!!
어차피 전 버려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머! 저런 사정이 있었다니....
어? 똘...?
똘아. 저 오빠..


너 우니?
아니! 안울어!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가서...
와- 똘이는 마음이 여리구나.
저 형 말을 듣고 너희들은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은 착해 가지고....
소년 조사관은 민호에 이어 성규, 호철이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판사님! 세 명 다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가 컸고, 어른을 믿지 못해 대화에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차츰 마음을 열어주더군요.
음. 사건의 심각함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규와 민호, 호철이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다.


전문가 진단
성규와 민호학생의 가정은 한 부모 가정에 형편이 어려워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호철이네는
형편은 좀 낫지만
엄격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로 인해
아이가 겉돌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세 아이의 미술 치료결과 성규와 민호는 다소
우울증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의사


찍
성규와 민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동네 형들과 어울려다니며 담배도 피우고 다녔다고 해요.


호철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아버지와
무관심한 어머니로 인해 마음 속에 불만이 가득 쌓여 있었구요.
어렸을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대개 애정결핍으로 인한 우울이나 분노가 쌓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세 아이 모두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처벌보다는 교화 및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회 사업가


적절한 심리치료를 통해 장차 사회 생활을 잘 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복잡하다.
최종판결을 내리기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거지.
저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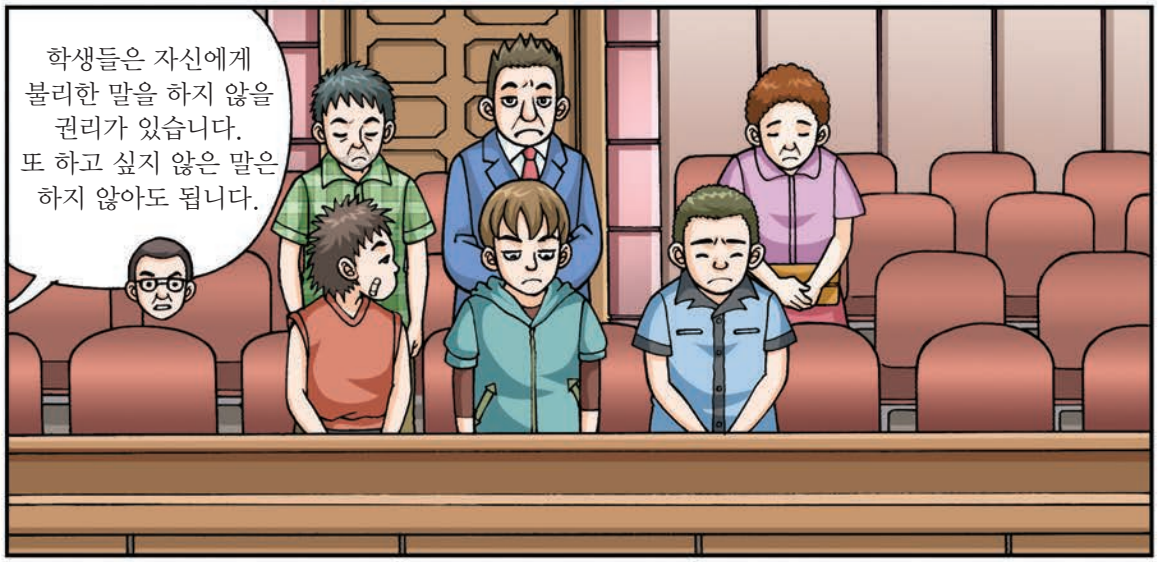

교육자의 한사람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못해 일어난
사건같아 미안한 마음입니다.
교육자
저는 학교 적응에 힘든 아이들을 특별히 교육시키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진 후 반드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우리 대안학교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노력도 있어야 겠지요.
이상해?.. 형들이 저지른 잘못보다 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만 의논을 하네.
응! 잘못을 벌주기보다 오히려 그 오빠들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중학생들의 소년보호재판이
어떻게 열리는지 가정법원소년부 법정으로 가 볼래?
법정에도 갈수 있니?


내가 누구니?! 가보자!!
찌잉
우오오오옷!!


헛! 여기가 재판정?!
법정


저기 판사님이다! 우와 굉장해! 나리야
똘아! 쉿! 목소리가 너무커.
헤헤 어차피 다른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을텐데 뭘!?
!


그래도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엄숙한 곳이잖아.
그런 곳에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합! 알았어.
소년보호재판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야.
잘못을 저지른 소년의 얼굴이나 인적사항 등이 알려질 경우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지.
오~ 그럴수도 있겠구나.
쉿! 재판이 시작되나 봐.
비행사실 확인과 심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의 판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가정법원 20xx푸3호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고 싶지 않은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말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보호자 분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성규, 장민호, 김호철 학생 본인 맞습니까?
보호자성명은 이진호, 오영애, 김철민씨입니까?
네.
네.
똘아. 우리 저 뒷쪽으로 가서 보자.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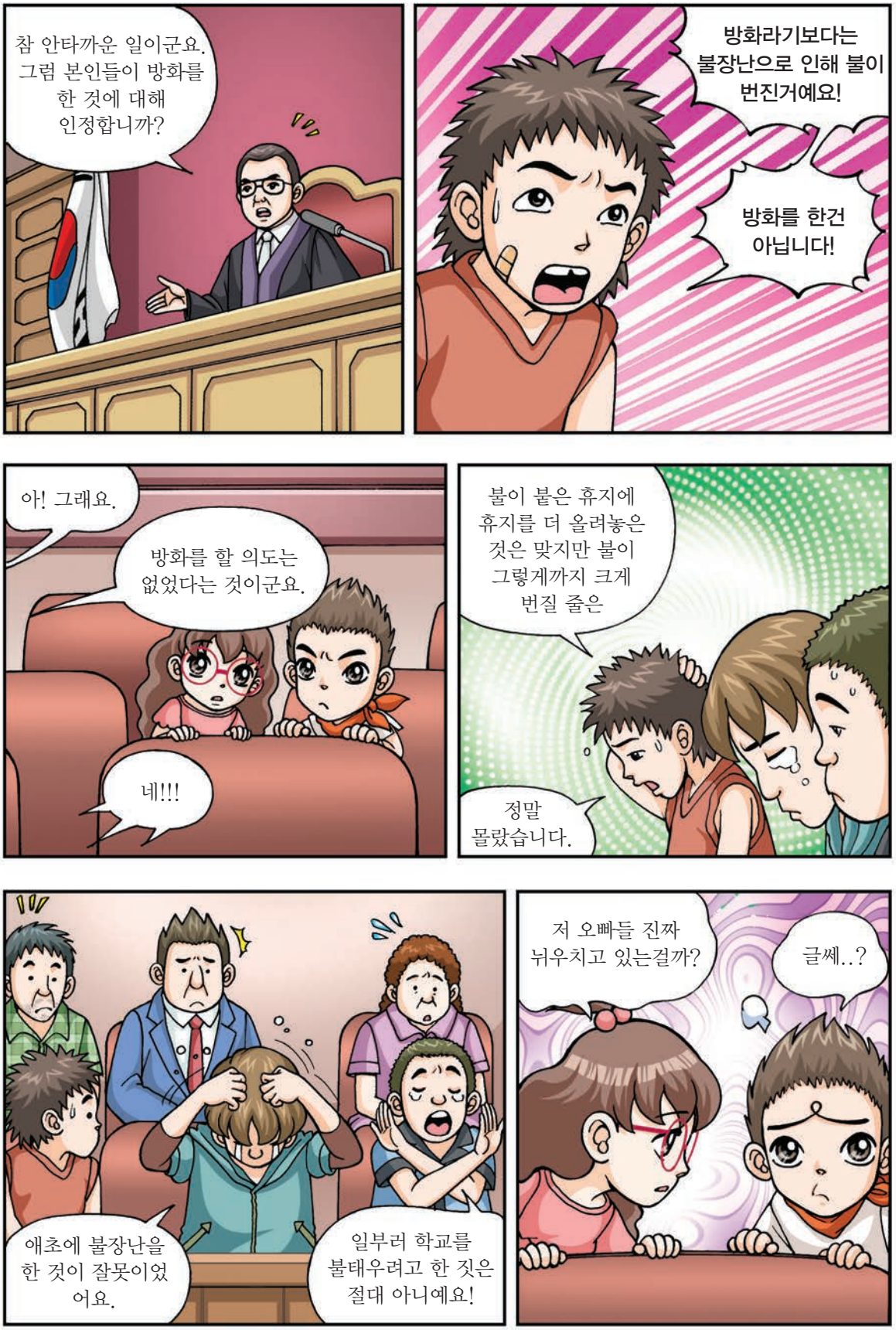

학생들은 대법 초등학교에 불을 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말하세요.


불이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 불을 붙였던 것이 후회되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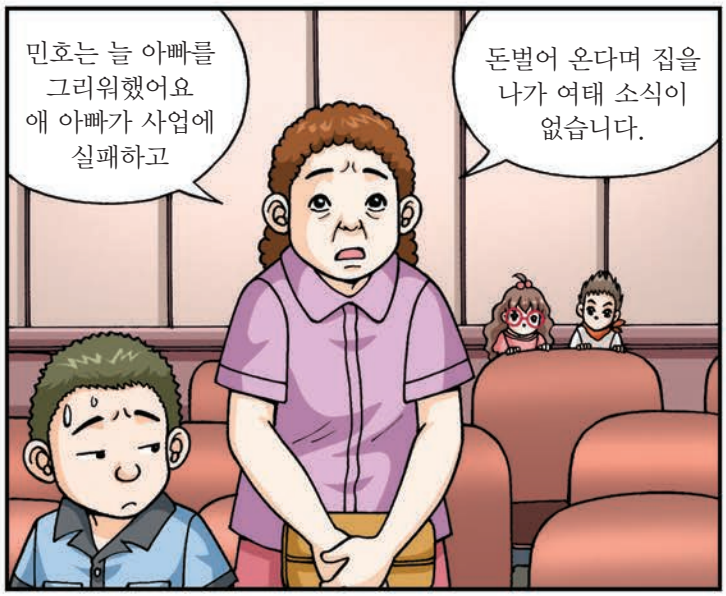

여러분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주변환경에
어떤 피해를 줄지 알고 있었습니까?
네...


어떤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학교 나무도 많이 타서 죽고... 학교 건물도 파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럼 본인들이 방화를 한 것에 대해 인정합니까?
방화라기보다는 불장난으로 인해 불이 번진거예요!
방화를 한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방화를 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군요.
네!!!
불이 붙은 휴지에 휴지를 더 올려놓은 것은 맞지만 불이 그렇게까지 크게 번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초에 불장난을 한 것이 잘못이었어요.
일부러 학교를 불태우려고 한 짓은 절대 아니예요!
저 오빠들 진짜 뉘우치고 있는걸까?
글쎄..?


개인환경 등의 심리
호철군의 보호자께서는 지금 호철이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우~~
그게...
실은 제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엄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호철이가 사춘기에 들면서 저와 계속 갈등을 빚어왔지요.
게다가 애엄마는 늘 새벽부터 나가 하는 힘든 일에 지쳐 돌아오면
살림하랴 뭐하랴 미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제가 일을 구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부끄럽게도 아이에게 더욱 큰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마음 붙일 곳이 없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이런 큰일을 저지르게 된 것 같습니다.
....
그렇군요. 성규군과 민호군 보호자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세요.


민호는 늘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애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돈벌어 온다며 집을 나가 여태 소식이 없습니다.


이후 제가 집안살림과 생계를 모두 책임지느라
민호를 챙길 여력이 없었던 것이...


게다가 최근에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병환으로 쓰러져서 병수발하느라 더더욱 민호를 챙겨주지 못했어요.


못난 부모를 만나 민호가 저렇게 된 것 같아
속상하고 답답하고 정말 애미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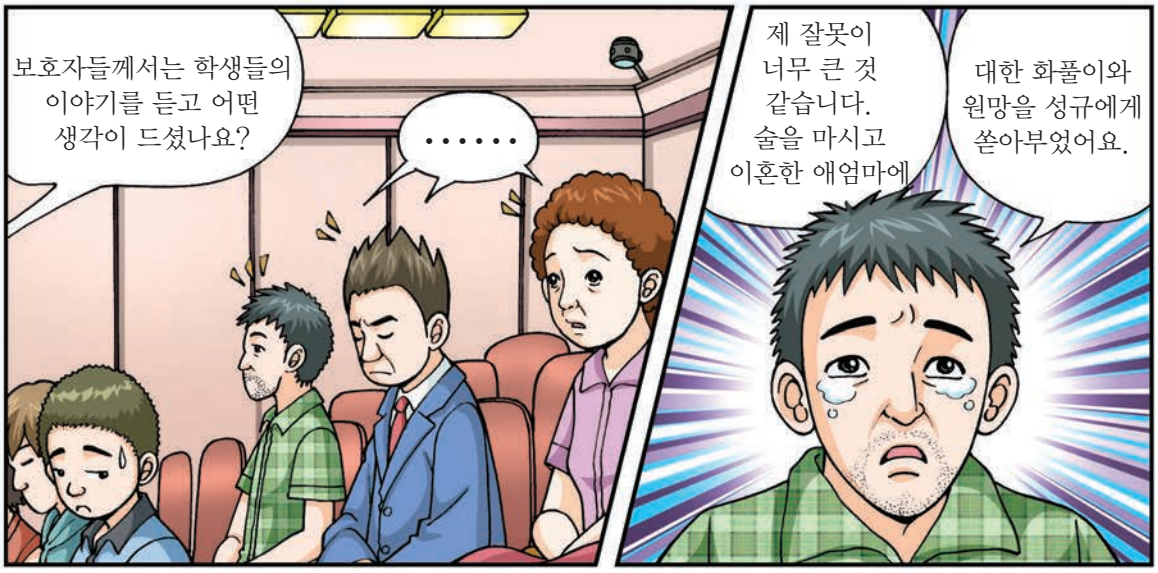

성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마누라와 이혼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성규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건....
!


친할머니가 계셔서 거의 하루종일 동생과 성규를
돌보아주시긴 하셨지만 통제를 잘하지 못하셨거든요.
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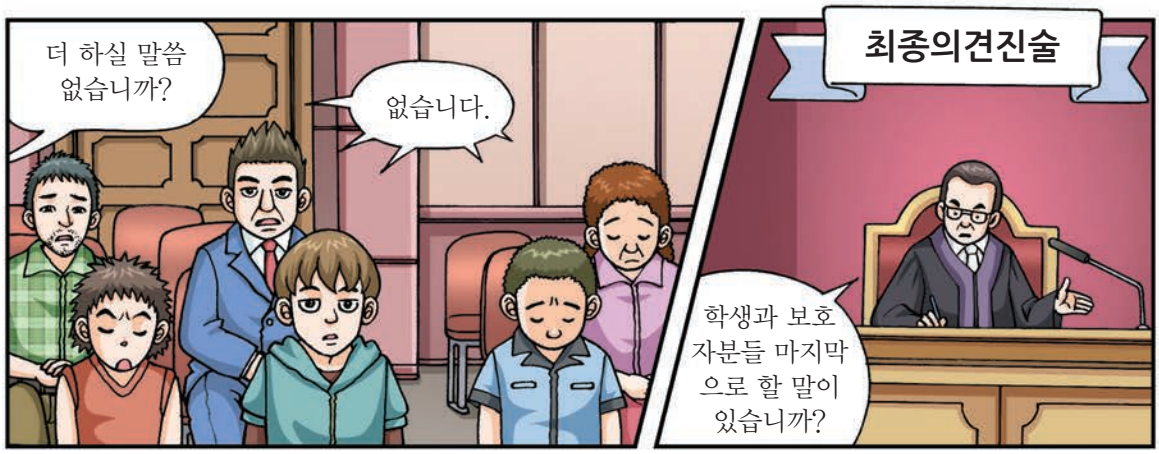

HAPPY DAY
성규가 동네형들과 어울리며 학교도 자주 결석하는 일이 생겼지요.
모든게 못난 이 아비탓입니다.
학생들은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네.
언제 왜 가출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때 아빠가 술마시고 이유없이 저를 때려서요.
뜨끔
그리고 이혼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무작정 가출했습니다.


며칠만에 집에 돌아왔나요?
일주일정도 지나서요…
!
배가 너무 고프니까 집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많이 났어요.
엄마도 도저히 찾을 수 없었구요.
가출해서 잠은 어디서 자고
밥은 어떻게 먹었나요?
잠은 남의 집 옥상이나 건물계단에서 잤어요.
!
!
먹을거는…. 음
…!
동네형들이랑 같이 다른 애들 돈 뺏어서 사먹었어요.
그랬군요. 그럼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은 어떠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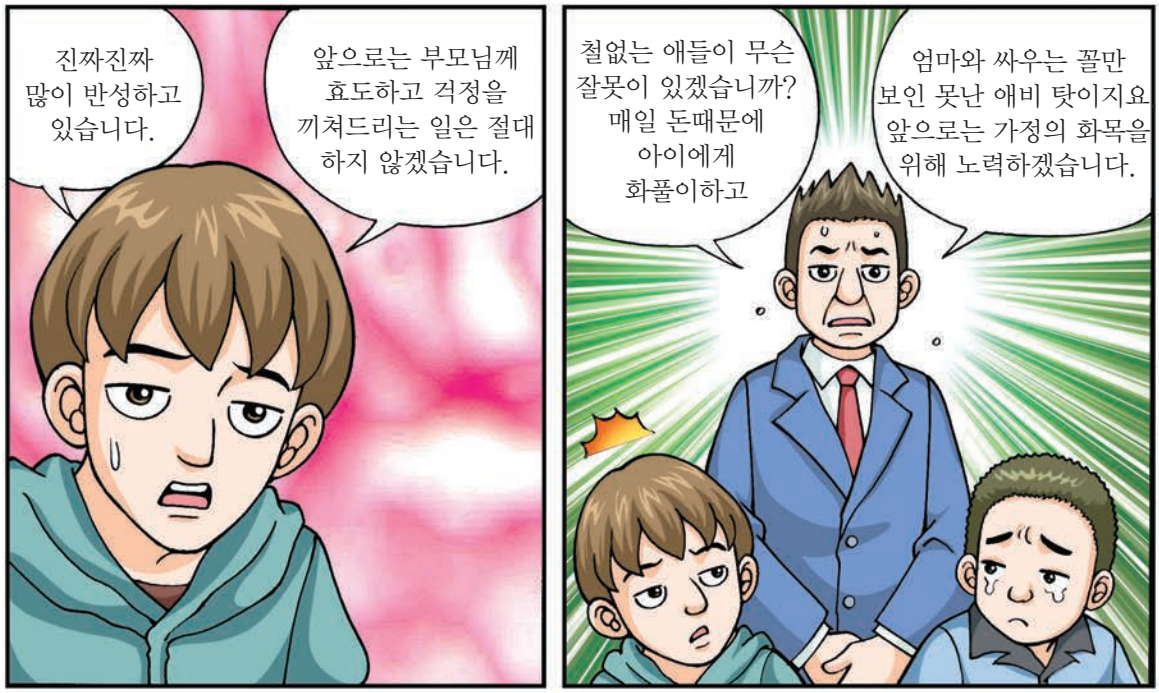

너무 편안하고 좋았어요. 춥지 않은 따뜻한 곳에서
지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나요?
아버지께서는 저를 혼내셨고… 엄마는 펑펑 우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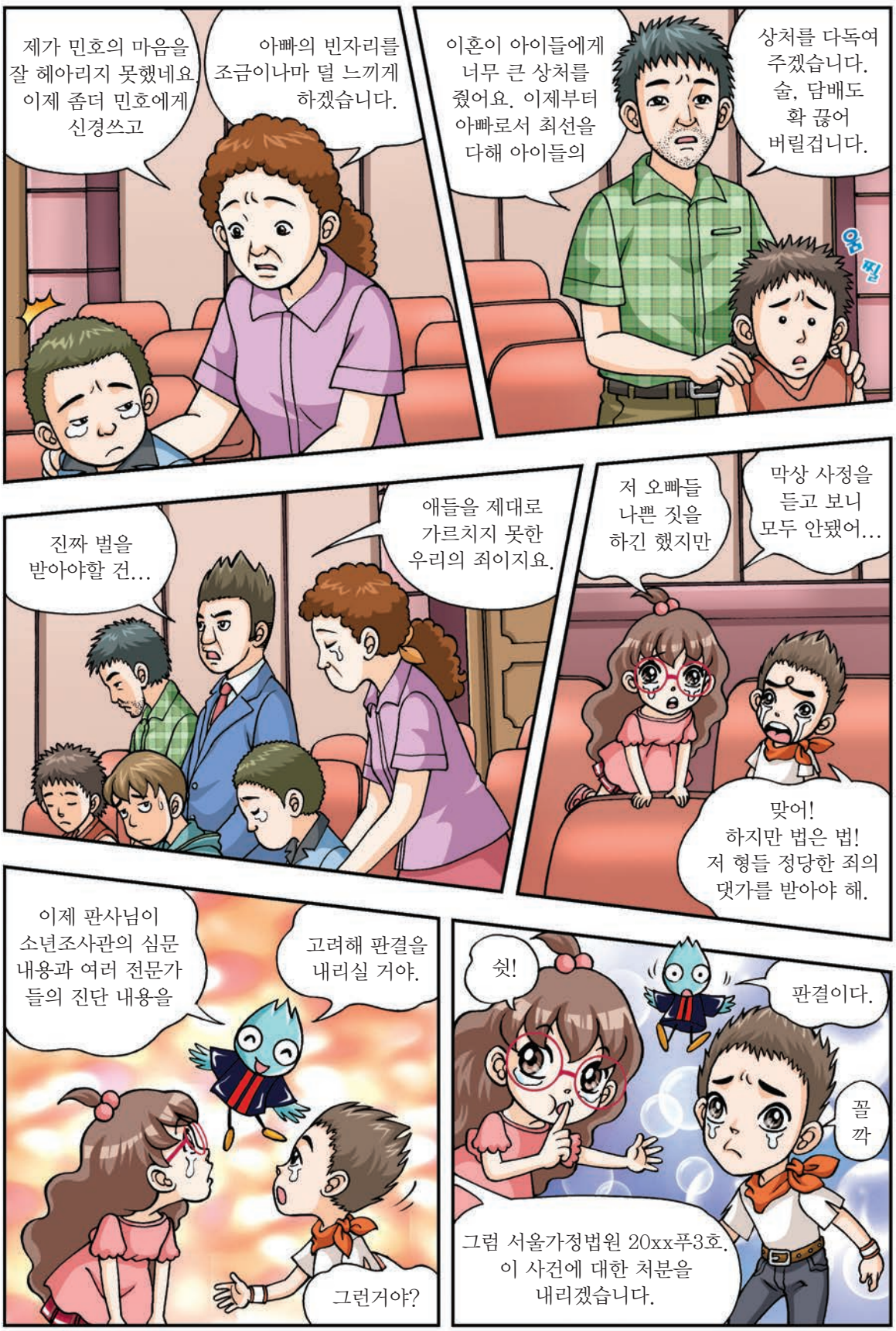

보호자들께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제 잘못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이혼한 애엄마에
대한 화풀이와 원망을 성규에게 쏟아부었어요.


사실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고 싶어했지만 애들 할머니가 엄마를 미워해서 못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규가 이렇게까지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니 …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종의견진술
학생과 보호자분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하겠습니다.
조사받으면서 뒤늦게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솔직히 감옥 갈까봐 너무 무서웠구요.
이제부터는 새사람이 되어 착하게 살겠습니다.


진짜진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철없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매일 돈때문에 아이에게 화풀이하고
엄마와 싸우는 꼴만 보인 못난 애비 탓이지요 앞으로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민호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네요. 이제 좀더 민호에게 신경쓰고
아빠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덜 느끼게 하겠습니다.
이혼이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이제부터 아빠로서 최선을 다해 아이들의
상처를 다독여 주겠습니다. 술, 담배도 확 끊어 버릴겁니다.
앙 펄
진짜 벌을 받아야할 건...
애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죄이지요.
저 오빠들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막상 사정을 듣고 보니 모두 안됐어...
맞어! 하지만 법은 법! 저 형들 정당한 죄의 댓가를 받아야 해.
이제 판사님이 소년조사관의 심문 내용과 여러 전문가들의 진단 내용을
고려해 판결을 내리실 거야.
그런거야?
쉿!
판결이다.
꼴깍
그럼 서울가정법원 20xx푸3호.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처음 휴지에 불을 붙인 호철군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치료 80시간을 이행하고
??
꺼져가는 불 위에 휴지를 올려놓아 불이 크게 번지게 만든 성규군과
!!
민호군은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한다.
감옥가는 줄 알았는데... 휴...
이 보호처분은 정말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재판은 전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장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가정법원 20xx푸3호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짝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
호철아.
…왜요?
좋은 아빠가 못되서 미안하다.
저도 잘못 했어요.
걱정끼쳐서 죄송해요.
그래 엄마가 걱정하고 있을테니 어서 가자.
아빠가 이제 노력할게…
!


민호야. 모처럼 나왔는데 어디 들렀다 갈까?
아참! 민호 피자 좋아하지? 엄마랑 피자 먹으러 가자.
…됐어. 안가.
외할머니 계신 병원이나 가볼래
난 안가본지 오래됐잖아…
민호야…
♪
….
성규야.
…
이번 주말에 엄마 만나러 갈래?


정말요?
그래. 이제 네 동생이랑 일주일에 한번쯤 네 엄마를
만나러 가도록 해주마. 네 엄마도
너흴 무척 보고 싶어할 게다.
흑! 아빠 고마워요!!
!!
이.이런…
흑흑… 다들 잘 됐지? 똘아
응! 형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저 오빠들이 너를 때리고 쓰레기통에 쳐 박은거 다 용서 한거야?
컥! 수치스러운 기억을 들추다니...
괜찮아. 재판에서 형들이 벌받았으니깐
또 그런 말도 있잖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나리야! 우리 기분도 전환할 겸, 여기저기 구경도할 겸, 공중 데이트나 실컷하자.
뭐? 공중 데이트...
그렇게는 안되쥐~이.
오옷 저기 태권도 도장 보인다.


어머! 돌아왔네.
크으~ 반갑다! 쭉쭉빵빵 잘난 내 몸매!


사실 재판하기 까지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초능력으로 너희들이 앞당겨 볼 수 있게 한거란다.


재판의 핵심만 경험한 거구나. 고마워. 바로미야.


소년보호재판을 경험한 느낌이 어때?
음! 소년보호재판이란 정말로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이었어!!


또 소년들을 벌주기 보다는 다시는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란걸 알았어.


히야~
훌륭해!
소년보호재판을
잘 이해했는걸...
짝
짝
짝
미성년자들은 아직
몸과 마음이 성숙
하지 못해 판단력이
흐려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바른길로 인도할
기회가 아직 있기 때문에
법이 배려를 해주는
거란다.
그 형들과 부모님들도
이번 재판을 통해 많이
변한것 같았지?
그치?
응!
그런데 판사님의
판결 말인데...
왜 호철오빠만 다른
두 오빠보다 처분이
좀 더 가벼운거지?
호철이는 불을 붙였고
성규, 민호는 꺼져가는
불을 더 크게 키웠지.
판사님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성규와 민호가 더 크다고
판단하시고 다른 보호처분을
내리신거야


세 사람이 함께 불장난을 쳤어도
행동 하나하나에 의해 세세하게 법이 다르게 적용 되는구나.
?
법의 심판이란게 정말 철저하네.
근데 난 판사님들은 망치같이 생긴 걸 '땅땅' 두드리며 판결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건 없더라
?
아! '법봉'을 말하는거구나. 외국 법정에서는
법봉을 사용하지만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사용하지 않아.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 법봉 쓰는 걸 봤었는데...
법봉이 법의 엄중함 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많이 쓰여서 그래.
?
이야기의 극적인 흐름을 위해 영화, 드라마에서 임의로 사용한거야
아... 그렇구나.


바로미야.
우리 집에 갈래?
맛있는거 많이 줄테니깐
법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줘.
좋지!


나는?!!
엥?


난 놀러가면 안돼?
맛난거 안줘도 돼
난 네 얼굴만
봐도 배부르거든!


당연히 함께
가는거지.
바늘가는데 실이
빠질 수 없잖아


헷헤~ 나리야
그.그런거였어?
그럼
돌아.
!


앗싸! 나리도
역시 날 좋아하고
있었구나.
우린
천생연분~~!!





Tip

제1화와 제2화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다. 9명의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안으로 몰래 들어가 집기들을 부수고 가스점화봉으로 불을 질렀다. 이때 유치원의 2층 천정과 교실 전기시설, 창호, 계단 일부 등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유치원의 내부시설, 서적, 교육기자재 등이 불에 탔다.

결국 처음에 불을 붙였던 A군의 부모님은 유치원 원장 선생님에게 8천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드리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불에 휴지를 넣어 불을 더 크게 일으킨 B군의 부모님은 법원으로부터 유치원 원장님께 1억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참! 바로미야 궁금한게 있어.
뭔데?
그 오빠들 때문에 불탄 교실말인데... 학교로서는 큰 손해를 본 거잖아..?
그래 맞어! 피해본만큼 형들이 물어줘야 하는거 아니야?
그렇군. 그 문제가 있었구나. 역시 나리는 똑똑해.
바로민지 정부민지 날 무시하네.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거든. 일단 나리 집에가서 맛있는거 먹으며 얘기하면 어떨까?
그래 좋아!
쳇! 먹는거 밝히는 요정도 있었군.



제2화 심화학습

어린이도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면 재판을 받나요?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성장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이 재판은 판결대신 보호 처분을 내립니다. 보호 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눕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소년의 분류〉

① **촉법소년** : 죄를 범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②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③ **우범소년** :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 중에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는 소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생활환경을 바꾸어 주고,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심한 정도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① **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호하고 감독하게 합니다.
② **수강명령** : 청소년 상담센터 등에서 강의를 듣고 상담을 받게 합니다.
③ **사회봉사명령** : 교통안전 캠페인, 공공기관 청소 등 봉사를 하게 합니다.
④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이 1년~3년 동안 보호관찰을 하게 합니다.
⑤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감독하게 합니다.
⑥ **병원, 요양소 위탁** : 6개월~1년 동안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여 보호하고 감독하게 합니다.
⑦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에서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제3화

법원과 재판, 그것이 알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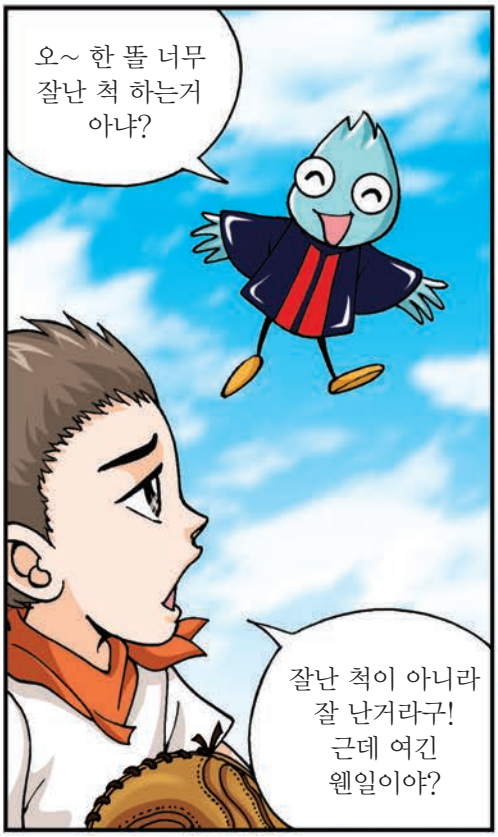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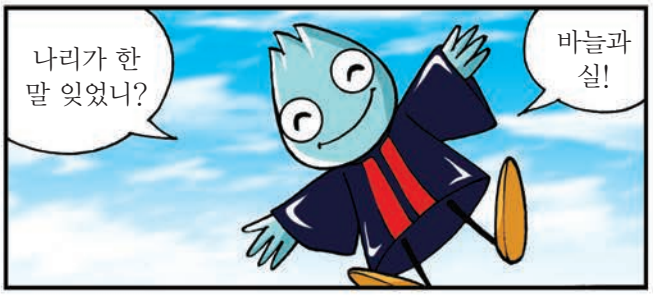

사고가 났나?
가보자!
?
다다다다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까악!
똘아~
멋져~
파이팅!!
에이~
선생님도..
싫다는 거
괜히 시켜
가지고...
흣! 이놈의
인기하곤..
뭐야?
이거..
똘이 공 날리는
것보고 지르는
소리였잖아.


너무 인기 있는 것도 곤란하다니까 흠!
똘이가 야구도 제법이네.
딱


저녀석 야구부도 아니잖아..?
코치선생님이 언젠가 똘이 공 던지는거보고 마음에 들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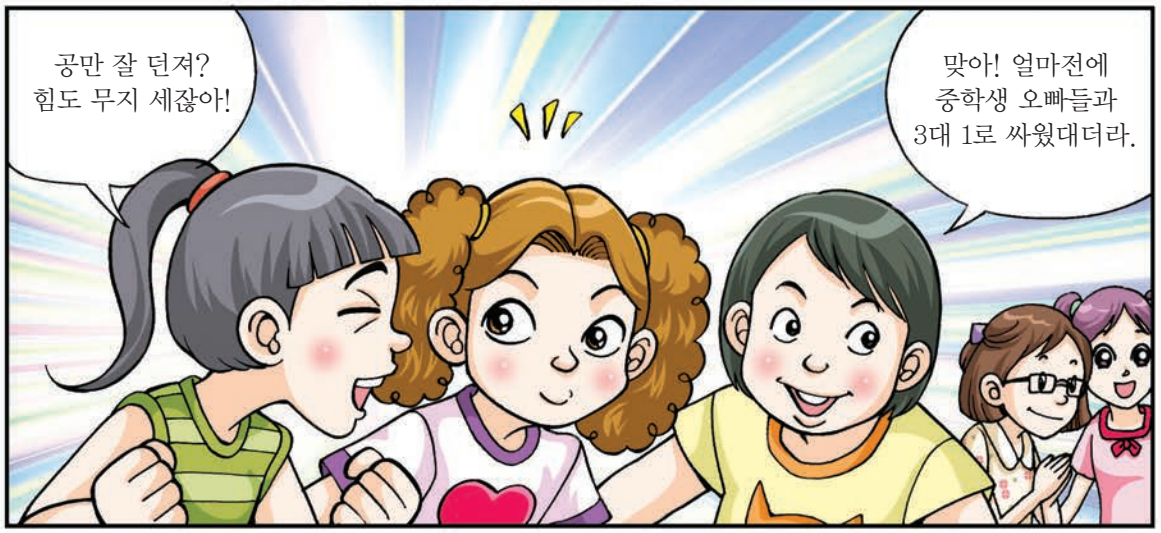

그래서 야구부에 넣으려고 했다잖아
꼴사나워 가자!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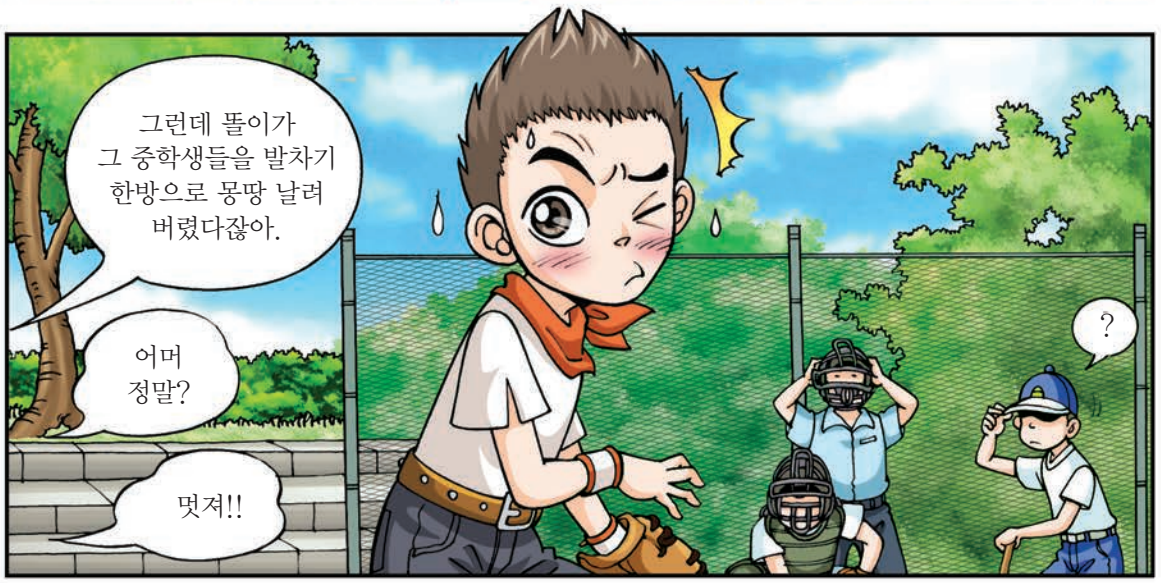

오~ 한 똘 너무 잘난 척 하는거 아냐?
잘난 척이 아니라 잘 난거라구! 근데 여긴 웬일이야?


나리가 한 말 잊었니?
바늘과 실!


아니거든!! 나리가 바로 말하기 쑥스러워 둘러댄 말이였다고!
크큭~ 그보다 너 애들이 이상하게 보겠다.


그럴수도 있지! 너무 잘났으니까!!
글쎄.. 공던지다 말고 허공에 대고 말하고 희죽거리는데 괜찮겠어?
한똘! 뭐하냐?
어서 던져!
엥? 맞다!
바로미는 다른 사람 눈엔 안보이지!
사라져줄래 바로미
하
하
안되지~ 바늘과 실인데!
스트라이크!
까아 나이스 똘아!!
어쩜, 똘이는 공을 저렇게 잘 던지니?


공만 잘 던져?
힘도 무지 세잖아!
맞아! 얼마전에
중학생 오빠들과
3대 1로 싸웠대더라.


그런데 똘이가
그 중학생들을 발차기
한방으로 몽땅 날려
버렸다잖아.
어머
정말?
멋져!!
?


그래서 열받은 그
오빠들이 차마 똘이는
못건드리고 보복으로
학교에 불을 지른거
였다고 하더라구.
어쩜!
저번에 불이
난 이유가
그거였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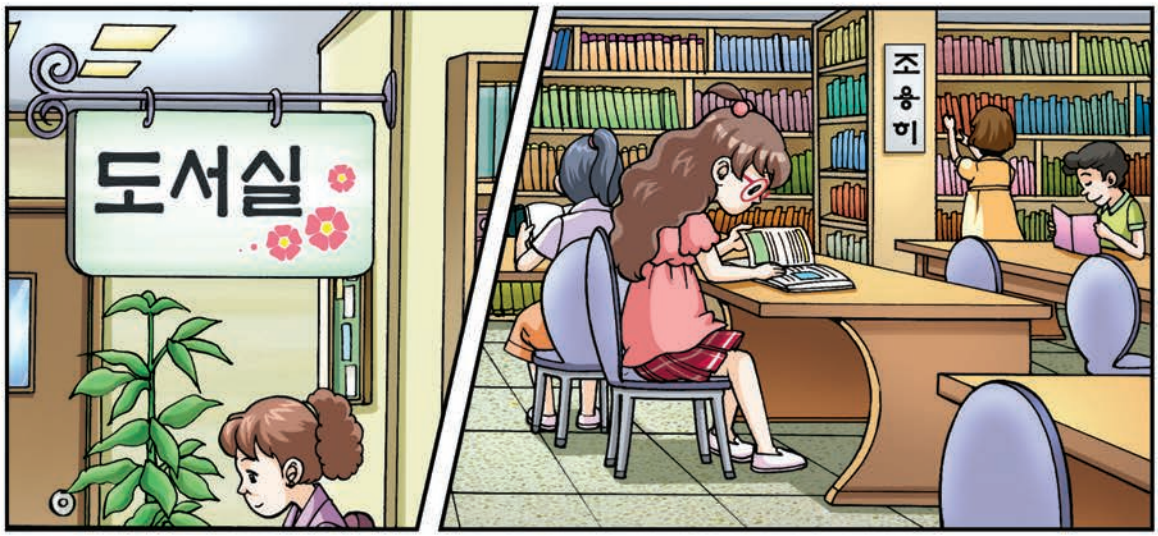

어째 내가 알고있는
사실과 상당히
다른걸?
나도
몰라...


삭
삭
난 그냥 중학생 형들과 좀 다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소문이 자꾸 와전되더라고...
크큭... 발차기로 누가 날라갔는지는 말 안했구만.


이건 또 무슨소리?
결국 그 오빠들 교장선생님과 합의가 안되서 재판까지 갔대.
어머! 그래?


바로미! 합의하면 끝나는거라고 했잖아.
글쎄? 뭐가 잘못됐나?
휘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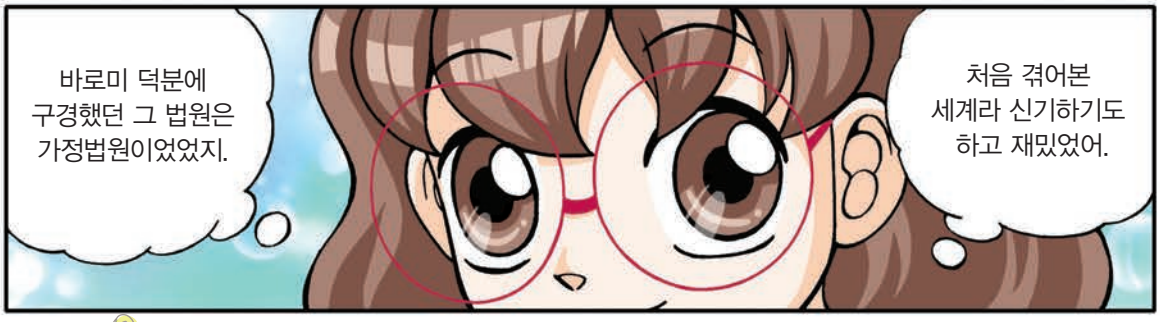

데
엥
저런!


도서실
조용히









Tip

법원이 하는 일

법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이다. 분쟁이 일어나면 옳고 그름을 따져 올바른 판단을 내려 해결한다. 재판 외에도 당사자들끼리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설득하고 권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등기에 관한 일도 한다. '등기'란 땅과 건물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법으로 엄중히 보호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가족관계에 관해 적은 문서인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나리야!
깜짝
나좀 봐~
똘아, 조용히해. 어머, 너 다쳤구나?
요녀석!
도서실에서 시끄럽게 굴면 어떡해!
퍽
으악!
많이 아프겠다. 보건실엔 갔다왔니?
안갔어. 그보다
불을 지른 형들 또 재판했대.
무슨 소리야?
이미 재판을 받았잖아.
몰라! 우리 교장선생님과 합의가 안됐다나 어쨌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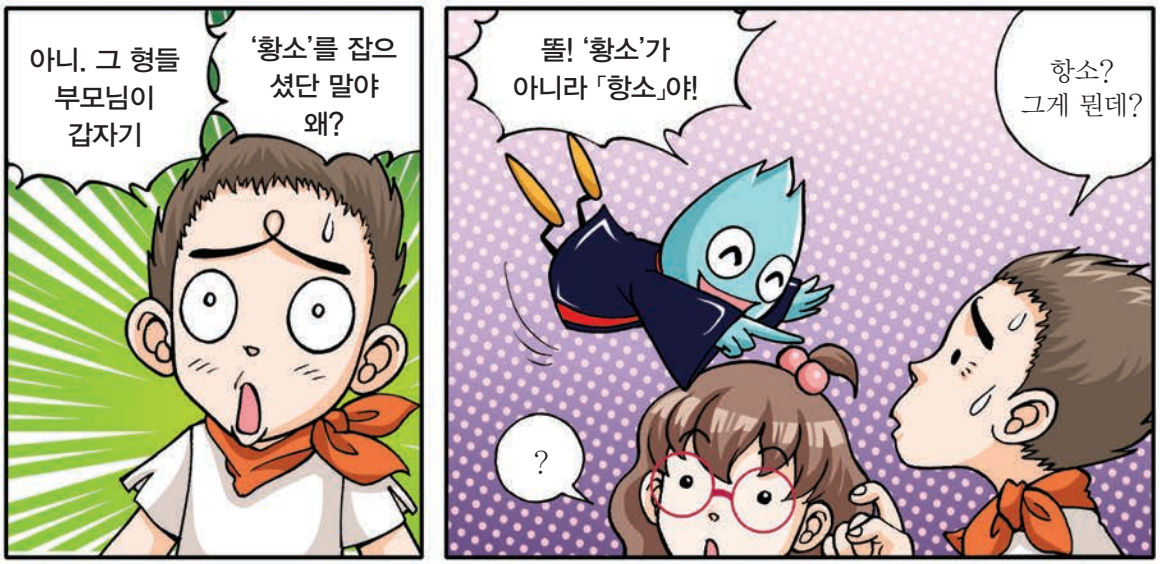
Tip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소송을 하지 않고도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크게 3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 **협상** : 분쟁 당사자끼리 의견을 조율해 합의(화해)하는 것
- **중재** :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
  당사자들은 중재인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
- **조정** : 제3자가 개입해 당사자들을 설득해 합의하도록 하는것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안을 도출한다.


호철네는 학교측에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교장선생님과 합의가 됐는데
성규와 민호네 부모님들과는 합의가 안돼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거야.
재판결과..
이성규, 장민호 학생의 부모님은
대법초등학교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한다.
2000만원 씩이나...!!
성규, 민호 오빠네는 가정형편이 어렵잖아.
그래서 성규와 민호의 부모님은
판결이 너무 하다고 현재 「항소」를 한 상태야.
뭐?



음! 항소를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법원구조를 알아야 해.

우리나라의 법원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나누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단다.

- 대법원
  - 윤리감사관
  - 양형위원회
  - 법원행정처
  - 사법연수원
  - 사법정책연구원
  - 법원공무원교육원
  - 법원도서관
- 서울고등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가정법원
  - 서울행정법원
  - 서울회생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인천가정법원
  - 춘천지방법원
- 대전고등법원
  - 대전지방법원
  - 대전가정법원
  - 청주지방법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구가정법원
- 부산고등법원
  - 부산지방법원
  - 부산가정법원
  - 부산회생법원
  - 울산지방법원
  - 울산가정법원
  - 창원지방법원
- 광주고등법원
  - 광주지방법원
  - 광주가정법원
  - 전주지방법원
  - 제주지방법원
- 수원고등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가정법원
  - 수원회생법원
- 특허법원

우와!!

*2024년 8월 기준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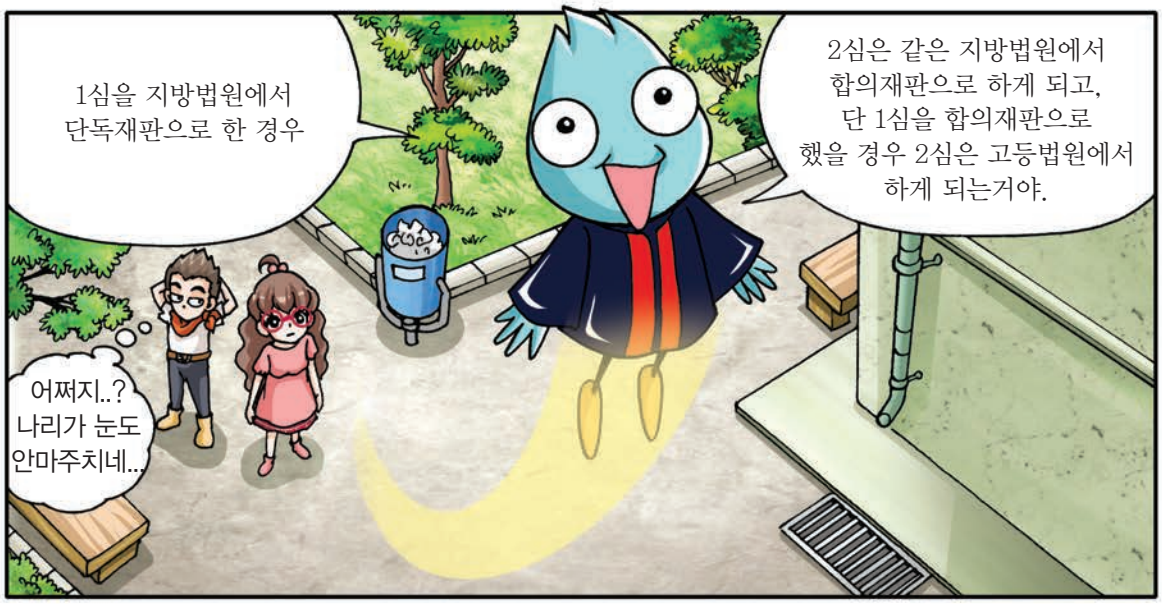
3심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모든 사건마다 세 번씩 재판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 말 표현 중에 "삼세판"이라는 것이 있지만, 재판은 원칙적으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판을 하는 데 돈과 시간이 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마음이 무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첫 번째 재판에서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여러 증거를 검토하여 충실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재판결과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결과에 대하여 모두 상소를 한다면 그 피해는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리고 사회 전체에까지 미칠 것입니다.
불필요한 상소를 줄이려면 법원 스스로도 더 신중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고, 국민들도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판을 많이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구나.
하지만 무조건 세 번씩 재판하는 것은 낭비가 되기도 해.
너도 봤어야 했는데!!
아참. 나리야, 나 좀전에 야구하면서 타자들을 몇명이나 삼진아웃 시켰는지 몰라.
넌 야구부 아니잖아.
던져보라고 싹싹 비는 통에~
아니지! 근데 코치님이 날 보더니
씩
글쎄?
바로미. 말해봐 너도 봤잖아!
괜히 똥폼 잡는 것까지 다 봤어.
봤지! 똘이가 삼진아웃도 시키고 여자애들 앞에서
그… 그게..
난 본대로 말했다.


왜그러니? 난 상관없으니 신경 끄셔!
헉
헉!
뭐야? 바로미 너!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샜잖아!
항소가 뭐냐구?
엉뚱하게 샌건 너잖아. 암튼 좋아. 「항소」란
어머~
보글 글
1심재판에 이의가 있어서 다시한번 재판을 요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해.
1심 → 2심 → 3심
(항소) (상고)
덧붙여 2심재판을 받고도 다시 이의가 있어 재판을 요청하는 것은 「상고」라고 해.


항소와 상고를 합해「상소」라고 한단다.
그래서 심급 제도를「상소 제도」라고도 해.
그럼 그 중학생 오빠들의 부모님도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겠구나.
항소를 했다고 했으니까.
휙
2심재판이라고 모두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건 아니야.
1심재판이 단독재판이었느냐, 합의재판이었느냐에 따라 달라져.
뚜
단독재판?
합의재판?
단독재판은 판사 1명이 재판하는 것이고
법원
합의 재판은 판사가 3명인 재판을 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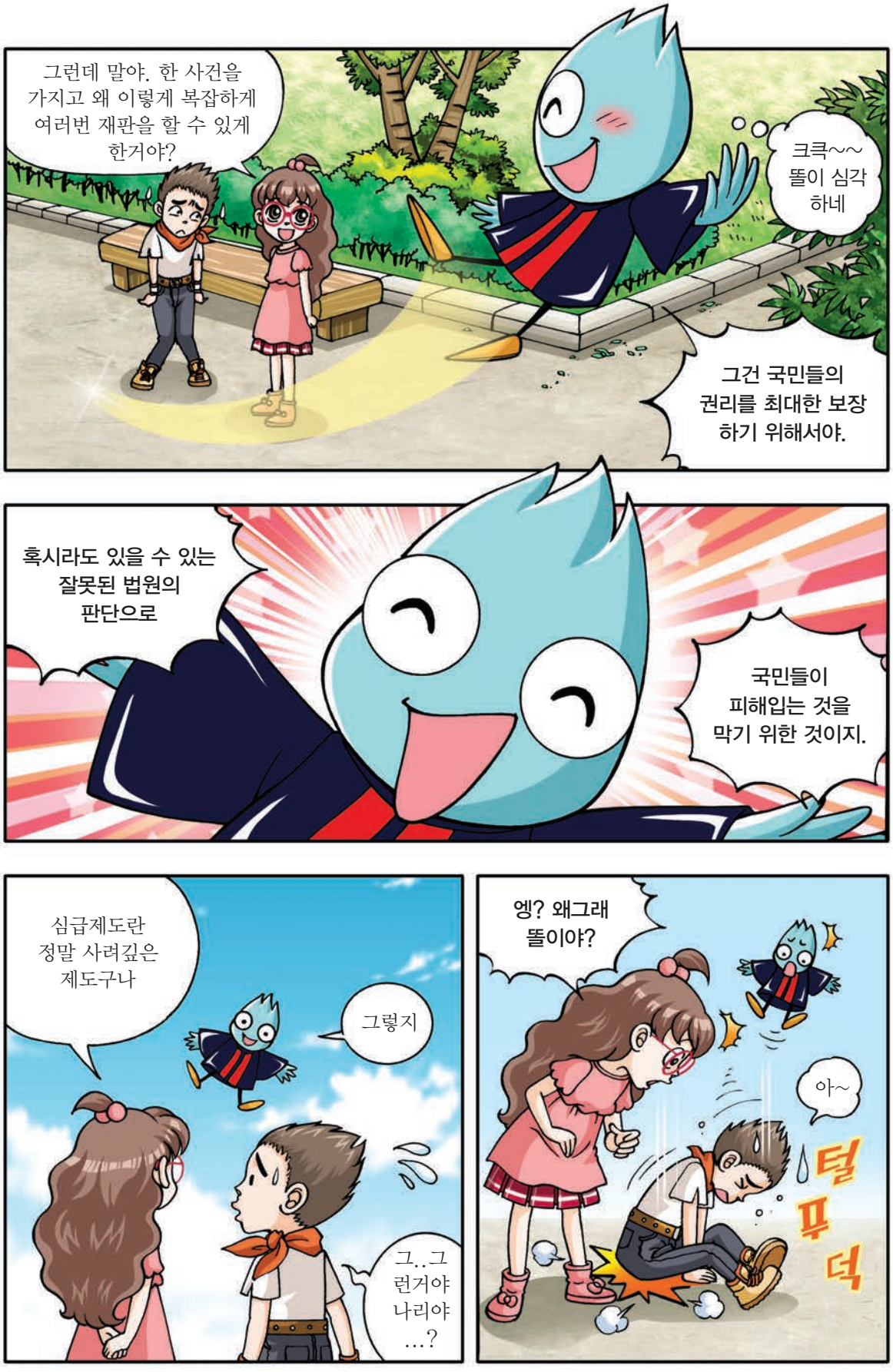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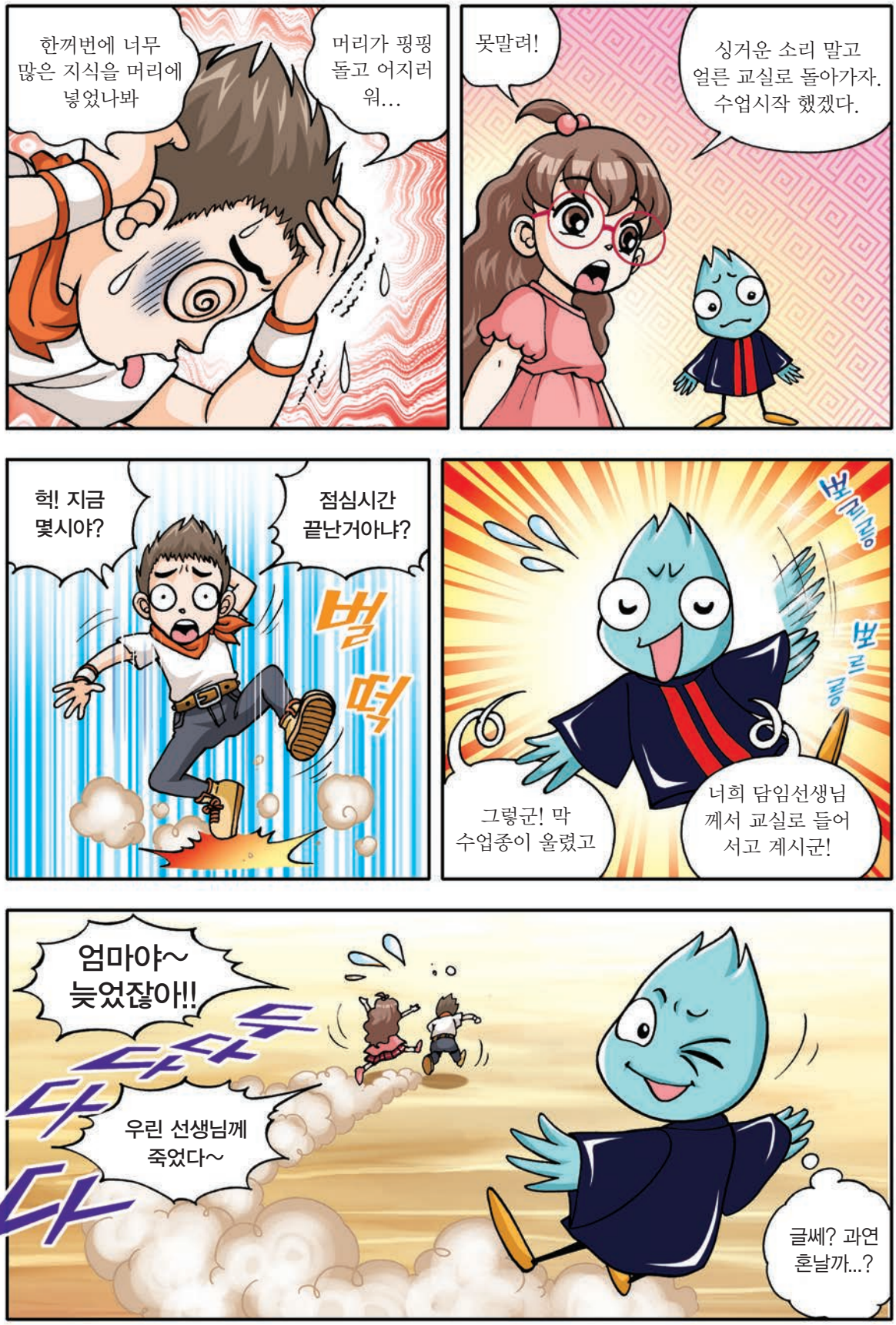


Tip

합의재판

세 사람이상의 법관이 합의하여 재판하는 것을 합의재판이라고 한다.
2심재판은 모두 합의재판인데 1심재판의 경우에도 사건이 무겁거나 중요한 경우 합의재판을 한다.
이때 경력이 많은 재판장과 비교적 경력이 적은 배석판사 2명으로 합의부가 구성되어 재판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비슷한 경력을 가진 판사 3명으로 합의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들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재판하게 된다.
4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판결이 내려지고 1명이라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일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재판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말야. 한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번 재판을 할 수 있게 한거야?
크큭~~ 똘이 심각하네
그건 국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야.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들이 피해입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심급제도란 정말 사려깊은 제도구나
그렇지
그..그런거야 나리야...?
엥? 왜그래 똘이야?
아~
털푸덕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지식을 머리에 넣었나봐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러워...
못말려!
싱거운 소리 말고 얼른 교실로 돌아가자. 수업시작 했겠다.
헉! 지금 몇시야?
점심시간 끝난거아냐?
벌떡
그렇군! 막 수업종이 울렸고
너희 담임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서고 계시군!
엄마야~ 늦었잖아!!
두다다다다
우린 선생님께 죽었다~
글쎄? 과연 혼날까...?



제3화 심화학습

법원과 재판의 종류

1. 법원의 종류

법원은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고, 갈등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법원도 일정한 단계가 있답니다. TV나 신문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대법원은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제일 높은 법원입니다. 대법원 아래에는 고등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는 지방법원이 있지요. 또한 특정한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원이 따로 있어요.

- 대법원 : 대한민국 최고 법원으로서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관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어 임기에는 대법원의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사법행정업무만을 전담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분쟁과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하여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 고등법원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에 있으며 2심 재판을 맡습니다. 항상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 지방법원 : 지방법원은 각 도마다 있으며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의 1심 재판을 맡습니다.
- 가정법원 :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족간의 다툼이나 가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맡습니다.
- 행정법원 :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으로 주로 행정기관이나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당한 사건을 맡습니다.
- 특허법원 : 고등법원과 동급으로 대전에만 있으며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맡습니다.
- 회생법원 :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서울, 수원에만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이에 관한 사건을 맡습니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 재판의 종류

재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입니다. 민사재판은 일상생활에서 개인들이 다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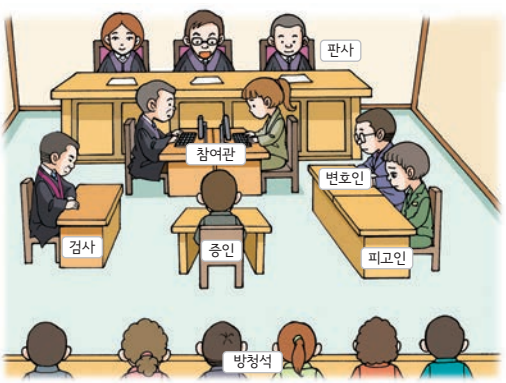
민사재판에서는 재판을 신청하는 사람을 원고,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당사자들을 대신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은 물건을 훔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 검사(국가)가 신청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국가)가 원고가 되고 범죄 혐의를 받고 죄를 추궁당하는 사람이 피고인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을 위해 변론해 주는 사람을 변호인이라고 부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중한 죄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	**원고**	**검사(국가)**	죄지은 사람을 벌주자고 주장하는 사람
원고의 주장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람	**피고**	**피고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
원고나 피고의 편에 서서 재판에 이기게 도와주는 사람	**변호사**	**변호인**	피고인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 밖에도 민사재판 중에는 특별히 가족 및 친인척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가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 중에서는 특히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 소년의 생활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소년보호재판도 있답니다. 또 법 중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논쟁을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헌법재판도 있습니다.

제 4 화

똘이, 게임 아이템 사기를 당했다고?




캬오!! 감히 인간 따위가 레드드래곤인 내게 도전하다니... 가소롭구나.
답례로 죽음을 선물해주마.
드래곤이여! 너는 많은 무고한 인간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카카카캇!
어디 해볼테면 해보아라!!
드래곤 브레쓰!
푸
후ㅏ


임페리얼 마제스틱
홀드 쉴드!!
헉!! 내 드래곤
브레쓰를 막아내다니..
이것이
끝이 아니지!!
소환!! 성검 홀리스틱
슈퍼 다이아몬드
스워드!!!
이럴수가!! 그것은 1억년전에
빙하속에 숨겨두었던 성검!
어떻게 그것이 네 손에?!!


정의의 검을 받아라!!!
꾸에에에엑!
파밧
바로미야, 이것봐!! 내가 드래곤을 이겼어!!!
오.. 대단하네 축하해...
법전
음하하하


똘아!!
또 게임하니?
하루종일 컴퓨터에 붙어
사는구나! 으이구~
내가 못살아!!
헉!..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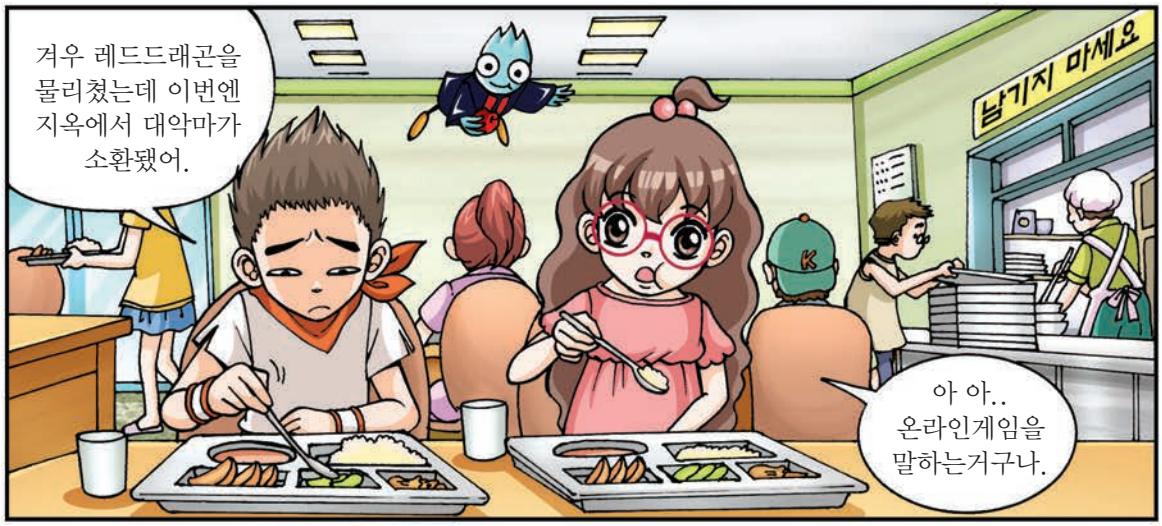

숙제는 다했어?
이.이제 숙제하려구요
게임은 잠깐.. 아주
잠깐 기분전환상
한거예요...


그런데 너 요즘
휴대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니?
빵 야


아..그..
그게요
친구들과
통화도 하고...
거시기...


매일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과 무슨 통화를
그렇게 많이해?
가만히
내버려뒀더니
끝이 없구나.
찔끔


죄송해요 엄마
이제부터 아껴 쓸게요.
당장 네 휴대폰 요금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휴대폰이든 컴퓨터든 모두 집 밖으로 퇴출시킬테니깐 그런 줄 알아!
엇! 내 컴퓨터랑 핸드폰은 안돼요! 엄마
탁
차라리 절 퇴출시키세요!!
심각하네…
하아.. 나리야 큰일 났어..
뭐가?
그.. 그게…


겨우 레드드래곤을 물리쳤는데 이번엔 지옥에서 대악마가 소환됐어.
남기지 마세요
아 아.. 온라인게임을 말하는거구나.


게임에 너무 빠져있는거 아냐?
너희 엄마도 매일같이 게임 좀 줄이라며 걱정하시잖아
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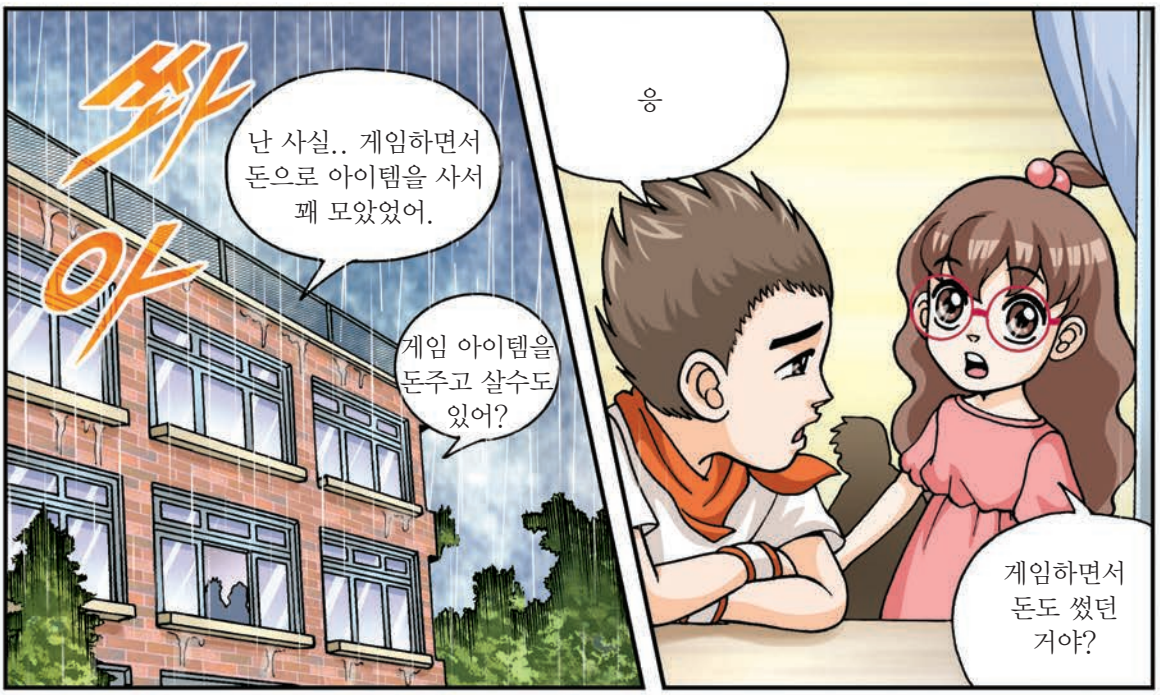

괜찮아. 우리 엄만 원래 잔소리와 걱정이 취미셔
나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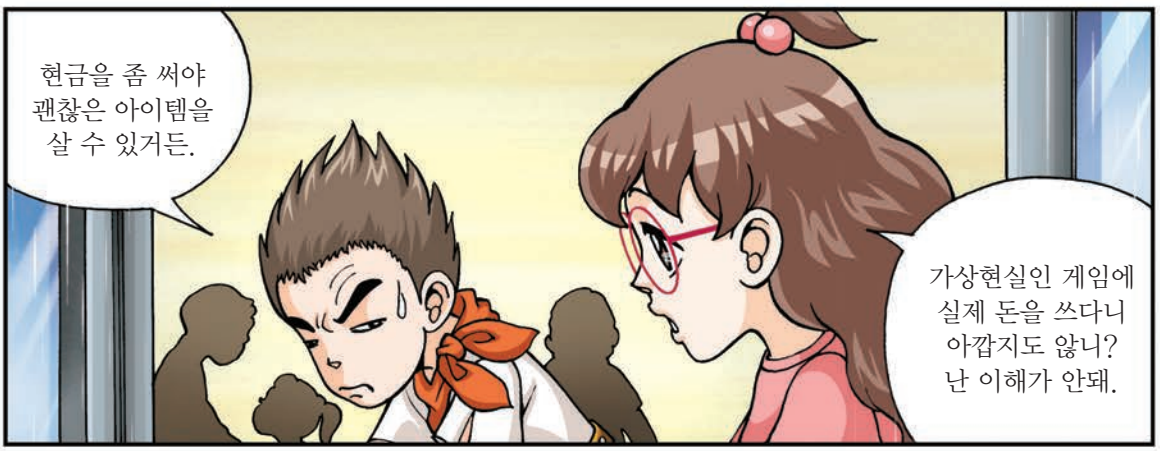

그나저나 이번엔 대악마를 어떻게 이기지...?
1억년된 성검있잖아. 그걸로 무찔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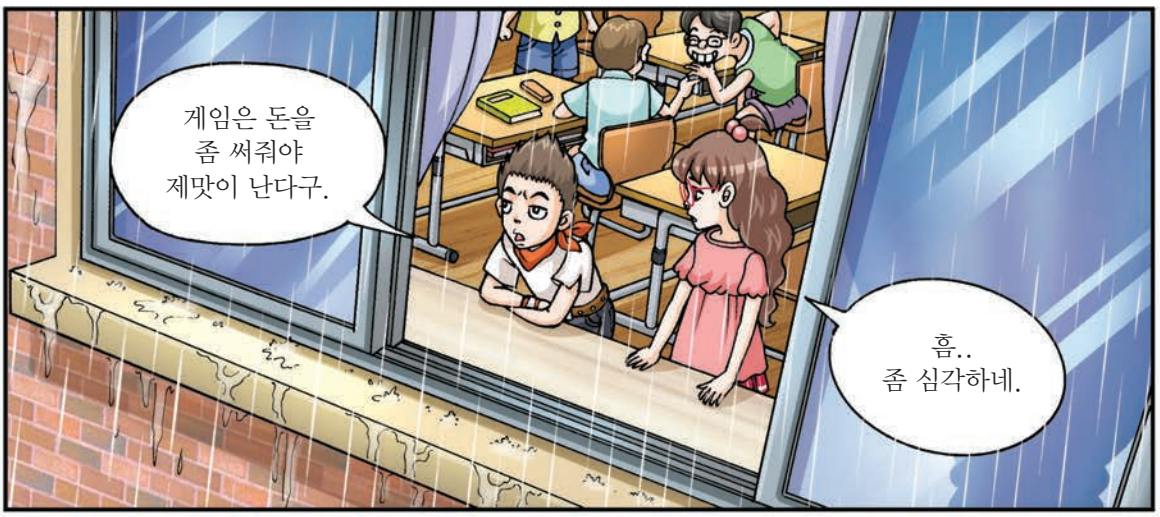

안돼! 대악마의 나이가 100억살이야.
그 검으론 상대 못해.


아... 그러니
와작
게임의 세계는 심오하구나.
끄응... 더 좋은 무기를 어떻게 구하지?
엄마 때문에 이젠 핸드폰 결제도 못하는데
퍽
핸드폰 결제?
아!!
그러면 되겠다.
똘아?
벌떡
며칠후…
ㅅㅣㅂㅣㅂ


똘아. 너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그래?
꼭 유통기한 지난 오징어 같은 얼굴이야.
나리야.. 나 큰일났어...
나... 사기 당한것 같아.
뭐라고? 사기!
투
둑
으악! 뛰자!!
우선 학교에 들어가서 이야기 하자.


쌀
야
난 사실.. 게임하면서 돈으로 아이템을 사서 꽤 모았었어.
게임 아이템을 돈주고 살수도 있어?
응
게임하면서 돈도 썼던 거야?


현금을 좀 써야 괜찮은 아이템을 살 수 있거든.
가상현실인 게임에 실제 돈을 쓰다니 아깝지도 않니? 난 이해가 안돼.


게임은 돈을 좀 써줘야 제맛이 난다구.
흠.. 좀 심각하네.



그래서 아이템마켓에 글을 올렸더니 '하늘을 날다'라는 아이디를 가진 형이 아이템을 사겠다고 연락해 왔어.






안 깎아주면 안사.
에이~ 치사하게 알았어요.


20만원은 내가 입금해서 보내주고.
10만원은 문화상품권으로 보내줄께. 괜찮지?


좋아요.


그럼 거래 성립! 아이템 줘


여기요.
좋아. 잘쓸게.


돈은 언제 보내 주실꺼예요?
걱정마. 난 신용인이야.
토
톡
톡


문화상품권은 고유번호를 당장 휴대폰으로 보내고
잘가요.
돈은 당장은 없으니깐 이틀후에 입금 시켜줄게. 그럼 난 간다.


그리고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돈을 입금안시켰어!


문화상품권 번호는? 그것도 안보내 줬어?
받긴받았는데 고유번호가 가짜였어.


완벽하게
속았구나.


크윽! 내 30만원!
억울하고 아까워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못먹겠어
어떡해!
아까부터
왜 저래?
돈을 잃어
버렸나봐?!
어떡하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지
경찰?
게임 아이템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돼?
응! 대법원에서도
게임 아이템을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게임머니
현금거래 및 이에
대한 환전행위를
'합법'으로
결정했지!
그래서 다른 아이템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을 강도나 절도,
공갈 등
재산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고 실제로 벌을
받은 사람도 있어.
다행이야!! 똘아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그 '하늘을 날다'란
사람을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거야!
...안돼.


난 할 수 없어...
왜?
신고하면 난 ... 난
무사할 수 없을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거짓말쟁이에게 협박당했어?
그..그게 아니라. 나 엄마 몰래 소액 결제한거란 말이야.
이번달에도 5만원이나 써버렸는데...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아시면 난 큰일 나!
으이구 못 말려!
컴퓨터 게임 얘기 같은데..
응..


하지만 네가 만약 신고 안하면 그 사람은 분명
다른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사기를 칠거 아니야!
응... 그렇겠지?
?
당연하지.
끄응! 하지만....
꼴깍
뭣이야? 뭐가 어쨌다고?
혼날 일이 무서워서 그런 사기꾼을 그냥 내버려두겠다는 거잖아!
넌 게임세계에서 정의의 기사라면서 아빠, 엄마한테
쳇! 그러고 보니 똘이 너 형편없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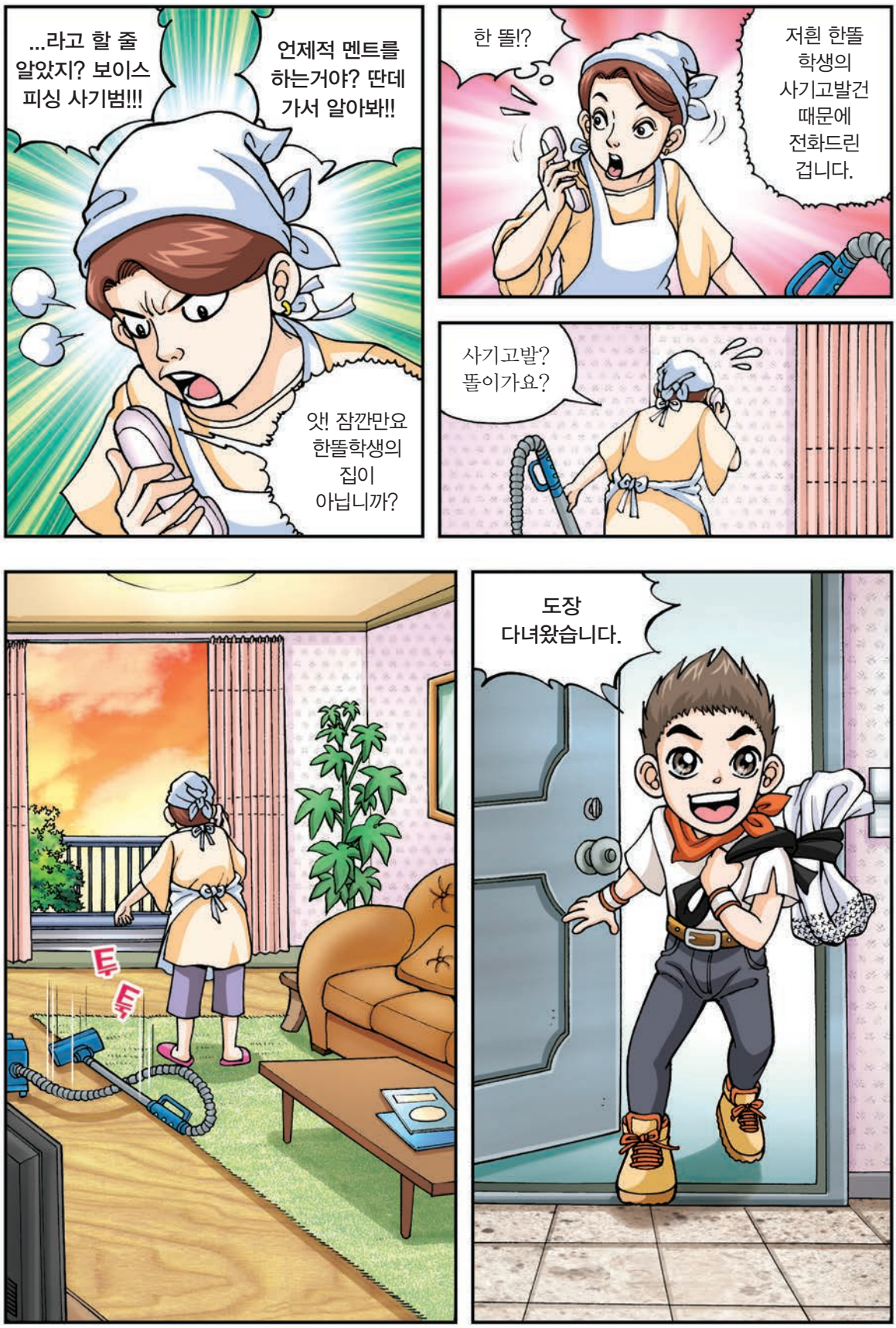

나..나리야 난 단지...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탁
우아! 미치겠네
어쩌지...?
똘아. 무슨 일이야?
우리는 알면 안돼?
신고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문제로다... ...문제야...
혹시 너 사...사기 당한거야?
좋아! 나리 네 말이 맞아.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거니깐
막아야 해!! 사기범에게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테다!
우다아
탕
탕


이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군!
나리야. 나 한가지 부탁이 있어.
응?
단,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글쎄? 자식으로서 못난 짓을 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이고 싶지 않아서라면야...!
맞어! 맞어! 그..그런거지 뭐...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니깐 아하하.
우웩
경찰서
이것 좀 봐 똘아~


사이버범죄 집중단속기간이래.
사이버범죄 집중단속기간 ○○
오오~ 잘됐다.
어! 이게 누구야.
너 대법초등학교 화재사건 때 증언했던 그 애지?
네.
오랜만이다. 반갑구나. 이름이 뭐였더라?
나리요! 그때는 감사했어요 아저씨.
엥? 난 꿔다놓은 보릿자루?!
그래. 여긴 무슨 일로 왔니?
그게요! 나쁜사람을 신고하려고요.
신고?


사이버 수사대
흐음…
상황을 들어보니 사기를 당한 것 같구나.
그렇죠?!
크흐흐 「하늘을 날다」 반드시 붙잡아서 땅을 기게 해주마.
뭐야? 잡은 것도 아닌데 흥분하고 그래…
응? 그랬나 …헤헤
하지만 네 말만 듣고 무조건 처벌할 수는 없단다.
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처벌할 수 없다구요?
경찰아저씨! 전 100% 진실만을 말씀드린거예요
사건을 좀 더 조사해보고 자료를 모아야 한단다.
그래. 안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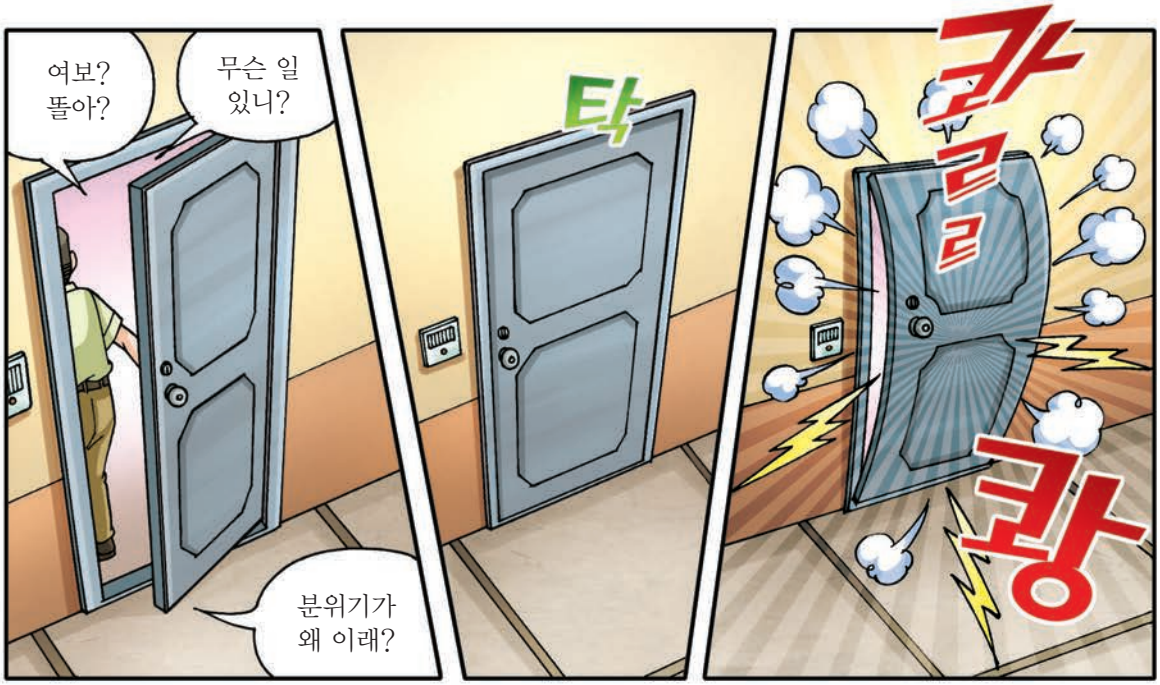

경찰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단다.
자!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가보거라.
다음에 얘기 하자구나.
다음 에요?
저..한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부탁?
꾸벅
며칠 후
벨렐렐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찰서입니다.
어머! 경찰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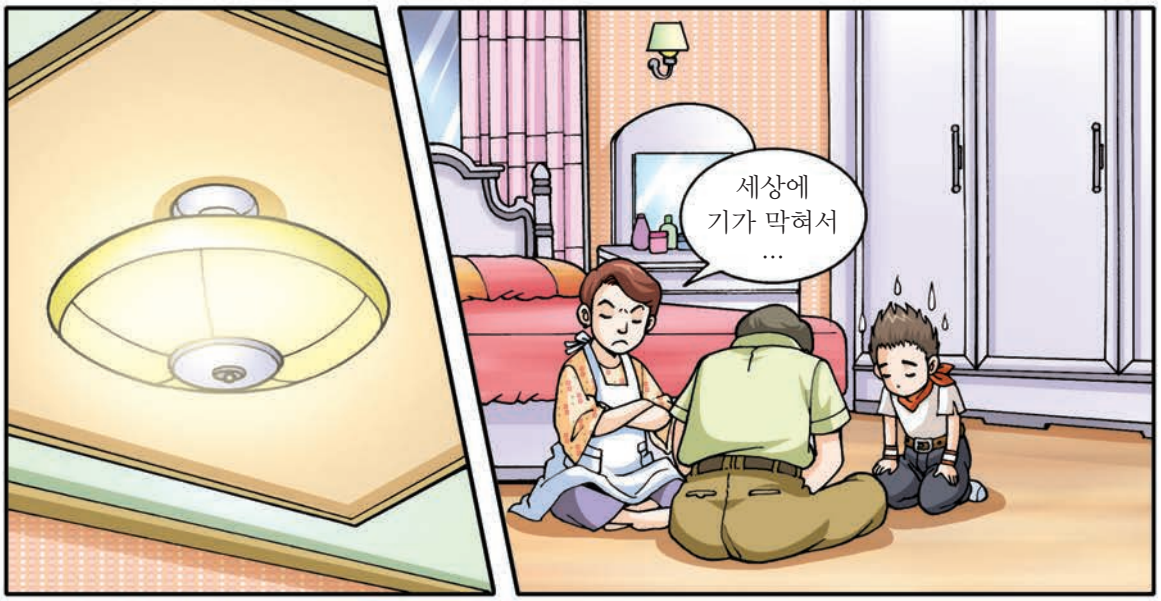

...라고 할 줄 알았지? 보이스 피싱 사기범!!!
언제적 멘트를 하는거야? 딴데 가서 알아봐!!
앗! 잠깐만요 한똘학생의 집이 아닙니까?
한 똘!?
저흰 한똘 학생의 사기고발건 때문에 전화드린 겁니다.
사기고발? 똘이가요?
탁탁
도장 다녀왔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너! 경찰서에서 아이템 사기사건에 대해 조사한다고
전화가 왔구나. 이게 무슨 일이니...?
허컥!
겨, 경찰아저씨 한테 집에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아이쿠나.
어..엄마 ... 그게요...
거시기.. 거기엔 깊은 사정이 있는데....
여보! 다녀왔어
딸칵
아이구 피곤하다...
헉!


응? 똘아 현관에서 뭐하니?
끄아아악!
사면초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여보? 똘아?
무슨 일 있니?
분위기가 왜 이래?
타
카
르
르
쾅


세상에
기가 막혀서
…


엄마 몰래 게임에
오랫동안 몇만원씩
쓴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당했다니!!
죄송해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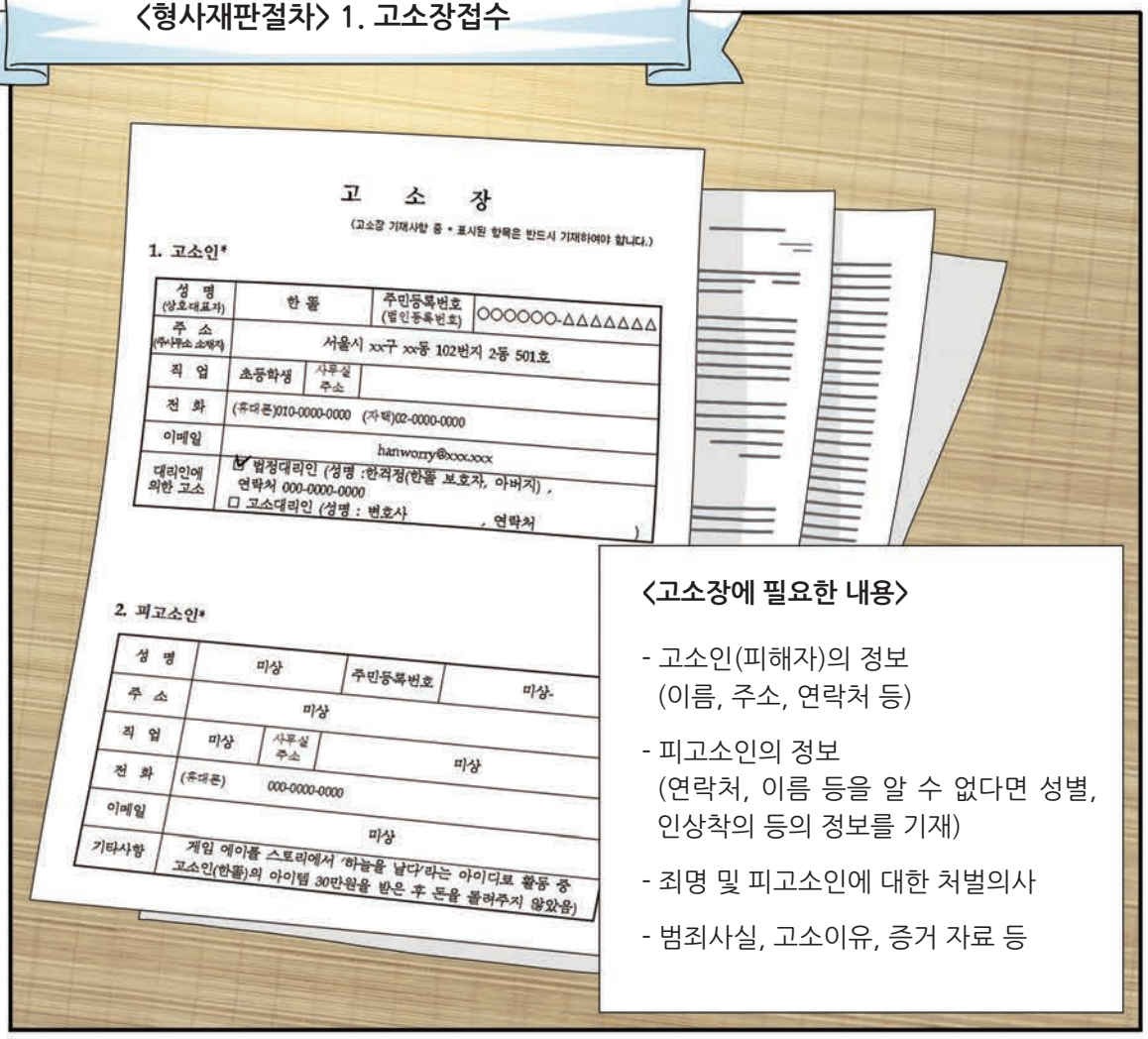

게다가 경찰서에 신고까지?!
어린녀석이
뭘 안다고
경찰서까지 가?
사기신고는 엄마가 취소한다고
말해뒀으니깐. 넌 앞으로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지 말고
공부나 해!!


엄마.. 아빠... 제가 몰래 게임에 돈을 쓰고 공부를 소홀히 한 건
천번, 만번 잘못했어요.
하지만 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니?
...
경찰아저씨가 절더러 사기에 당한거래요.
그 사기범을 내버려두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 뻔하잖아요.
전 그 사기범을 꼭 잡아 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런거 해봤자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경찰서에 왔다갔다 해야하고 번거롭기만 해!


쓸데없는 일에 신경 끄고 공부나 해!
네. 이제 공부 열심히 할께요 엄마.
하지만 옳지않은 것을 바로 잡는 일이잖아요 엄마...
제발요.
이 녀석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려!!
여보!
?
?


경찰서
뭐지?
…!
아빠가 왜 아무말도 없이 경찰서에 오신걸까...?
마치 부모님께 체포되어 잡혀온 기분이야.
아! 똘아. 이번엔 부모님과 같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똘이 아버님, 어머님.
사이버 수사대
안녕하세요. 저는 똘이아빠 한걱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력반
고소장을 접수시키고 싶어 왔습니다.
집에서 미리 써왔지요.
슥

〈형사재판절차〉 1. 고소장접수



〈고소장에 필요한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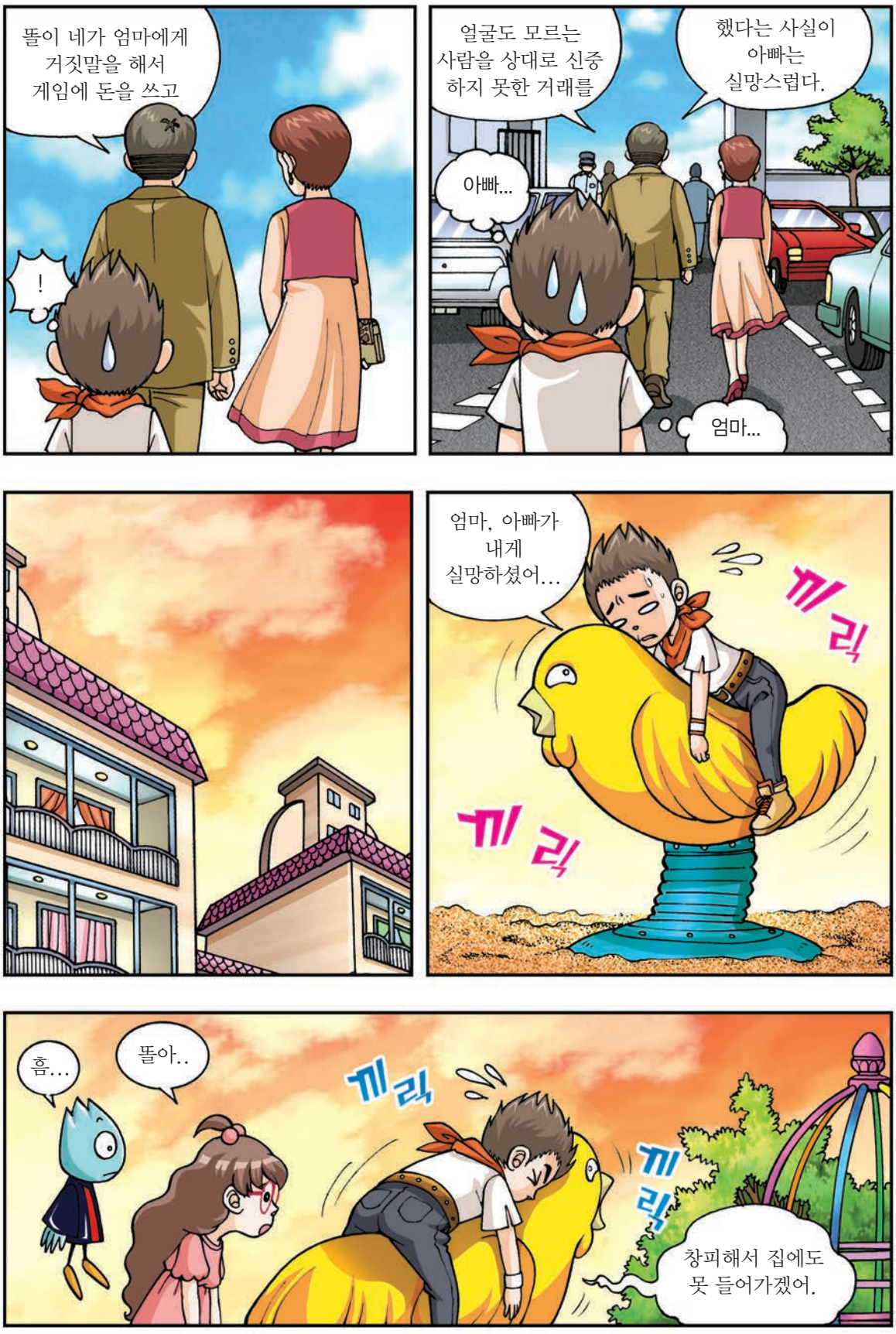
- 고소인(피해자)의 정보
  (이름, 주소, 연락처 등)
- 피고소인의 정보
  (연락처, 이름 등을 알 수 없다면 성별,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기재)
-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 자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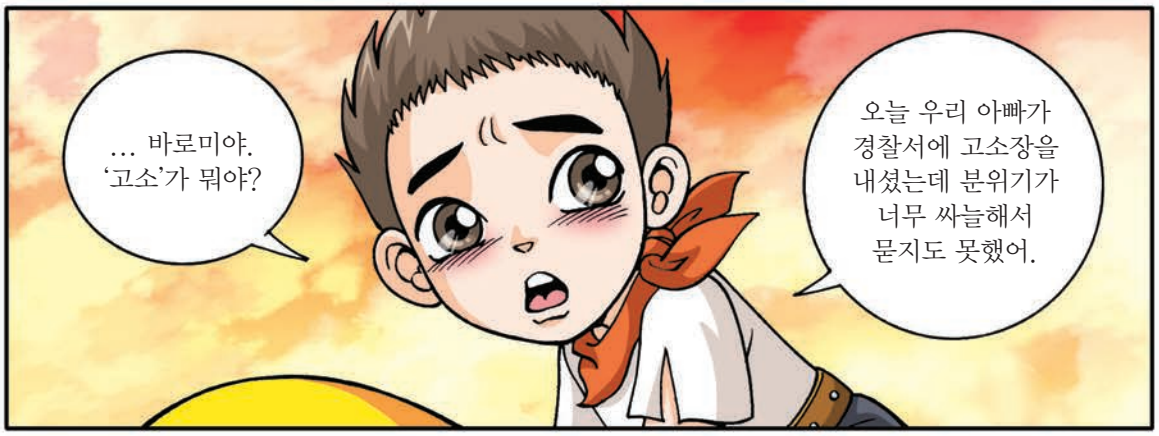





이 사건은 저희 사이버 수사팀에서 맡을 것이고 며칠 내로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난 경찰서니, 고소니 하는 일은 다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처음 경찰서에서 온 전화도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어요.
…
그런데 똘이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다 해보는구나.
…
죄송해요…
사이버
똘아…
아빤 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탓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똘이 네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해서 게임에 돈을 쓰고
!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신중하지 못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아빠는 실망스럽다.
아빠...
엄마...
엄마, 아빠가 내게 실망하셨어...
끼리
끼리
흠...
똘아..
끼리
끼리
창피해서 집에도 못 들어가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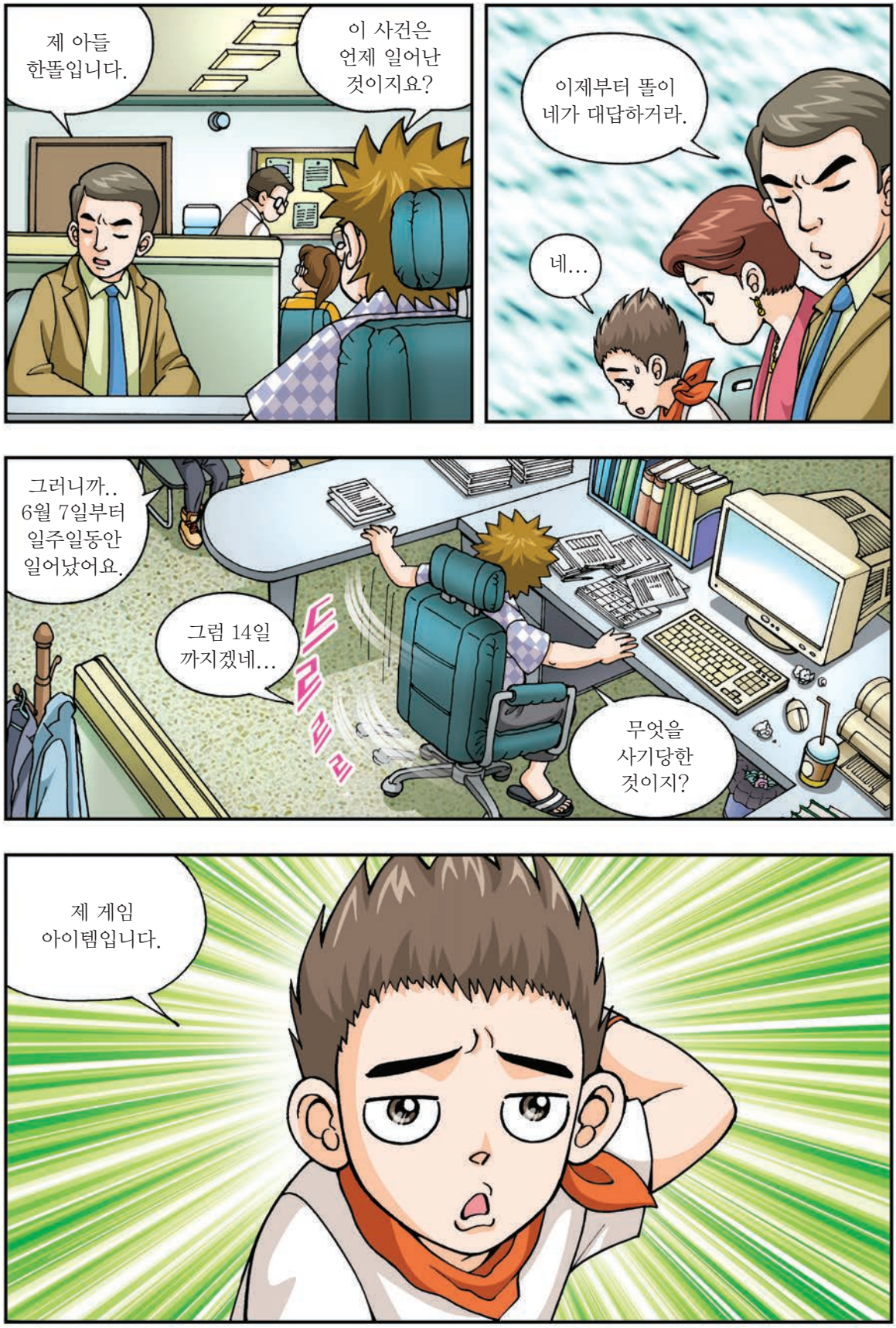

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저지른 일은 어쩔수 없잖아.
맞아.
앞으로 부모님께 의젓한 모습을 보여 드려서 다시 믿을 수 있게 해 드려야지.


… 바로미야. '고소'가 뭐야?
오늘 우리 아빠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셨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서 묻지도 못했어.


쉽게 말해「고소」는「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야.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한다고?


그럼 형사재판이 열릴 수도 있겠구나.
헉! 그런거야? 그럼 아빠가 내 의견을 들어주신 거구나...
분위기는 빙하시대의 시베리아 같았지만...
고소를 했다고 무조건 형사재판이 열리는 건 아니야. 검사가 사건을 조사해 보고 벌금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하지.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해.
이걸 「공소」라고 한단다. 흔히 공소를 제기한다고 하지.
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내 경우엔 어떻게 될까?
턱


2. 고소인 조사
안녕하세요. 전 사이버수사팀의 백호랑 형사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번거롭지만 모셨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형사님. 아이들의 코묻은 돈이나 사기치고 다니는
파렴치한 놈을 꼭 붙잡아 벌 주세요.
인터넷 사기라서 코는 안 묻었는데...
시끄럿!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범죄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니
번거롭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대답해 주십시오.
이 사건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제 아들 한똘입니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것이지요?
이제부터 똘이 네가 대답하거라.
네...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일주일동안 일어났어요.
그럼 14일 까지겠네...
드르르르
무엇을 사기당한 것이지?
제 게임 아이템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렴.
톡
토독
톡
톡


똘이는 그간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제가 1년동안 30만원어치…
…그런데 아이템마켓에서
… '하늘을 날다'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 현금 20만원, 문화상품권 10만원……
끄응


하지만 결국 한 푼도 제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템 값을 받지 못했다.
토 토 톡 톡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구나!
찔끔
넌 어떻게 엄마 몰래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어떻게 이런 간 큰 짓을 할 수 있냐구?!
끙...
어머님 진정하시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톡톡톡
최근 똘이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 중에도 같은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판단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지요.
형사님... 정말 아들인지 원수인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그 정성으로 했으면 벌써 하버드 대학에 조기입학 했을 거예요.
여보. 그만해...
당신은 얘 말 듣고 기도 안차요?


똘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다...자식을 잘못 가르친 우리 탓이지... 후우...
흑! 가시방석.
그래 똘아. 네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물들은 가져왔니?
네! 가져왔어요.
벌떡
그동안 제가 가입한 아이템 마켓에서 거래한 내역서랑
'하늘을 날다'와 주고받은 쪽지 등을 프린트 해왔어요.
고맙구나. 수고했다.
혹시 필요하실 지도 몰라서... 참고하시라고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써 두었어요.
허허 야무지구나. 믿음직 스러운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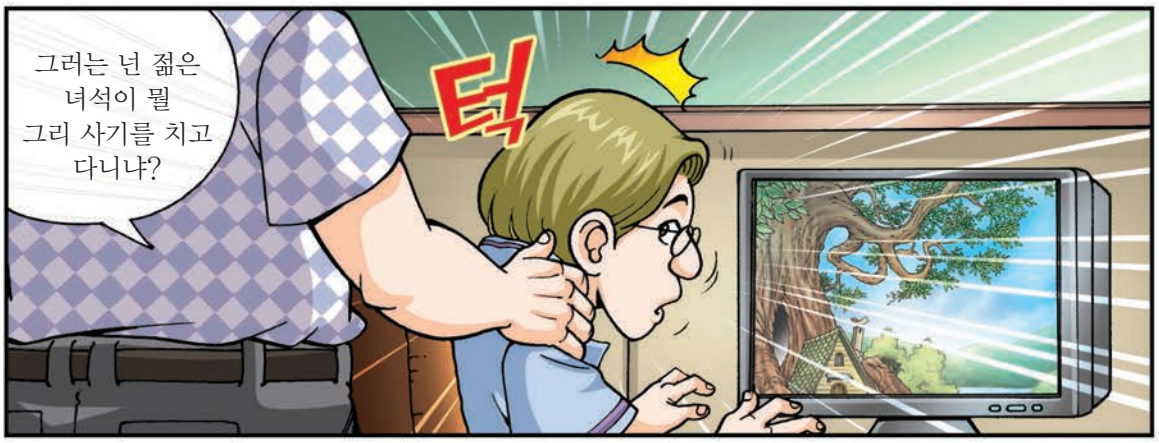

부모님들 너무 걱정마세요.
아이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 놈을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똘이도 이번 일로 깨달은 바가
있을 겁니다.


다크 드래곤
배틀액스?


좋아! 10만원 이면 되지?
안되요. 이건 이벤트용 한정 아이템 이라 귀한거란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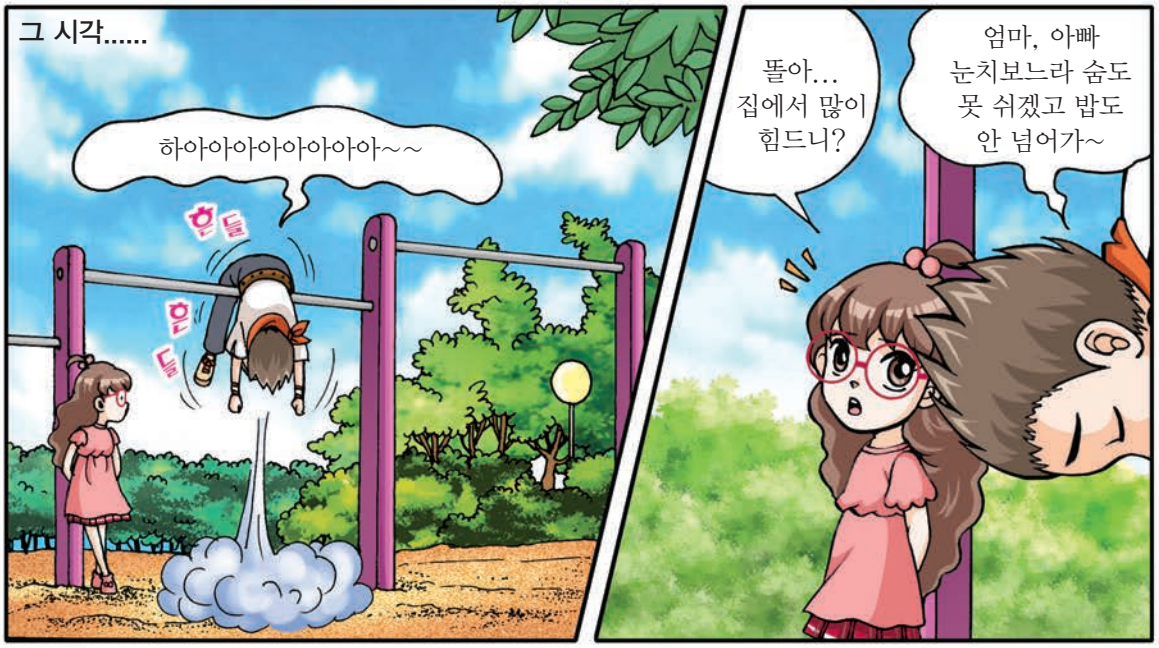

20만원은 주셔야 해요.


넌 어린 학생이 돈을 뭘그리 밝히냐?


그러는 넌 젊은 녀석이 뭘 그리 사기를 치고 다니냐?
턱


아이디 '하늘을 날다' 널 사기혐의로 체포한다.
체..체포라니요? 내가 왜요?
금연
젠장!
우다다닥
비켜! 비켜!
?
흥!
순순히 안잡힐 줄 알았지.
크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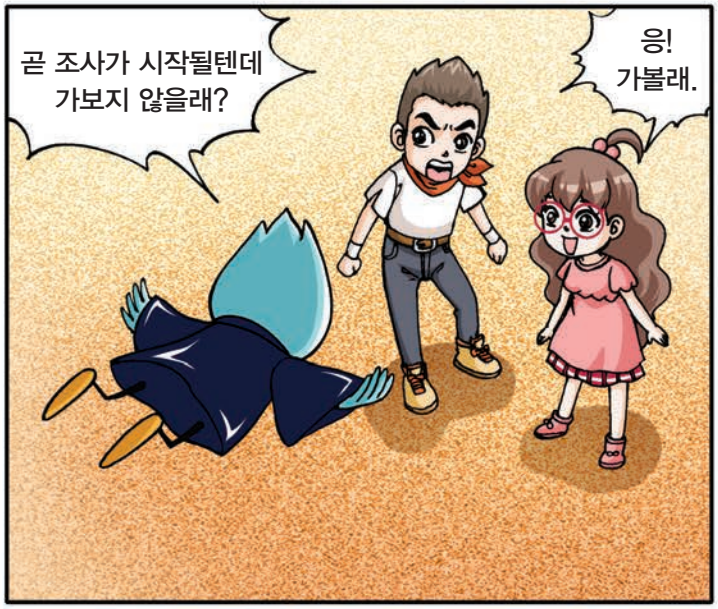

스마일
아아아아아


그 시각.....
하아아아아아아아아~~
헉들
헉들
똘아... 집에서 많이 힘드니?
엄마, 아빠 눈치보느라 숨도 못 쉬겠고 밥도 안 넘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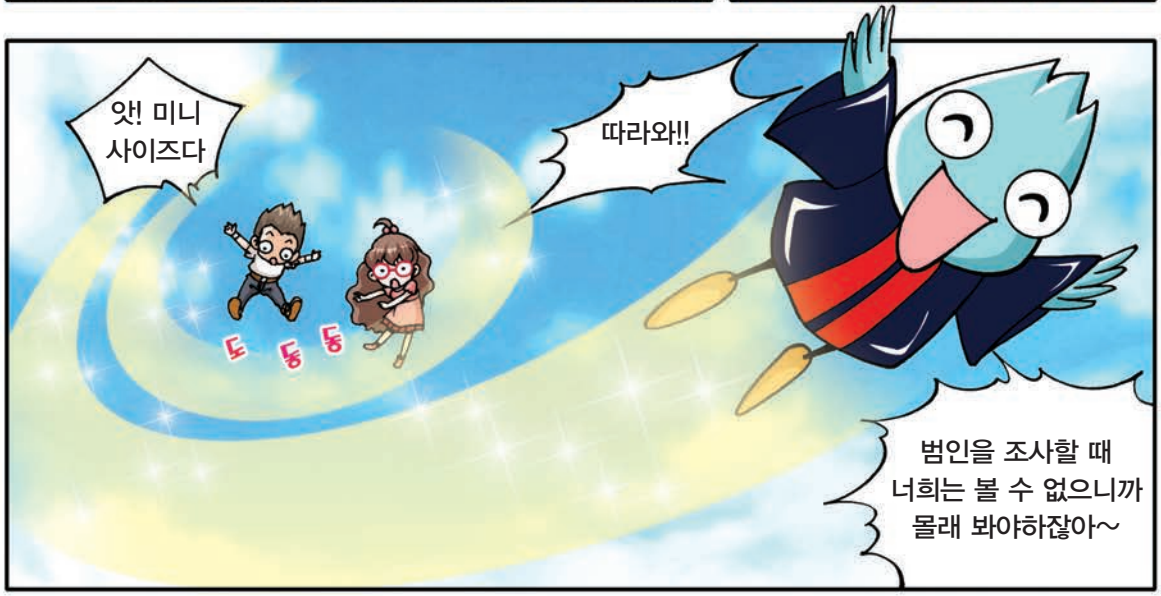

그래도 원망할 순 없지.
내가 다 만든 일이니까...
휘
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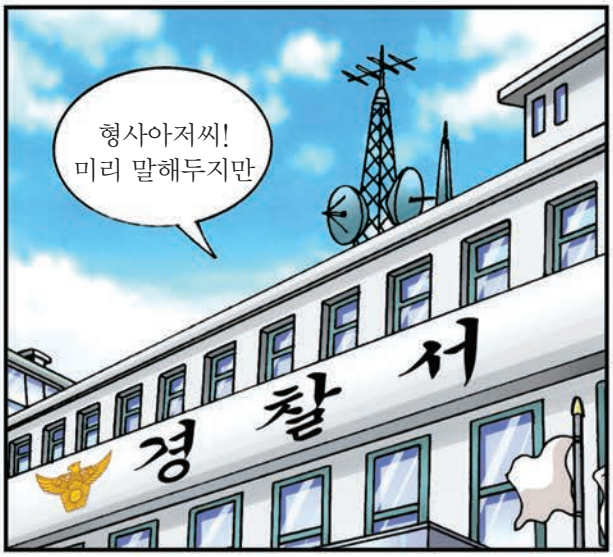

그래도 네뜻대로 부모님이 고소를 하신 건 참 의외였지.
응! 엄마는 처음에 귀찮은 일이라 화내셨는데
요즘엔 엄마가 먼저 경찰서에 연락하셔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냐고 물어보실 정도가 됐어... 웬일이람.
착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데?
나말고도 다른 초등학생 피해자들을 여럿 찾았대.
사기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나봐.
한두 번 한 짓이 아니었구나.
응. 범인의 '신원'도 확인했대.
아! '신원'이란 그 사람의 성장과 정과 관련된 자료를 말해.
신분, 행실, 주소, 직업 같은 정보를 두루 포함한 거래.


와~ 너 그런 어려운 말도 쓸 줄 알아? 대단해.
이번 일을 계기로 조금 공부하고 있어.
범인의 신원을 알아냈으면 잡히는 것도 시간 문제겠네.
얘들아! 빅뉴스야. 범인이 잡혔어.
삐이이
와~ 정말?


곧 조사가 시작될텐데 가보지 않을래?
응! 가볼래.


좋았어!
찌리!


앗! 미니 사이즈다
따라와!!
두 둥 둥
범인을 조사할 때 너희는 볼 수 없으니까 몰래 봐야하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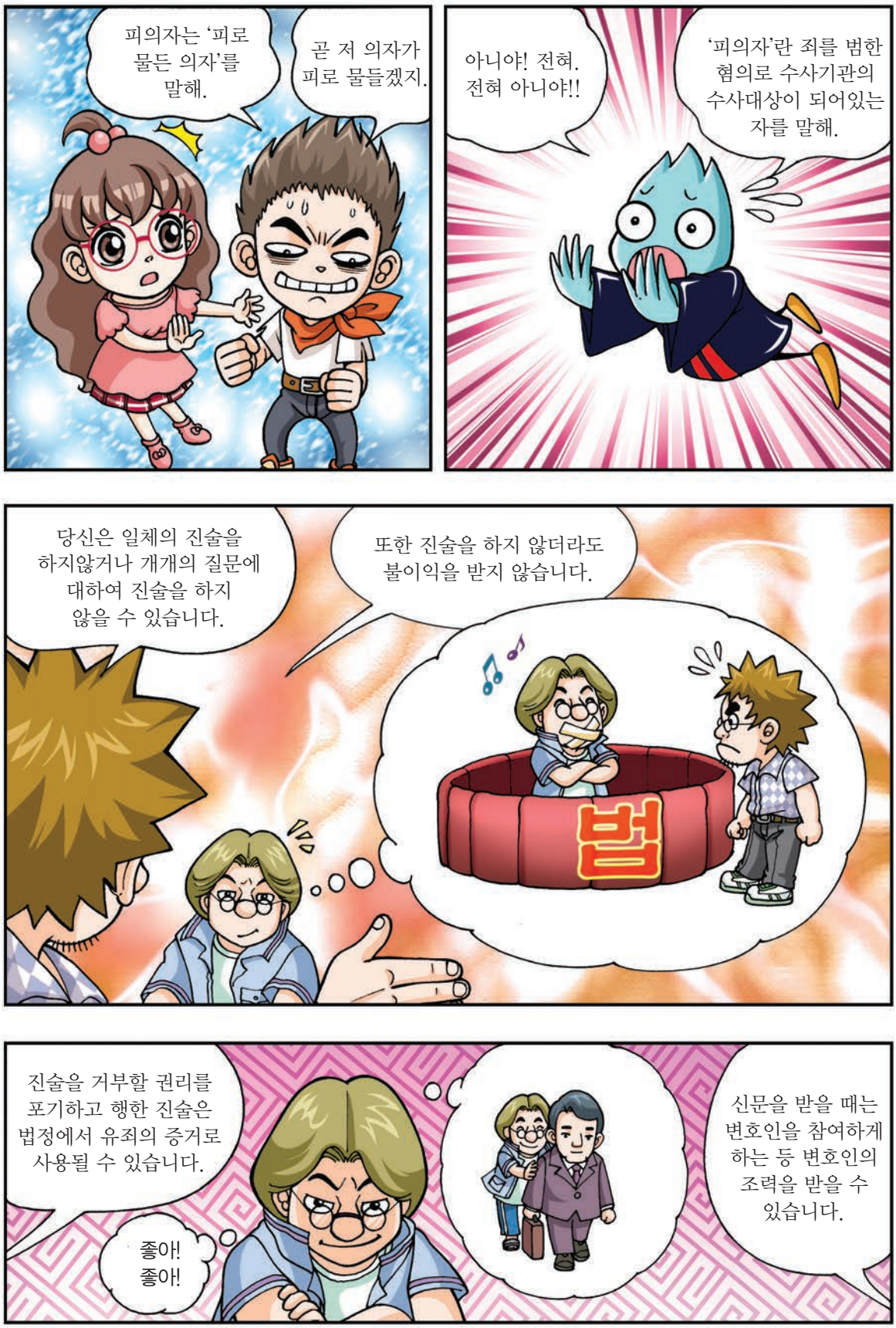

형사아저씨!
미리 말해두지만
경찰서


모~오오든건
오해와 착각
속에서 비롯된
일이니
괜한 힘 빼지
마시고
풀어주시죠.


3. 피고소인 조사
저 자식이구나.
가만 안둘껴!!
똘아
참아!
?
흠...!


먼저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해드리죠.


'피의자'가
뭐야?
엥?


피의자는 '피로 물든 의자'를 말해.
곧 저 의자가 피로 물들겠지.
아니야! 전혀. 전혀 아니야!!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자를 말해.
당신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좋아! 좋아!
신문을 받을 때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법을 잘 모르잖아. 모른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피의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런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게 하고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바로 그것이지.


저런 나쁜놈에게 그런 권리가 필요할까?
피의자의 권리는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가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장치야. 법의 더 큰 가치를 위해 꼭 필요한거지.


자! 이름과 나이를 정확하게 말해보세요.
김속임! 올해 20살이죠.


최근 주로 어디에서 지냈습니까?
뭐... 친구집에도 있다가... 여관에도 있다가... 집에도 있다가...
PC방은 어디를 이용했지요?
형사님이 절 잡으신 곳이요.
ㄷㄷ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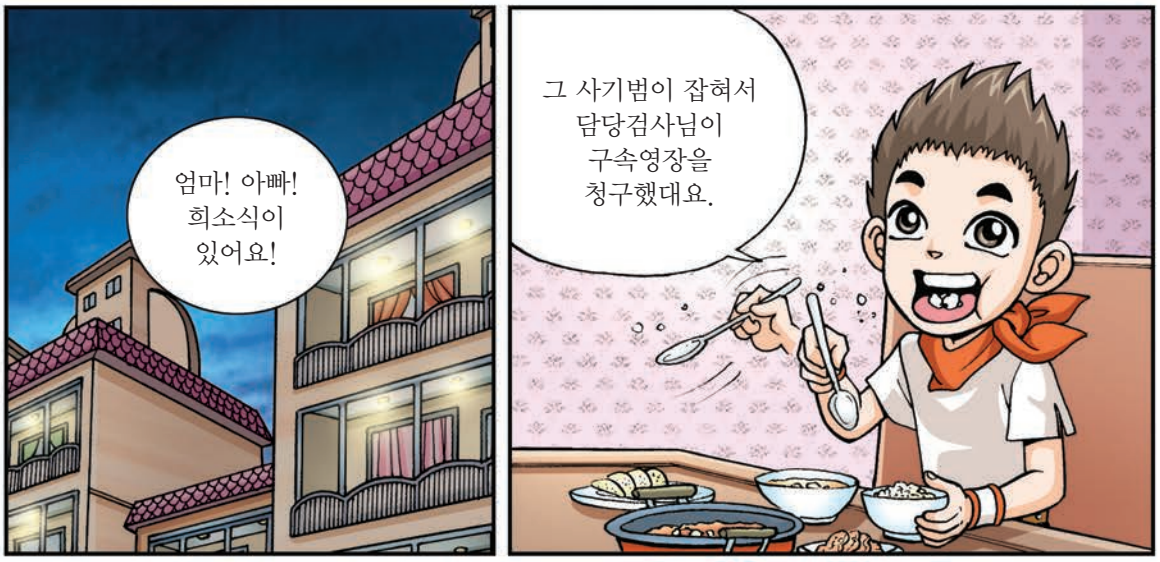

스마일 PC방 이라...!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친 돈은 모두 얼마입니까?
형사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찌질하게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자신도 찌질한 짓을 했다는걸 알긴 아는군.
찌질하게 그러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 이런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도대체 누가 절더러 사기를 쳤대요?
혹시 「붕어똥」이 그래요?
계속해...
톡톡 톡
아니면 「정지가 안돼」? 「정의의 기사」? 「불타는 고구마」? 누군지 말을 해요! 말을!!
벌떡
앉으세요. 앉아!!
자기 입으로 다 말해놓고 뭘 말해?
완전 상습범이잖아.


전 사기친 것 아닙니다.
분명히 돈을 줄테니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기꾼이 사기라고 말하고 사기치냐?
이틀안에 돈을 준다고 하고선 주지 않았고
알려준 문화상품권 번호도 가짜였고...
아항! 누군지 알겠구만... 「정의의 기사」 한똘 말이군요?!
탁
그래요! 나예요. 그래도 사기가 아니라고 우길거에요!!
형사님! 돈을 주는 것은 좀 늦어졌지만 분명히 주려고 했었구요.
문화상품권 번호는 제가 번호를 잘못 찍어준 것이예요.
똘이가 틀린번호라고 알려주었다면 다시 보내줬을 겁니다.
김속임씨가 지난 1년 6개월동안 만만한 어린학생들을 상대로
파일
아이템만 받고 돈을 주지 않은 증거들이 있어!
탁


형사님! 제가 PC방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예요.
누가 제 아이디를 훔쳐서 썼을지도 모르잖아요.
어? 그것도 말된다. 똘아...
허튼수작마! 당신이 PC방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각각 다른 아이디를 이용한 흔적이 있어. 들키지 않으려고 별 수를 다 썼더군.
이건 PC방 CCTV에 찍혀있는 당신모습이고
이건 당신이 찍힌 시간과 당신 아이디들의 접속시간이야. 모두 일치하지.
턱
와~ 역시 형사님은 다르구나.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잖아.
이정도면 증거는 충분해! 이쯤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좋은 처분)를 바라는게 좋을 걸....
형사님은 저를 이미 범인으로 단정짓고 계시네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 아무에게도 사기치지 않았다구요.
빤빤여!


뻔뻔한 사기꾼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음
하하하
매직
뭐 한거야 너?
계속 이런식으로 나오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김속임씨.
난 사기꾼이 아니니까 맘대로 하세요.
사
기
꾼
아이쿠~ 똘이녀석 정말 못말린다니까


이 사건은 이제 경찰서에서 담당검사로 넘어갈꺼야!
얼른 여기서 나가자!
뿅 나와


엄마! 아빠! 희소식이 있어요!
그 사기범이 잡혀서 담당검사님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대요.


네가 구속영장이 뭔지는 아니?
....
알다마다요!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게 하는 명령서잖아요.
검사 아저씨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아저씨가
피의자를 심문(審問)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거구요.
잘
잘
잘
넌 누구니?
?
떡


4. 불구속, 구속의 결정단계 (구속영장실질심사)
피의자는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저분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실 이공정 판사야.
법원
판사님 이름이 멋져
오늘 이 절차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 발부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줌.
• 기각
사법상 행정상의 청구를 거부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지…
사는 곳이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증거인멸이 사기범의 당연한 미덕아냐?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에 대하여
난 지금이라도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도망치고 싶거든.
아시겠습니까?
네….
흠칫


판사는 김속임에게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었다.
제가 똘이에게서 아이템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를 친 적은 없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서 돈을 번 후에 주려고 했는데 똘이가 절 못 믿은 거지요.
그렇다면 똘이 외에 다른 학생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 혐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것.
여기 피의자가 다른 아이디로 학생들에게
접근했다는 증거가 있군요.
다른 일들도 모두 제가 모르는 일이예요.
경찰이 다른 사람을 저로 착각한 것 같네요.
끝까지 오리발이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진짜인줄 알겠어.
주거지는 ××여관이 맞습니까?
지난달까지는 거기에 있었죠.
증인석
지금은 어디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판사는 김속임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자세하게 검토한 다음...



김속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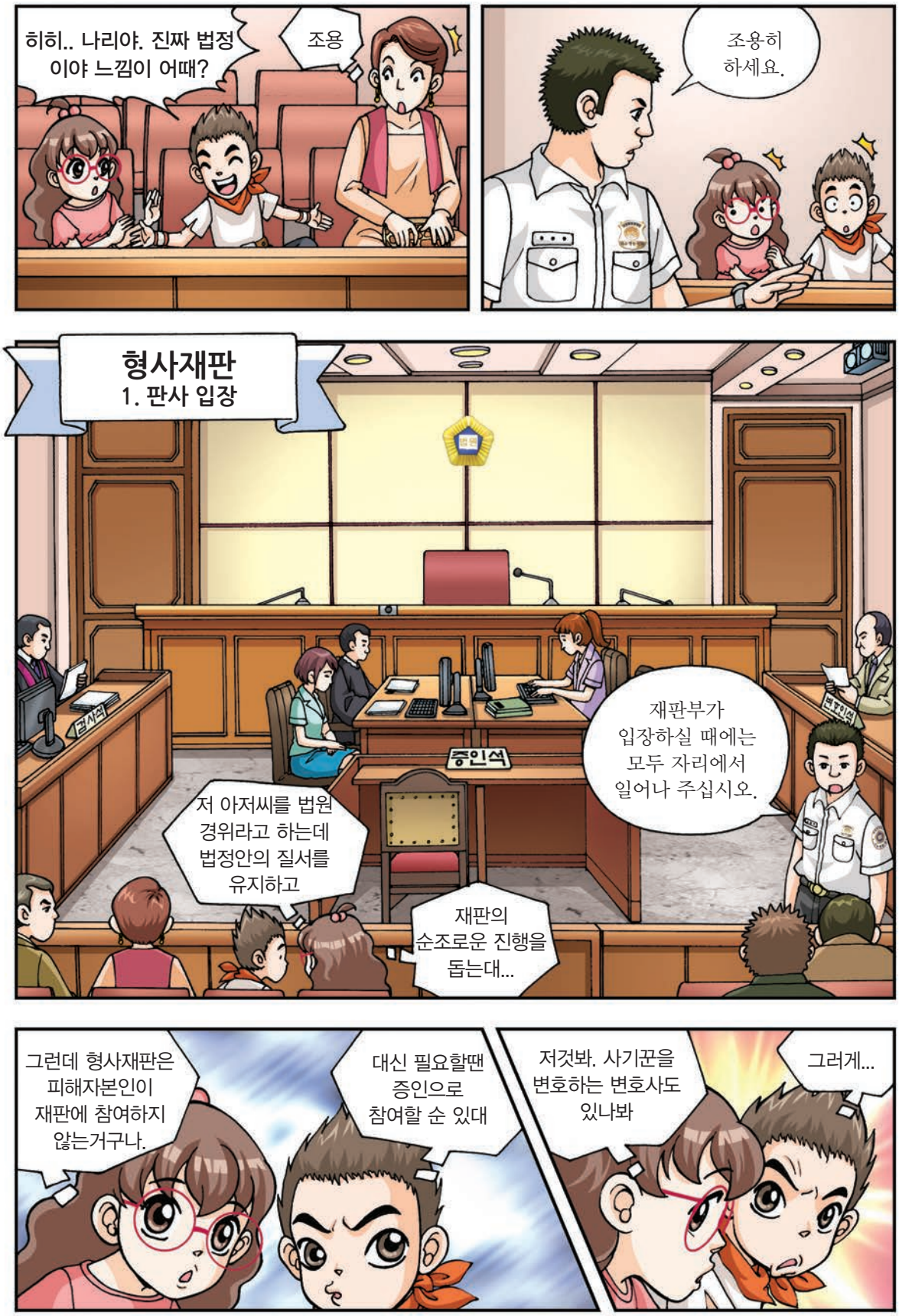

한똘 외의 다른 피해학생들의 증거 자료가 많이 모자라니
경찰에 증거자료를 추가 요청해 주세요.
저 분이 담당검사이신 정의로 검사다.
와~ 검사님 멋지다.
예.


지난 1년 6개월간의 범죄기록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김속임의 사기죄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냅시다.
어머. 진짜 정의의 기사님 같아.
!
둥..
둥..


검사는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관청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범죄를 수사하지.


저 검사님이 똘이를 대신해 형사재판을 신청하고
재판에서 김속임을 벌 줄 것을 판사님께 요청할 거야.
검사님 화이팅!!


검사는 곧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고 재판날짜가 정해졌다.
가자!
앗! 다음은 어딘데....?


히히.. 나리야. 진짜 법정이야 느낌이 어때?
조용
조용히 하세요.
형사재판
1. 판사 입장
검사석
증인석
피고인석
재판부가 입장하실 때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 아저씨를 법원 경위라고 하는데 법정안의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는대...
그런데 형사재판은 피해자본인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거구나.
대신 필요할땐 증인으로 참여할 순 있대
저것봐. 사기꾼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있나봐
그러게...


피고인 김속임과 그를 변호할
이변호 변호사다.
변호인석
?...
참고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부른단다.
엄마. 저분이 정의로 검사님이셔.
너 쫓겨나고 싶어. 조용히해.
?
....
검사석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어! 이공정 판사님이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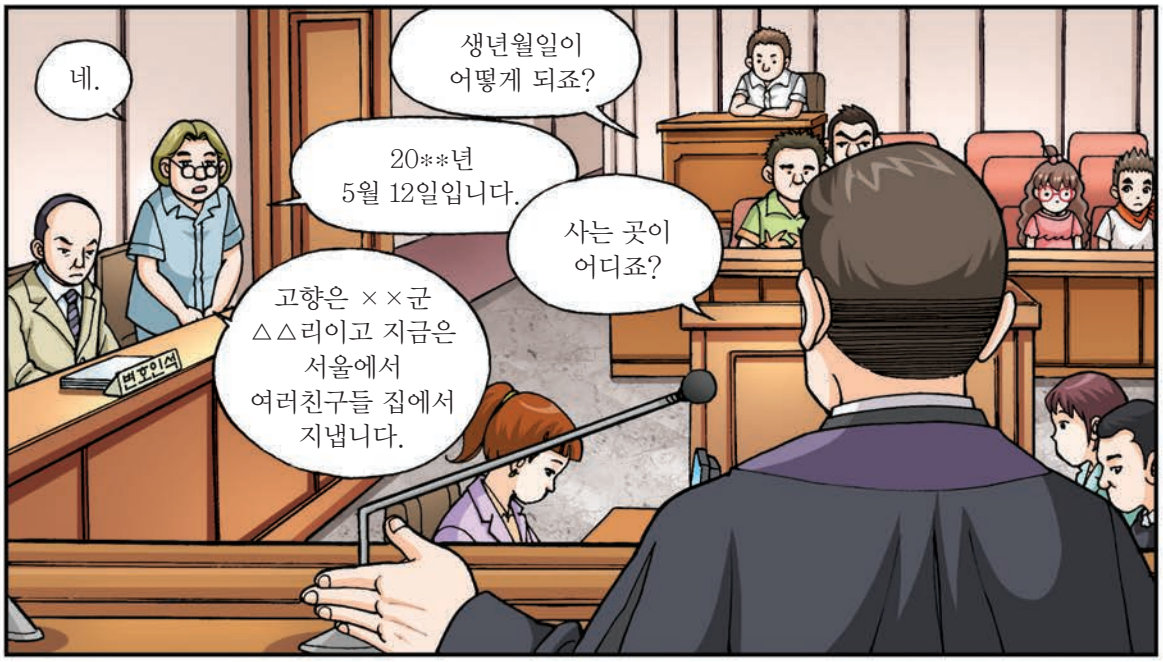


2.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20**년
5월 12일입니다.
사는 곳이
어디죠?
고향은 ××군
△△리이고 지금은
서울에서
여러친구들 집에서
지냅니다.
변호인석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슥
…?


검사는 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까?
네.


3.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들에게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구입의사를 밝힌다음 아이템을
받은 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아이템을
파는 일을 상습적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300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300만원!!!
지금까지 신고된 피해자만 10명이고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 기소
검사가 어떤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같은 말 : 공소제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피고인의 모두진술
검사의 모두진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앉아서 말하세요.


제가 아이템을 받고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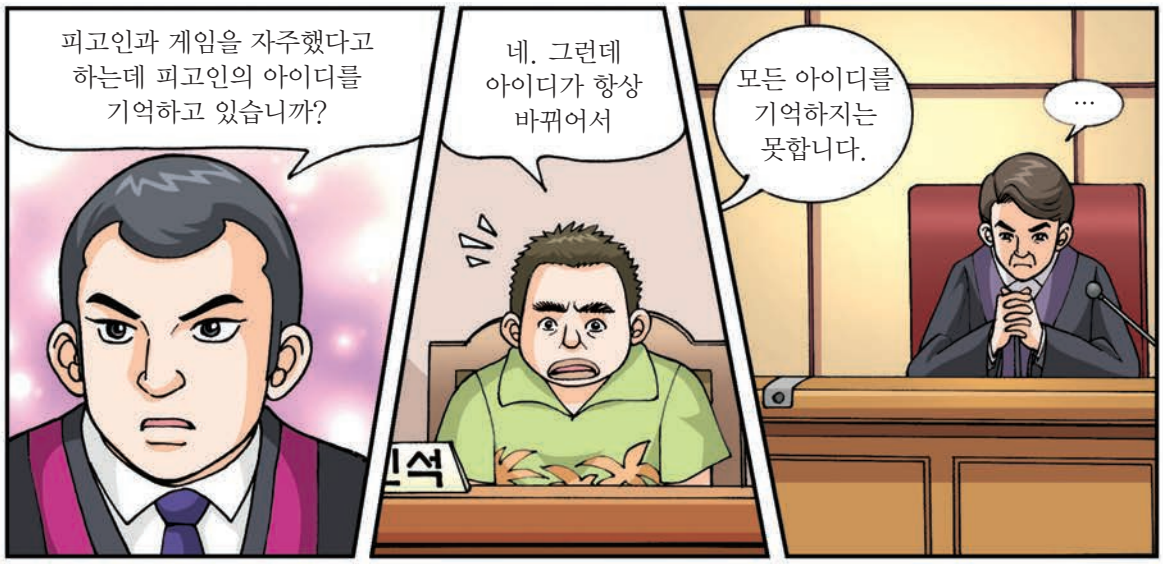
*신문 : 말로 물어 조사하는 일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거짓증언)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석
좋습니다. 증인은 앉으세요.


증인은 피고인을 잘 알고 있나요?


네. 우리 가게에 자주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랑 게임도 자주 했구요.


평소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직접 보진 못했지만 종종 아이템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며
속임이가 야식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
검사석
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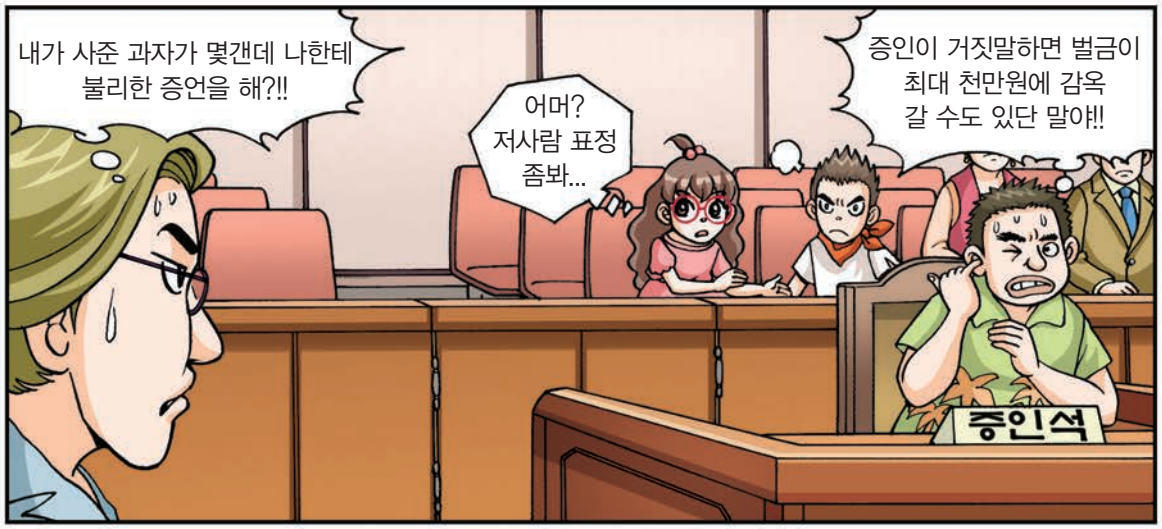

피고인과 게임을 자주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디가 항상 바뀌어서
증인석
모든 아이디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


아이디를 자주 바꾸면 고급아이템을 얻기 힘들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저 인간이...


피고인이 그렇게 자주 아이디를 바꾸면 야식을 사줄만큼의 돈이 되는 아이템을 얻기는 힘들었겠네요?
꼴깍.


저도 그점이 이상하긴 했어요.
게임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허억!!
빠직
증인석


내가 사준 과자가 몇갠데 나한테 불리한 증언을 해?!!
어머? 저사람 표정 좀봐...
증인이 거짓말하면 벌금이 최대 천만원에 감옥 갈 수도 있단 말야!!
증인석


변호인!
반대신문 하세요.
네.


증인은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PC방 사용요금을 못 받거나
외상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올때마다 꽤 오래 있다가 가면서도 돈은 잘 내고 갔습니다.


그렇군요. 증인은 평소 피고인과 함께 야식도 먹으면서
이야기도 좀 해보았을텐데 피고인의 인상이나 성품은 어떤것 같았습니까...


뭐... 항상 잘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변호인석
증인석
5. 증거조사
2) 변호인 측 증인신문
변호인 측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겠습니까?
네. 피고인의 친구 정동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변호인석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사람 거짓말로 사기꾼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건 아니겠지...
아무리 친구라지만 설마 법정에서 거짓말할려구...
증인! 선서하세요.
FIGHT


……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 (거짓증언)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시작하세요.
짜식 고생
많구만...
FUC FIGHT
증인석
너만 믿는다. 동조야.
평소 증인이 본 피고인은 어떤 친구인가요?
좀 장난기가 있긴 하지만
성격이 활발해 친구들도 많습니다.
평소 증인이 보았을때 피고인은 거짓말을 잘하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FUC FIGHT
증인석
그러면 피고인이 사기행위를 해서라도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집이 가난하지도 않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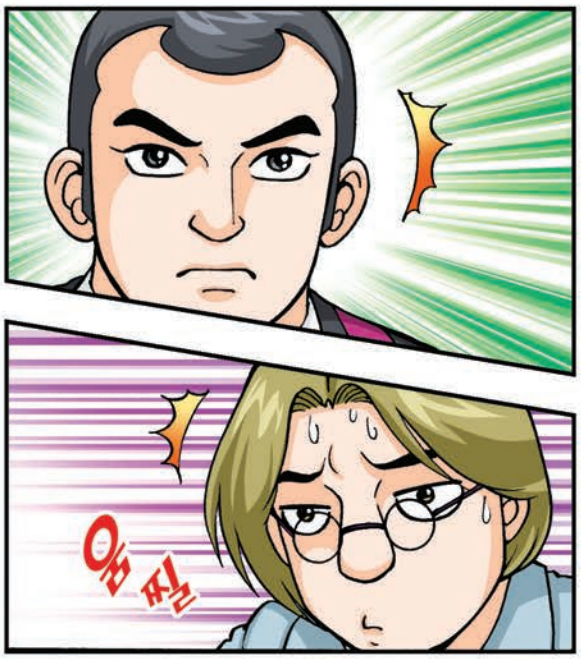

FUC
FIGHT
특별히 안 좋은 상황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님.
검사는 반대 신문하세요.
동조야 잘했어! 화이팅
헤헤 화이팅~
왠지... 불안해.
나도.
닥
닥
증인은 피고인이 가출하여 서울에 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아뇨. 그냥 놀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이 서울에서 돈 씀씀이는 어땠나요?


뭐. 친구들이랑 만나면 잘 사주기도 하고 돈을 잘 썼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아이템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석
예. 함께 PC방에 놀러 갔다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으로 300만원을 벌만큼 게임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에이... 그정도 수준은 안되죠.
그게 얼마나 힘든건데요.
나라면 모를까..
FIC
너!!!
미안해. 친구야.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안되잖아.
FIC
FIGHT
검사님 진짜 멋지다 똘아.
응! 최고!!
....!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거래로 돈을 벌어 그만큼 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아이템을 산다고 속여 아이템을 가로챈 뒤


다른 게임 유저에게 다시 파는 사기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6. 피고인 신문
1) 피고인에 대한 권리고지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김속임에 대하여 신문하여 주십시오.


움찔


2) 검사의 피고인 신문
피고인은 피해자 한똘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겠다며 아이템을 받은 적이 있지요?
네.


얼마에 아이템을 산다고 했지요?
....!
사이버머니 20만원과 10만원어치의 문화상품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이템을 받고 지불했나요?
아..아니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며칠 후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조금이 이제 두달이 넘었잖아!!
그럼 왜 본인이 약속한 이틀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
증인석
돈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피해자예요.


제가 판 아이템에 대해 저도 돈을 못받고 있다구요.
변호인석
돈이 없었으면서도 아이템을 사겠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돈을 줄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
일부러 그런건 아니예요. 정말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단지 돈이 들어올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이죠.
...!
그럼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번호는 왜 가짜 번호를 알려준 겁니까?
그건 제가 실수로 번호를 잘못 보낸겁니다.
피해자가 번호가 틀렸다고 말했으면 다시 알려줬을겁니다.
거짓말!!
재판정에 와서까지 오리발이네...


지금 피고인에게 사기 당했다며 신고접수 된 것이 10건입니다.
그럼 그들에겐 왜 돈을 주지 않았습니까?


돈이 생기면 주려고 했죠. 일부러 그런건 아니지만
결국 약속을 못 지킨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석


이상으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아주 예리하시고 핵심만을 팍팍 찌르는 신문이었던 것 같아.
멋져! 짱이야. 사기꾼이 땀을 뻘뻘 흘리게 만들었어!!


3) 변호인 반대신문
피고인이 한똘의 아이템을 사려고 했을때 아이템 가격이 처음부터 30만원이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35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만원만 깎아 달라고 했어요.
아! 그렇군요.
!...
그럼 피고인이 주려고 했던 문화상품권은 어떻게 구한 건가요?
제가 아이템을 거래하면서 받은 것입니다.
아이템 거래를 할때 종종 주고받곤 합니다.
분위기가 ...?
존경하는 재판장님!
.....
!
변호인석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정말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면.
5만원을 할인해 달라고 했겠습니까?
변호인석
...!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이 제공한 아이템의 댓가로 받은 문화상품권을 사용해 보지 않는 이상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고인 또한 아이템 사기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로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이거 말되는거니? 사기친 사람을 또 다른 피해자라니...
말도 안돼! 증거도 없는 저런 말을 누가 믿어!!


7. 최종 의견 진술
검사는 최종의견을 말씀해주세요.


1) 검사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속여
아이템을 받은 후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곳에 아이템을 다시 파는 상습적인 방법으로
약 3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기죄를 범했습니다.


이에 본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합니다.
!
• 구형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기를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
삼.삼백...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와! 삼백만원이나?!
검사님. 화이팅! 꿀밤 300대도 적극 권장해요.
2) 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은 성품이 활달하여 친구들도 많고
평소에 거짓말도 잘 하지 않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물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제때 주지 못해 약속을 어긴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으로 돈을 주지않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돈을 다 써버리고 가출을 해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피고인이 돈을 꼭 갚을 것이라는 약속도 하고
의지도 있으니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피고인 최종 의견 진술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변호인석
처음부터 아이템값을 지불하지 않으려 한 것은 아닙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준것 뿐입니다.
꼭 돈을 모두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으면서도 아이템을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 뿐이었던
제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마 판사님이 저 형의 연기에 속아 변명을
100% 진짜로 믿으시고 그냥 풀어 주시는건 아니겠지.


생각하면 괘씸하고 분통터지는 일이지만 재판을 통해 이쪽, 저쪽 사정을
차근차근 들어보니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긁적 긁적


정확하게 왜곡없이 사건을 바라보고 최대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구나!


검사님 말씀. 변호사님 말씀. 양쪽 다 논리가 있었지?
응! 재판이란게 나쁜 사람에게 무조건 벌 주는 것이 아니었어.


판사님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
꿀꺽


8. 판결 선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피고인 김속임은 미성년자 한똘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게임 아이템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인터넷 상에서 거래되는 아이템들도 물건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또한 피고인은 다른 초등학생들에게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총 피해자가 10여명 피해액은 300만원에 달한다.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린다.
!
앗싸!! 역시
정의는
승리한다.
만세!!
방~
젠장...
200만원
이나!!
톡 톡
나쁜 짓을 하면 결국
벌을 받는구나...
똘아.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안되지!
아.. 죄.죄송해요.
너무 흥분해서
그만...
에구!
천방지축
이라니까.
그렇지!
이 법정에서는
김속임이
죄인이지만...
우리 집에선 아직
내가 죄인이지...!


오늘 똘이와 함께 재판을 방청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그래...
남부
잘 구경 했지?
나리도 이번에 좋은 경험을 했구나.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헉 아버님? 어머님?
이번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똘이도 많이 반성하고
괴로워했어요. 이만 똘이에게 화를 풀어주시면 안될까요?
나리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친구를 염려하는 나리의 마음이 정말 예쁘구나.
지금 우린 똘이에게 화나 있지 않은걸.


정말이예요?
물론 처음엔 똘이에게 실망을 많이 했었지.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고 재판까지 할 생각은 없었단다.
번거롭기도 하고 별 이득도 없는 일이었으니깐...
하지만 똘이가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고
우릴 설득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단다.
똘아...
네... 아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도,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하는 행동이야. 그런데...
움찔


똘이가 잘못을 깨닫고 진지해졌구나.
앞으로는 게임도 줄이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자꾸나. 널 믿는다.
아빠...
우리 아들 힘 내!
그럼...
엄마...
앞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께요!!!
다행이야... 잘됐구나.
짝 짝 짝


그런데... 야. 약간 소외감이...
짠! 나리는 나랑 허그♥
어머! 바로미.
!
법정 이후 안보여서 궁금했어.
정말 고마웠어 바로미야.
??
바로미!! 너 당장 안 떨어져!!
우헤헷~ 남자의 질투는 추한거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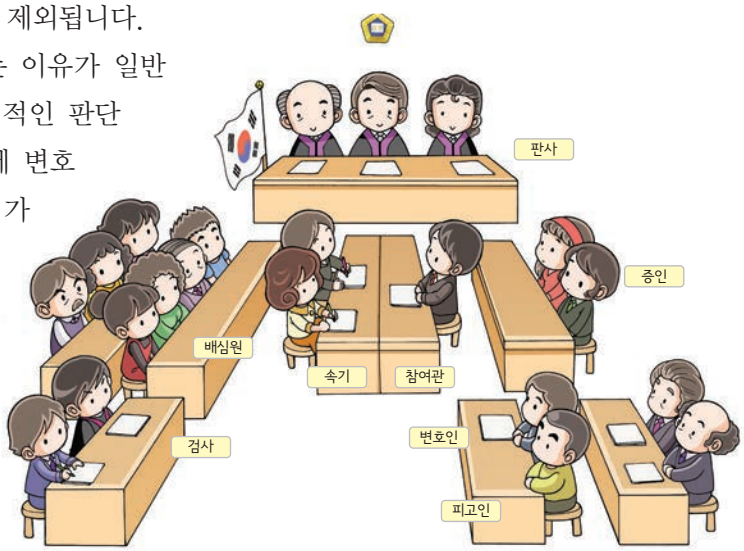
제4화 심화학습

국민참여재판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의 형사재판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재판이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판결을 내렸던 기존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합니다. 모든 형사재판이 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피고인이 신청한 사건에 한해서 열리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크게 2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만약 유죄로 평결이 내려졌다면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논의된 것을 참고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되면 법원에서는 미리 만들어 놓은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를 뽑고, 재판에 나와 달라고 연락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이 하는 일이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경찰관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배심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2권에서는...

**1권에 이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재판이야기!**

2권에서는 정의를 수호하는
법의 요정 바로미와 함께 떠나는
역사 속 재판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역사 속 재판에서는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들이 숨어있을까요?

2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제5화 **뽕~ 재판의 역사 속으로**
제6화 **정약용과 라과디아 판사**
제7화 **친구들에게 무슨 사건이?**
제8화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바로미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재판이야기 ❶

글 | 서울교육대학교 법과인권교육연구소
그림 | 극동만화연구소

1판 1쇄 발행 | 2012년 1월 13일
개정판 1쇄 | 2024년 10월 ??일

펴낸곳 | **사법발전재단**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번지 (137-750)
02)3480-1309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사법발전재단)
디자인·인쇄 | 홍디자인 02)464-5167
연구·개발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02)3480-1262

정가 8,800원

ISBN ???
??? (세트)

* 이 책의 내용을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책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어린이마당 법교육교재 코너
(http://www.scourt.go.kr/kids/edubook/index.html)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